동양학연구원 50년의 역사

(1970~2020)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2020. 9.

목 차

Ⅰ. 연구실의 역사(1970~2020) ····· 김철웅 ····· 1

Ⅱ. 편찬실의 역사(1976~2020) ····· 박찬규 ····· 35

Ⅲ. 번역실의 역사(2011~2020) ····· 장유승 ····· 93

Ⅰ. 연구실의 역사(1970~2020)

김 철 웅*

ㅣ목 차ㅣ

1. 연혁
2. 인원의 변동
3. 업무와 활동
4. 간행물

1. 연 혁

1970년 개소할 당시 동양학연구소는 중앙도서관 4층 일부를 소장실 · 사무실 · 연구실 · 도서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구소 인원과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연구 공간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0일에 연구소 전용건물인 一石紀念館을 준공하고 낙성식을 가졌다. 동양학연구소는 1976년 3월 5일에 8층으로 신축한 일석기념관으로 이전하였다.

2007년 8월에 대학이 죽전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라 동양학연구소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 건물 6층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실도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 연구 공간을 마련하였다. 동양학연구소는 2011년에 동양학연구원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연구실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동양학연구소로, 그 이후는 동양학연구원으로 표기하겠다.

1) 초창기의 연구실

우리 대학에서 동양에 관한 조사 ·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기관은 1958년에 발족한 동양문화연구소였다. 「동양문화연구소 규정」에 의하면 동양문화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 諸民族의 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과학적 인식을 확립함으로 인류의 상호 이해와 문화의 증진에 공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욕적인 출범에도 불구하고 동양문화연구소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에 1962년에 동양문제연구소가 발족

* 전 동양학연구원 연구실장 · 자유교양대학 교수
연구실 소속의 이호석 · 오대양 · 박성진 연구교수가 수집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장 김철웅(2019.3~2020.6)이 대표 집필하였다.

하게 되었다.

동양문제연구소는 한국 · 중국 ·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 민족의 역사 · 정치 · 경제 · 문화의 조사 연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동양문제연구소 역시 활동과 연구 실적이 미미 하였다. 그리하여 동양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동양문제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동양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동양학연구소는 한국을 기축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양의 역사 · 문화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앞선 연구소들에 비해 연구대상 및 분야를 보다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대학은 동양학 연구를 위한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갖추게 되었으며, 동양학 연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70년 9월 28일에 동양학연구소는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국문학과 이승욱 교수, 간사에 국문학과 황패강 교수가 취임하였다. 평의원으로는 소장과 간사 외에 국문학과 김석하, 사학과 차문섭 · 정영호, 경제학과 황명수 교수 등이 선임되었다. 동양학연구소는 발족한 날에 '제1회 평의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양학연구소 규약」을 채택하여 설립 목표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과 인원 구성을 명시하였다. 동양학연구소는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의 연구,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 간행,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의 개최, 연구소 임원의 해외교환 및 해외학자의 초빙, 연구 자료의 수집과 정리, 기타 본 연구소 설립 목적에 수반하는 사업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규약에는 연구소 인원으로 연구원 · 임원 · 직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연구원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연구원을 둔다.
1. 연구원 : 동양문화 부문에서 연구하는 본교 전임교원
2. 특별연구원 : 동양문화 부문의 연구나 운동에 공로가 있으며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외인사로서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이

제5조 연구원은 前條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특별연구원은 평의원회가 추대하는 인사로 총장이 위촉한다.

이 규약에 따르면 연구원은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연구원은 동양문화를 연구하는 교내의 전임교원이었고 특별연구원은 교외인사였다. 즉 초창기의 연구원은 교내 전임교원이 겸임하는 형태였다.

한편 직원에 대한 규정에는 幹事와 硏究補를 두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본 연구소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幹事 1명, 硏究補 약간 명

제10조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사무를 掌理한다.
연구보는 조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이러한 연구소 규약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 당시 연구소에는 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보 등을 두었다. 그리고 연구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였다.

첫 연구원 발령은 이듬해 4월에 있었다. 1971년 4월 1일에 李章佑(중문학) 강사가, 9월 1일에 李敦寧(동양철학) 강사가 연구원으로 위촉되었다. 1972년 3월 30일 제9회 평의원회에서 朴天圭(한국사)·李徽敎(중문학)·金光洙(한국사)·宋恒龍(동양철학) 강사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구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

1972년 6월 8일에 있었던 제10회 평의원회에서 연구소의 규약 중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때부터 유급연구원을 두게 되었다. 관련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4조 본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연구원을 둔다.
1. 연구원 : 동양문화 부문에서 연구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한 연구조사를 위해 유급연구원을 둘 수 있다.

1972년 6월에 개정된 연구소 규약에는 연구원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발족 당시 연구원은 교내의 전임교원이었으나 이때부터 동양 부문을 전공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를 유급연구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원을 보좌하는 연구보는 이전과 동일하게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구실 인원은 전임교원인 연구원(‘補職硏究員’), 전임연구원(‘有給硏究員’), 연구보(‘硏究員補’)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일석기념관 시기의 연구실

동양학연구소는 1976년 3월 5일에 중앙도서관 4층에서 신축한 일석기념관으로 이전하였다. 1976년 2월에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소 규약을 개정하고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규약에는 간사를 2명 두도록 하였고, 기존의 연구보를 硏究員補로 개칭하였다. 이때 간사는 연구에 관한 사항과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간사가 수석간사로 하였다. 그리고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76년 3월부터 간사는 2인 간사제로 하여 연구간사와 사무간사로 구분하게 되었다.

개정된 규약에 따라 1976년 3월 10일에 사학과 宋炳基 교수(한국사)가 보직연구원에, 李昊榮(한국사)·張錫權(한국법제사)이 전임연구원에 임명되었다. 3월 13일에는 徐榮洙(동양사)가 연구원보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1977년 3월과 5월에 연구원보로 金相洪(한문학)과 姜在哲(국문학)을 증원하였다.

1977년 9월 7일, 제32차 평의원 회의에서 漢韓大辭典 편찬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사전 편찬 기구를 설치하고 편찬원을 선발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한대사전 편찬 기구 설치를 위해 연구소 규약을 개정하였다. 12월 1일에 열린 제33차 평의원 회의에서 개정한 연구소 규약을 의결하였다. 이때의 개정 규약에 따라 漢韓大辭典 編纂을 위해 자문위원회와 編纂室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연구실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연구실을 각각 國史硏究室, 東洋史硏究室, 語文硏究室 등으로 구분하여 학문 분야별로 업무를 주관하도록 한 것이다.

1985년 3월에는 연구원 중에서 물러난 이들 중에서 김상홍, 김원모, 남풍현, 박천규, 서영수, 송병기, 이호영 교수를 '委囑硏究員'으로 촉탁하였다. 이들은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원에 위촉된 것으로 기존의 보직연구원과 같은 성격이었다. 그리하여 연구실 인원으로 연구원, 연구원보, 위촉연구원을 두게 되었다. 1990년 9월에 연구원은 정석용, 유덕상, 정용욱, 강영순 4명이었고 연구원보는 김세봉, 김승회 등이었다. 그리고 위촉연구원은 이호영, 지영재, 김원모, 김상홍, 서영수, 강재철, 한시준 등이었다.

한편 1986년 3월에는 연구원으로 연구간사를 맡고 있던 강재철이 동양학연구소 소속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다. 강재철은 1989년 3월에 국문과로 전보되었다. 1989년 10월에는 김영수 연구간사가 동양학연구소 소속의 조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연구실 소속의 전임교원을 두게 되었다.

1993년 10월에 이르러 연구실 편제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연구실은 기존의 國史硏究室, 東洋史硏究室, 語文硏究室이 語文學部, 史學部, 哲學部 등으로 재편되었다. 그리하여 어문학부에 연구원 鄭錫龍(한문학), 姜英順(고전문학), 金昇會(한문학)가, 그리고 위촉연구원은 金相洪(한문교육과), 池榮在(중문과), 姜在哲(국문과) 교수가 있었다. 史學部에는 연구원으로 鄭容郁(한국사), 金世奉(한국사)이, 위촉연구원으로는 金源模(사학과), 徐榮洙(역사학과), 李昊榮(사학과), 韓詩俊(역사학과)이 있었다. 그리고 哲學部에는 柳德相(불교철학) 연구원이 있었다.

1996년에는 간사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11월에 권영대 행정간사가 편찬실장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에 김영수 연구간사가 연구실장으로 발령되었다. 이렇게 하여 1997년 4월부터 연구실 책임자의 직함이 연구간사에서 연구실장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연구실장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97년부터 동양학연구소는 학교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다. 학교 당국에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동양학연구소와 퇴계학연구소, 중국연구소 등을 동양학연구원으로 통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98년 3월 1일자로 동양학연구소는 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듬해 2월에 동양학연구센터는 다시 동양학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결국은 2000년 11월 30일에 동양학연구원은 원래의 동양학연구소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의 여파에 따라 연구실도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학교 당국의 연구소 정비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유급연구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양학연구소의 연구실도 무급연구원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때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었던 인원은 송재용 · 조문주 · 김현수 · 심기재 · 이은상 · 김호연 등이었다. 그리고 외부과제 수행 중에만 연구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학교의 연구원 정책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소의 구성인원도 연구과제별로 변모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를 수행할 연구 인력들은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 사업에 「동아시아 관계사 자료색인 및 분류목록 - 二十五史抄(상 · 중 · 하)를 중심으로」가 선정되어 이듬해 1월 1일자로 김보한 · 김철웅이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01년 6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 사

업에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가 선정되어 김기선 · 최형원이 연구원이 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연구원 직급의 변동에 따라 중점과제팀의 선임연구원인 송재용, 박양신, 윤승준, 오인영 등이 연구교수로 발령되었다. 2002년 11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에 '교역과 약탈'이 선정되어 박승범이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05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연구과제명: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전통의 지속과 변용, 9년)이 선정되었다.

2009년 4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기초자료사업(연구과제명 :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 귀중본 해제)이 선정되어 김철웅, 김현주가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6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토대연구사업에 연구과제명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집성'이 선정되어 김정숙, 박영미, 함영대, 서한석, 서한용, 윤재환, 우장, 정현도, 손유경, 김영옥, 엄태웅, 배종석, 안창수, 권동순 등이 토대사업팀의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12년 6월에 당진시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면양잡록』 역주사업'팀에 남성우, 임근실, 박나연이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2013년 9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에 연구과제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 성과 DB 구축'(3년)이 선정되어 고혜련, 김한신, 박성진이 토대기초연구사업팀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처럼 1999년 이후부터 연구실에는 외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한편 2001년 3월에 신채식이 동양학연구소 초빙교수로 발령을 받았으며, 2002년 3월에는 이재령과 송병오가 동양학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연구소의 인력 구성은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교수 및 연구원 이외에 연구소 소속의 유급 연구교수를 다시 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실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연구원은 없었다.

2005년 6월에 열린 평의원 회의에서 연구실 활성화가 논의되었고, 이어 연구실 소속의 유급연구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과는 별도로 연구소 자체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전임 연구원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2006년 7월 1일자로 연구실 소속의 유급연구원으로 김철웅 연구전임강사가 임명되었다. 2008년에 이호석과 김홍겸이 유급연구원인 연구전임강사로서 연구실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연구실에는 3명의 유급연구원을 두게 되었다. 이들은 연구과제 기획 및 동양학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동양학』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硏究院 체제의 연구실

동양학연구소는 2011년 9월 1일에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동양학연구원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동양학연구원 내에 연구실, 편찬실, 번역실, 동양학자료실, 행정지원팀 등을 두고, 산하 연구소로 역사문화연구소 · 한중관계연구소 ·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등을 설립하였다.

동양학연구소가 동양학연구원으로 승격되고 교책중점연구기관이 되면서 연구실 인력에 대한 보강이 있었다. 연민문고해제사업팀에 있던 연구원 김철웅을 연구실의 연구전담전임강사로 임명하여 연구과제 1팀을 담당케 하였고, 이권희를 연구과제 2팀의 책임연구원으로, 맹영일을 기획팀 선임연구원으로 임명하였다.

2012년 6월 30일자로 토대기초연구과제 사업이 종료되어 연구원으로 있던 권동순, 김민정, 김수경, 김우진, 김정숙, 김진경, 박상진, 서한석, 손유경, 신명숙, 안창수, 이종필, 임근실, 함영대 등이 면직되어 연구실을 떠나게 되었다.

2014년 3월에 김철웅과 김홍겸이 전임교원에 임용되어 연구원을 사임하였다. 이에 양지선과 오대양이 연구전담조교수로 발령을 받아 연구실에 들어왔다. 4월에는 김주창이 연구전담부교수로 연구실에 발령을 받았다. 김주창은 이듬해 3월에 철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연구실을 떠났다. 11월 30일자로 중점연구소사업이 종료되어 과제팀의 김영순, 서종원, 염원희, 이영수, 임선숙, 차선일 연구교수, 그리고 김민지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12월에는 면양잡록역주사업팀의 남성우, 임근실, 박나연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2017년 3월에는 양지선의 후임으로 박성진이 연구전담조교수로 발령받아 연구실에 소속되었다. 이렇게 하여 이호석 연구교수, 오대양 연구전담조교수, 박성진 연구전담조교수 등 모두 3명이 연구실 소속이 되었다. 연구교수 이호석은 『동양학』지와 연구총서 발간을, 오대양은 동양학 국제학술회의와 해외교류사업을, 박성진은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각각 담당하여 왔다. 2020년 3월부터는 연구실 업무를 재조정하여 2년 임기의 순환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동양학』지와 연구총서 발간 업무는 오대양이, 동양학 국제학술회의와 해외교류사업은 박성진이,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은 이호석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2. 인원의 변동

연구실의 주요 사업은 학술지 『동양학』을 발간하고, 동양학 관련 희귀자료를 수집하여 동양학총서를 발간하며, 동양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연구실장)와 연구원을 두었다.

1971년 1월 1일에 한국학계의 원로인 이희승 박사를 제2대 소장으로 추대하고, 제1대 소장을 역임했던 이승욱 교수가 2대 간사로 취임하였다. 2대 간사 이승욱이 사임하고, 3대 간사로 1971년 9월에 국문과 황패강 교수가 취임하였으며, 4대 간사로 1973년 국문과 남풍현 교수, 5대 간사로 중문학과 이장우 교수가 취임하였다. 1976년 연구소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간사 업무를 세분하여 연구간사와 사무간사(행정간사)를 두는 체계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에 간사 이장우는 연구간사가 되고, 연구원 장석권이 연구원 겸 사무간사로 취임하였다. 1976년 9월에 연구간사 이장우가 사임하고 6대 연구간사로 사학과 송병기 부교수가 취임하게 되었다. 1980년 2월 28일에 송병기 교수가 간사를 사임하고 7대 연구간사로 박천규 교수가 취임했다. 1985년 3월 1일에 8대 연구간사로 강재철이 취임하였고 1989년 3월 1일에 김영수 교수가 취임하였다.

1996년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됨으로써 동양학연구소의 중점 사업이었던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의 1차 계획이 마무리되었다. 1997년부터 연구소는 사전편찬 사업의 2차 계획에 해당하는 『한한대사전』의 출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양학연구소는 체제 정비를 통해 편찬실·연구실·행정실 등의 3개 조직

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간사 제도의 폐지와 실장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성과 및 활동을 보다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6년에 기존의 연구간사 및 행정간사 제도가 폐지되고 편찬실장과 연구실장으로 구성되는 실장제도로 개편되었다. 개정 규정집(1996.6.21)에 "편찬실장은 교수 또는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1996년 11월 8일에 권영대 행정간사가 편찬실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규정집에 연구실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연구간사를 폐지하고 연구실장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연구간사였던 김영수 교수가 1997년 3월 1일부로 연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1998년 12월에는 한시준 연구실장의 후임으로 연구원 송재용이 연구실장을 대행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최희재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연구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때부터 다시 전임교원을 연구실장에 임명하게 되었다.

사학과 김문식 교수가 2009년 11월에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2013년 7월에 면직되었다. 8월에 사학과 전덕재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2015년 6월에 임기 만료로 면직되었다. 2015년 7월에 문과대학의 이재령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2019년 2월에 면직되었고,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유교양대학의 김철웅 교수가 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자로 자유교양대학의 박성순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였다.

〈표 1〉 연구간사 및 연구실장 현황

번호	성명	임기	소속	비고
1	황패강	1970.9.28~1970.12	국문과	간사
2	이승욱	1971.1~1971.8	국문과	간사
3	황패강	1971.9~1973.2	국문과	간사
4	남풍현	1973.3~1975.1.30	국문과	간사
5	이장우	1975.1.30~1976.8	중문과	간사 · 연구간사
6	송병기	1976.9~1980.2	사학과	연구간사
7	박천규	1980.3~1985.2	한문교육과	연구간사
8	강재철	1985.3~1989.2	동양학연구소	연구간사
9	김영수	1989.3~1998.2	동양학연구소	연구간사 · 연구실장
10	한시준	1998.3~1998.6	역사학과	연구실장
11	송재용	1998.12~2005.12	동양학연구소	연구실장
12	최희재	2006.1~2008.6	사학과	연구실장
13	정재철	2008.7~2009.10	한문교육과	연구실장
14	김문식	2009.11~2013.7	사학과	연구실장
15	전덕재	2013.8~2015.6	사학과	연구실장

번호	성명	임기	소속	비고
16	이재령	2015.7~2019.2	문과대학	연구실장
17	김철웅	2019.3~2020.6	자유교양대학	연구실장
18	박성순	2020.7~2022.6	자유교양대학	연구실장

연구실 사업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원의 보강도 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구원과 연구원보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1971년 4월에 李章佑(중문학)가, 9월에 李敦寧(동양철학)이, 1972년 3월에 朴天圭(한국사)·金光洙(한국사)·李徽敎(중문학)·宋恒龍(동양철학)이 연구원에 임명되었다. 1976년 3월에 문리대 사학과 宋炳基(한국사) 조교수가 연구원으로 위촉되었고, 李昊榮(한국사)·張錫權(한국법제사)이 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휘교와 김광수가 연구실을 떠났다. 1977년 3월과 5월에는 김상홍과 강재철이 연구원으로 부임하였고, 1978년 3월에는 김상현이 연구원이 되었다. 1980년 3월에는 박천규가 전임교원이 되어 연구원에서 물러났고, 9월에 강영철이 후임으로 들어왔다. 동양학연구소 개소 10년이 되는 1980년 9월 말에 연구실 소속의 연구원은 송병기, 신승하, 이호영, 김상홍, 김상현, 서영수, 강재철, 강영철 등 모두 8명이었다.

1981년 3월에는 연구원 송병기가 사임하였고, 1981년 9월 후임으로 김영수가 연구원이 되었다. 1982년 3월에는 신승하, 이호영, 김상홍이 연구원을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한시준과 정석용이 연구원이 되었다. 1983년 2월에는 신승하, 서영수, 김상현 연구원이 사임하였고, 1985년 1월 유덕상 연구원이 부임하였다. 1986년에는 정용욱, 최명화 연구원이 연구실로 들어왔고, 강재철 연구원이 연구실을 떠났다. 1988년에는 한시준, 강영철, 최명화 연구원이 사임하고, 1988년 5월 강영순 연구원이 부임하였다. 1989년 3월 김영수 연구원이 연구실 간사가 되었고, 김세봉과 김승회가 연구원이 되었다.

1990년 11월에는 박기완이, 1992년 1월에는 이재령이 연구원이 되었으며, 1992년 5월에는 강영순 연구원이 사임하였다. 1996년 5월 1일 연구실 소속 연구원이었던 정석용, 김세봉, 이재령이 『한한대사전』 편찬실로 배속되었다. 유덕상, 박기완, 정용욱 연구원은 연구실에 남게 되었으나, 이듬해 정용욱 연구원까지 사직하면서 연구실의 기능은 크게 위축되었다.

1997년 9월에 김보영과 김양식이 연구실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1998년 5월에 심기재, 송재용, 이은상, 조문주, 김병기, 김호연, 정수영, 김양식 등이 연구원으로 발령받았고, 10월에는 김우정이, 11월에는 김현수가 연구원으로 들어왔다. 1999년 3월에 김양식 연구원이 사임하였고, 10월에는 김우정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실로 소속을 옮겼다. 12월에는 동양학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에 '개화기 대외민간문화교류 자료초'가 선정되어 연구실에 큰 변동이 있었다. 연구실은 과제 수행을 위한 1·2세부과제팀을 두게 되었다. 1세부과제팀은 송재용·김현수·이은상·신선희 등의 연구원으로, 2세부과제팀은 심기재·윤승준·김병기·권동순 등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 1월에 윤승준과 김진호가 새로 연구원이 되었고, 3월에는 김현수와 심기재가 전임교원에 임용되어 연구실을 떠났다. 그 후임으로

박양신, 김진희가 임용되었으며, 후에 김진희의 후임으로 오인영이 연구원이 되었다.

2000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송재용, 윤승준, 박양신, 오인영 연구원이, 2002년 3월에는 이재령, 송병오 연구원이 연구교수로 발령받았다. 2001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과제를 진행했던 김보한·김철웅이 연구원으로 임용되었고, 역시 인문학육성과제를 수행했던 박원길·김형원·김기선 등이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1년 12월에 영국의 셰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프랑스 사회과학원 한국학연구소, 러시아 페쩨르부르그대학교 동양학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셰필드대의 그레이슨 교수, 프랑스 사회과학원의 길레모 교수, 페쩨르부르그 대학의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교수를 동양학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위촉하였다.

2002년 11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에 연구과제 '교역과 약탈'이 선정되어 12월에 박승범이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04년 3월에는 윤승준, 김주언 연구교수가 연구소를 떠나 교양학부로 옮김에 따라 김호연 연구원이 연구교수로 승진 발령되고 박상진과 이현우가 연구원으로 새로 들어왔다. 2004년 9월에는 김호연 연구교수가 사임하고 장두식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전통의 지속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중점연구소 과제에 재차 선정됨에 따라 또 한번 연구원 임용에 변동이 있었다. 1세부과제 팀은 송재용·송혁기·김난주 등이 연구전임강사로, 이현우·권동순이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리고 2세부과제 팀은 장두식·김재관·조은숙이 연구전임강사로, 박상진·노정래가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2006년 3월 송재용이 강의조교수로 임용되면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윤재환이 연구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7월에는 김철웅이 연구실의 연구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2008년 4월에 이호석이 연구실 연구전임강사로 부임하였고, 12월에는 김홍겸이 연구교수로 부임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가 2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연구진을 재구성하였는데 연구교수에 최석영, 김난주, 서종원, 김재관, 장두식, 김호연이, 연구원에 박상진과 유용태가 임용되었다. 2009년 4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국학기초자료사업에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를 주제로 선정되어 김현주가 연구원으로 발령받았고, 6월에는 연구전임강사 김철웅이 임기 만료 후 이 과제의 전임연구원으로 발령되었다. 2009년 6월에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사업인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 집성'팀의 연구원으로 김정숙, 박영미, 함영대, 서한석, 서한용, 윤재환, 우장, 정형도, 손유경, 김영옥, 엄태웅, 배종석, 안창수, 권동순이 발령을 받았다.

2010년에 토대기초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우장 연구원이 사직하여 후임에 이종필이 발령되었고, 정형도 연구원은 편찬실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 후임에 부유섭이 들어왔다. 중점연구소 과제의 최석영 연구교수도 사직하여 후임에 이영수가 부임하였다. 2011년에는 토대기초연구팀 연구인력의 부침이 심했는데, 3월에는 김영옥, 서한용 연구원이, 4월에는 부유섭 연구원이 사직하였고, 이들의 후임으로 5월에는 김진경과 이현주가, 8월에는 김수경이 연구원으로 발령되었다.

2011년 9월 1일, 동양학연구소가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인 '동양학연구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었다. 김홍겸이 연구교수에서 초빙교수로 직위 변경되었고, 국학기초자료사업을 수행하던

김철웅 전임연구원이 연구전담전임강사로 연구실에 복귀했으며, 이권희가 책임연구원으로, 맹영일이 선임연구원으로 새로 발령을 받고 연구실에 들어왔다. 10월에는 신명숙과 김우진이 토대기초연구과제팀에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2009년 4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수주했던 국학기초자료사업이 2012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김현주 연구원이 사직하였다. 중점연구소과제팀의 박상진 연구원이 토대기초과제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토대기초과제팀의 엄태웅, 이현주 연구원이 사직하였으며, 임근실이 토대기초과제팀에 새로 들어왔다. 3월 말에는 토대기초과제팀 배종석 연구원이 사직했고, 중점연구소과제팀의 권선경, 김호연 연구전임강사가 사직하여 염원희와 김영순이 후임 연구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2009년 6월에 수주하였던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연구과제가 2012년 6월에 완료됨에 따라, 권동순, 김민정, 김수경, 김우진, 김정숙, 김진경, 박상진, 서한석, 손유경, 신명숙, 안창수, 이종필, 임근실, 함영대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이 가운데 김정숙은 연구전담교수로, 김영옥은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9월에는 연구실의 이권희 책임연구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일본연구소로 이직하였다. 12월에는 중점연구소과제팀의 김재관 연구교수가 사직하고 차선일이 후임으로 들어왔다.

2013년 8월에 중점연구소과제팀의 장두식 연구전임강사가 사직하였고, 후임으로 임선숙이 발령을 받았다. 9월에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성과(문헌) DB 구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연구책임자 심재훈)이 선정되어 고혜련, 김한신, 박성진이 연구원으로 발령되었다.

2014년 2월에 김홍겸 초빙교수와 김철웅 연구전담전임강사가 전임교원에 임용되어 연구실을 떠났다. 이들 후임으로 오대양과 양지선이 연구전담조교수로 임용되었다. 4월에는 김주창이 연구전담부교수로 연구실에 발령되었다. 11월 30일에는 2005년에 시작되었던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연구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김영순, 서종원, 염원희, 이영수, 임선숙, 차선일 연구교수와 강홍구, 김민지, 김태환, 심민기, 이미현, 이영주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2015년 3월에 김주창 연구전담부교수가 문과대학 철학과로 소속을 옮기면서 연구실을 떠났다. 6월 말에 김정숙 연구전담조교수는 연구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연구실을 떠났다.

2016년 2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김한신 연구원이 연구원을 사직하고, 그 후임으로 빈동철이 연구원으로 발령되었다. 2016년 8월에 연구 사업이 만료되면서 고혜련, 박성진, 빈동철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2017년 1월에는 직급 개편에 따라 이호석 연구전임강사가 연구교수가 되었다.

2017년 9월에 토대연구지원사업 두 과제가 동시에 선정되었다. 연구원 산하 한중관계연구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생활사 자료 DB구축－경주지역 李中久家 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5년 과제(연구책임자 이재령)를 수주하였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항일음악의 보급과 연구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해제 및 DB구축'을 주제로 5년 과제(연구책임자 한시준)가 선정되었다. 한중관계연구소는 규정에 따라 과제 선정 직후 동양학연구원에서 분리되어 대학부설연구소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과제팀은 여전히 동양학연구원 연구실 공간 안에서 현재까지 과제를 수

행하고 있다. 한 해에 두 과제가 선정됨으로써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연구 인력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중관계연구소에는 권기갑, 김명환, 이충구, 임재완이 연구원으로 발령되었다. 항일음악 과제팀에는 김수현, 반혜성, 염원희가 연구교수로 신규로 발령되었다. 그리고 연구실 연구전담조교수였던 양지선이 이 과제팀의 연구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에 박성진이 양지선의 후임으로 연구전담조교수로 발령되었다. 2019년 5월에 항일음악 과제팀의 양지선 연구교수가, 6월에는 염원희 연구교수가 사임하였다. 그 후임으로 노복순과 김명섭이 발령되었다.

2020년 6월 현재, 연구실에는 전임연구원으로 이호석 연구교수, 오대양·박성진 연구전담조교수가 재임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교수 4명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다.

3. 업무와 활동

연구실의 업무는 크게 학술 업무, 간행물 간행, 연구과제 기획 및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학술업무는 동양학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심포지엄 등 각종 학술회의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해외교류사업의 기획과 진행이다. 그 다음 업무는 학술지『東洋學』발간 및 동양학 관련 자료 및 연구총서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업무는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 기관에서 지원 받은 연구과제 프로젝트팀을 관리·지원하는 일이다. 먼저 학술 업무 활동을 정리해 보며 다음과 같다.

1) 동양학 학술회의

동양학 학술회의는 동양학연구소 출범 이래 현재까지 연구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동양학 학술회의는 한국 및 동양문화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각 분야에서 이룩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하였다. 동양학 학술회의는 동양학연구원을 상징하는 학술회의로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은 학술지인『동양학』에 게재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40회부터는 동양학학술회의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연구자들도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로 개최하고 있다.

1971년 10월의 '제1회 동양학 학술회의'가 개최된 이후 2019년 11월까지 총49회에 걸쳐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개최한 동양학 학술회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동양학 학술회의 현황

회수	개최일자	주제	발표자	비고
1회	1970.10.12	한국사와 한국문학 연구의 현황	4명	
2회	1971.10.26~27	한국문화의 형성	4명	국제
3회	1973.10.27~28	한국고대문화의 특성	6명	
4회	1974.10.26~27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高麗期(Ⅰ)	6명	국제
5회	1975.10.11~12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高麗期(Ⅱ)	6명	
6회	1976.10.16~17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高麗期(Ⅲ)	6명	
7회	1977.10.15~16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Ⅰ)	6명	국제
8회	1978.10.15~16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Ⅱ)	6명	
9회	1979.10.13~14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Ⅲ)	6명	
10회	1980.10.11~12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Ⅳ)	6명	
11회	1981.10.17~18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Ⅴ) : 藝術部分(1) 美術	6명	
12회	1982.10.23~24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Ⅵ) : 藝術部分(2) 音樂・演劇	6명	
13회	1983.10.15~16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Ⅶ) : 外交・國防部門	6명	
14회	1984.10.13~14	한국중세문화의 특성 - 朝鮮王朝前期(Ⅷ) : 16世紀末 倭亂期에 關한 綜合硏究	6명	국제
15회	1985.10.12~13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朝鮮王朝後期(Ⅰ) : 韓・中・日 實學의 特性	6명	국제
16회	1986.10.12~13	韓國近世文化의 特性-朝鮮王朝後期(Ⅱ) : 實學部門(2)	6명	
17회	1987.10.17~18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Ⅲ)	6명	
18회	1988.10.15~16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Ⅳ)	6명	
19회	1989.10.14~15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Ⅴ)	6명	
20회	1990.10.19~20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Ⅵ)	6명	
21회	1991.10.26~27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朝鮮王朝後期(Ⅶ) : 近代國語의 特徵과 硏究史 檢討	6명	
22회	1992.10.16~17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Ⅷ) : 文學部門	6명	
23회	1993.10.21~22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Ⅸ) : 哲學・思想部門	6명	
24회	1994.10.15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Ⅹ) : 藝術部門(1)	5명	
25회	1995.10.14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Ⅺ) : 藝術部門(2)	5명	
26회	1996.10.26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朝鮮王朝後期(Ⅻ) : 軍事・外交部門	5명	
27회	1997.10.18	韓國近世文化의 特性 - 開港期(Ⅰ) : 韓國近代史의 歷史的 性格	5명	
28회	1998	개최되지 않음		
29회	1999.10.30	開港期의 改革과 近代化	5명	

회수	개최일자	주제	발표자	비고
30회	2000.10.28	동아시아의 문호개방과 근대화	5명	
31회	2001.10.20	改化期의 語文學	5명	
32회	2002.10.19	개화기의 전통문화와 예술	5명	
33회	2003.10.18	개화기 신구사상의 대립과 교체	5명	
34회	2004.10.16	改化期 經濟 社會의 變動	5명	
35회	2005.10.22	日帝 强占期의 政治	5명	
36회	2006.10.21	日帝 强占期의 經濟와 社會	5명	
37회	2007.10.25	- 개교 6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5명	국제
38회	2008.12.05	일제강점기의 문학과 예술	4명	
39회	2009.11.20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4명	
40회	2010.10.29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Ⅰ : 동아시아 문명 기원과 교류	7명	국제
41회	2011.11.11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Ⅱ :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7명	국제
42회	2012.11.09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Ⅲ : 동아시아의 철기문화와 고조선	8명	국제
43회	2013.11.07~08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Ⅳ : 고조선 · 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14명	국제
44회	2014.11.07	동아시아의 문명교류Ⅴ :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구려	7명	국제
45회	2015.11.17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관계	6명	
46회	2016.11.24	한국사 속의 외래인, 이주와 삶	6명	
47회	2017.10.26	통일한국을 위한 인문학적 모색	7명	국제
48회	2018.11.30	동과서 문화의 교류와 경계 1 : 21세기 문명문화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실크로드학의 어제와 오늘	7명	국제
49회	2019.11.28	동과서 문화의 교류와 경계 2 : 요새화와 도시화 - 고대 문명 사이의 첫 번째 대화	7명	국제

동양학 국제학술회의는 매년 국내 · 외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동양학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지금까지 크게 다섯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문화의 특징'을 대주제로 설정하여 총 27회에 걸쳐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970년 10월 12일에 제1회 대회로서 '한국사와 한국문학 연구의 현황'을 주제로 이틀간 개최되었다. 첫날은 발표회가, 둘째날에는 토론회가 열렸다. 1971년 1월 1일 이희승 박사가 제2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한국문화의 형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동양학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1997년 제27회 동양학 학술회의까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1999년과 2005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과제에 연속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구소는 중점연구소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동양학 학술회의의 성격과 세부주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9

년부터 2004년까지(29회~34회)는 1999년 선정된 중점연구소 과제의 성격에 맞추어 근대 개화기의 사상과 문화, 예술, 경제 및 근대화 과정에 대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5년(35회)부터 2009년(39회)까지는 2005년에 선정된 중점연구소 과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전통문화의 지속과 변용」의 성격에 따라 세부주제들이 설정되어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동양학연구소가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되고 2011년 9월 1일자로 동양학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도 확대, 개편되었고, 동양학 학술회의의 위상 또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2010년(40회)부터 2014년(44회)까지 5개년에 걸쳐 '동아시아의 문명교류'를 대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45회)부터 2017년(47회)까지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관계」, 「한국사 속의 외래인」, 「통일 한국을 위한 인문학적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주제를 연속해서 개최하던 기존의 동양학 학술회의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에 원래대로 장기 주제에 의한 학술회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2018년에 이재령 연구실장의 주도로 '동과 서, 문화의 교류와 경계'라는 대주제로 5개년 계획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2018년을 1년차로 하여 '21세기 문명 · 문화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실크로드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김문식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9년 상반기에 기존 5개년 계획을 총 10개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연구실에서 세부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실에서는 주제 선정 기준을 '문 · 사 · 철을 중심으로 한, 동 · 서 교류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주제'로 정하고, 10년 기간을 시기별로 안배하여 선사 · 고대 4개년, 중세 2개년, 근 · 현대 4개년으로 계획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논의한 결과 연차별 주제의 키워드를 ① 실크로드, ② 요새와 도시, ③ 교역, ④ 유목민, ⑤ 불교, ⑥ 몽골, ⑦ 학술, ⑧ 여행, ⑨ 제국과 식민, ⑩ 디아스포라 등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1. 2018년 48회 : 21세기 문화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실크로드학의 어제와 오늘
2. 2019년 49회 : 요새화와 도시화 : 고대 문명 사이의 첫 번째 대화
3. 2020년 50회 : 고대 문명 간의 교류와 교역
4. 2021년 51회 : 고대 동서 문화의 교류자, 유목민과 그 사회
5. 2022년 52회 : 불교의 동서전파
6. 2023년 53회 : 중세도시와 동 · 서 교류
7. 2024년 54회 : 지식의 수입과 세계관의 변화
8. 2025년 55회 : 그랜드 투어
9. 2026년 56회 : 제국과 식민의 길
10. 2027년 57회 : 디아스포라와 境界人

장기 주제 「동과 서, 문화의 교류와 경계」의 두 번째 학술회의는 "요새화와 도시화 - 고대 문명 사이의 첫 번째 대화"를 주제로 하여 2019년 11월에 제49회 동양학 학술회의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연구실은 최종 논

의를 거쳐 위에 제시한 10년 장기 계획안을 2020년 4월에 열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동과 서, 문화의 교류와 경계」의 세 번째 학술회의는 2020년 11월에 '고대 문명 간의 교역'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 연구발표회

동양학연구원은 1972년부터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초창기의 연구발표회는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연구 성과나 『이십오사』 발췌 정리 작업 중에 도출된 문제에 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연구실 자체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거나 해외 학자들을 초빙하여 좌담이나 강연을 듣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72년 6월 13일에 제1회 연구토의회(연구원 李章佑 발표, 제목 '史記太史公自序')를 가진 이래 월례연구토론회 · 월례연구발표회 등으로 명칭 변화가 있었으나, 그 취지와 목적은 면면히 계승되어 2020년 2월까지 총 172회에 걸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발표회 현황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	1972.06.13	이장우	사기 태사공 자서
2	1972.07.12	박천규	진서 부여열전
3	1972.08.16	이휘교	송서 사령운전론
4	1972.09.12	김광수	사기 조선열전
5	1972.10.11	송항룡	송서 도연명전
6	1972.11.14	이장우	한서 사마천열전찬
7	1972.12.13	박천규	북사 신라열전
8	1973.02.20	김광수	양서 신라전
9	1973.03.21	송항룡	사기 노자전
10	1973.04.25	이장우	진신당서전
11	1973.05.17	박천규	북사 우문술전
12	1973.06.19	이휘교	구당서 두보전
13	1973.08.28	김광수	삼국지 위지 한전
14	1973.09.21	송항룡	사기 장자전
15	1973.10.12	이장우	진서 진수전
16	1973.11.23	박천규	북사 백제전
17	1973.12.21	이휘교	위지 왕찬전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8	1974.01.25	김광수	금사 고려전
19	1974.02.22	송항룡	사기 공자세가
20	1974.03.26	이장우	오지 손견, 손책전
21	1974.04.23	박천규	북사 백제전(續)
22	1974.06.25	이휘교	구당서 이백전
23	1974.07.27	김광수	원사 기황후전
24	1974.08.27	송항룡	송사 주돈이전
25	1974.09.26	신승하	명사 조선전
26			기록 없음
27	1974.11.28	이장우	신당서 맹교전
28	1974.12.17	박천규	진서 동이, 진한
29	1974.12.17	이휘교	신당서 문예전(중)
30	1975.01.31	김광수	원사 탐라전
31	1975.02.25	송항룡	송사 도학전
32	1975.03.27	이휘교	구당서 송지문전
33	1975.04.23	이장우	사기 백이열전
34	1975.06.24	김광수	북사 권94, 열전82
35	1975.09.29	송항룡	송사 권 427, 도학전一 장재
36	1975.10.28	장석권	조선왕조형벌법의 특징
37	1975.11.28	김광수	25사 발췌자료범례 설명
38	1975.12.23	신승하	송사 고려전
39	1976.01.28	박천규	사기 권124, 어협열전 제64
40	1976.02.24	이휘교	한서 권54, 이광, 소건전 제24(이릉전)
41	1976.04.24	송병기	하여장의 주지외교의에 관하여
42	1976.05.21	이호영	승신미 사호 시비
43	1976.07.23	송항룡	노장에서의 언어문제
44	1976.09.23	장석권	조선왕조 형벌법의 특징
45	1976.10.25	이호영	괘안 이수온의 일연구
46	1976.11.17	장석권	兪吉濬의 법사상
47	1977.03.28	송병기	대한제국의 성립에 관하여
48	1977.04.25	박천규	사대부에 관하여
49	1977.05.20	井上秀雄	일본에 있어서 한국학 연구 근황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50	1977.06.27	송항룡	동양인의 신관
51	1978.05.20	이호영	성읍국가설에 관하여
52	1978.06.22	김상현	삼국유사를 통해본 일연의 불교사 인식
53	1978.08.31	김상홍	다산의 사회시에 관한 연구
54	1979.10.10	황패강	내가 본 일본과 그 문화
55	기록 없음		
56	1981.04.06	김원모	견미사절 홍영식복명문답기
57	1981.04.30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구조적 분석
58	1981.05.28	서영수	광개토대왕비문의 「朝貢」 기사에 대하여
59	1981.06.25	강재철	삼국유사의 漢讚에 대하여
60	1981.07.15	윤내현	중국원시시대연구의 문제점
61	1981.09.09	이호영	신라삼국통일에 관한 재검토
62	1981.10.28	김상홍	다산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63	1981.11.24	이강로	문법적 모호성과 그 사전처리의 문제점
64	1981.12.15	권영대	서보의 한시와 그 특징
65	1982.01.29	이호영	의려제련화설
66	1982.03.23	이충구	한국한자에 대한 문자학적 고찰
67	1982.04.26	이강로	차자어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68	1982.11.29	김영만	한한사전에서의 한자음
69	1982.12.06	강재철	구미에 있어서의 한문학연구의 동향
70	1983.01.25	김원모	장인환 저격사건의 역사적 의의
71	1983.05.23	이강로	어휘의 고증과정에 대하여
72	1983.06.27	김원모	로즈함대의 내침과 양헌수의 항전
73	1983.11.30	김영수	여류문학연구의 몇 가지 검토
74	1983.12.07	윤내현	고조선의 재인식
75	1984.04.26	한시준	조소앙 연구: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76	1984.09.14	이강로	동형어휘의 처리요령
77	1984.11.16	홍순석	한자어 주석상의 관련어 처리에 대하여
78	1984.12.11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리에 대한 소고(1)
79	1985.01.30	이호영	거칠부전 검토
80	1985.02.19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리에 대한 소고(2)
81	1985.02.22	김원모	원세개의 한글본 시사지무십관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82	1985.04.12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리에 대한 소고(3)
83	1985.04.18	김윤우	한국 고지명에 대한 소고
84	1985.05.17	김동길	사전주석에 대한 제문제
85	1985.06.28	유덕상	원시불교에 있어서 無我의 개념
86	1986.05.09	서지원	한한대사전의 컴퓨터편찬조판에 대하여
87	1986.06.17	김동길	한한대사전편찬지침(시안)에 관한 연구(1)
88	1986.07.08	김동길	한한대사전편찬지침(시안)에 관한 연구(2)
89	1986.09.09	서지원	한한대사전의 편찬과 컴퓨터인쇄
90	1987.03.19	서지원	사전편찬과 컴퓨터인쇄(2)
91	1987.06.10	유덕상	불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연기론적 사고
92	1987.09.16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활동
93	1987.11.10	김영수	려말선초의 문학론 소고
94	1987.12.04	정용욱	3·1운동의 지역별 전개양태 및 그 특징
95	1987.12.21	정석용	김종직의 한시 고찰
96	1988.05.20	서지원	사전출판에 있어 컴퓨터이용의 국내외 동향
97	1988.07.08	강영순	유몽연의 문학연구
98	1988.08.12	정용욱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좌파의 범위와 그 논리
99	1988.08.19	정석용	『遊頭流錄』소고
100	1988.09.23	김영수	조선전기시가논의 소고
101	1989.02.24	유덕상	민중불교의 개념고찰
102	1989.04.18	김윤우	신라말의 구사성과 진례성고
103	1989.06.13	김세봉	조선전기 사화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104	1989.08.30	정용욱	북한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105	1989.09.27	정석용	김종직의 기행문학고: 유두류록을 중심으로
106	1989.11.22	유덕상	미륵사상의 현대적 고찰
107	1990.03.26	이강로	사전적 처리에서 본 중국음과 한국음
108	1990.04.30	변종현	고죽 최경창 한시의 당풍적 성격
109	1990.05.28	김상현	삼국유사의 역사방법론적 고찰
110	1990.06.18	이호영	신라·고구려의 재정관서
111	1990.09.28	강영순	금계필담의 유형분류와 구전소설의 관련양상
112	1999.03.29	김병기	대동칠십일갑사에 대하여
		이은상	중국문학사 서술을 위한 일반원칙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13	1999.06.28	김현수	구미인의 생사관에 대한 일고찰
		김호연	부민관 연구를 위한 시론
114	1999.09.28	윤승준	한 · 중 우언의 비교연구(1)
		신재의	조선에 치과의학의 도입
115	1999.12.28	홍성남	이우준의 〈몽유연행록〉에 대하여
116	2000.06.12	김태석	모리스 꾸랑의 생애와 저술
117	2001.06.20	오인영	서양의 여행기와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오리엔탈리즘
118	2002.07.02	박원길	몽골의 행정체제 변천사
		이은상	순욱의 목천자전 인식
119	2003.01.27	김기선	대마도 지명에 나타나는 몽골 지명 요소에 관한 고찰
		김호연	한국 근대 악극에 관한 일고찰
120	2003.10.02	박승범	해적의 나라
121	2004.07.29	신선희	Demosthenes와 아테나이의 대외정책
		이현우	오유란전에 대하여
122	2004.12.09	권동순	天草版平家物語의 시간표현
		박상진	제1차 검인정시대 학교문법서의 품사론
123	2005.05.18	이재령	중국 향촌 교육공동체의 사상적 모색
		송재용	구한말 순국열사 주영공사서리 이한응
124	2005.07.11	장두식	강경애 소설 연구
		박상진	영화광고 언어 연구
125	2005.11.28	권동순	중세말 일본어 시간표현
		이현우	화랑세기 소재 향가 1수의 대비적 고찰
126	2005.11.28	송재용	송덕봉론
		장두식	연애소설의 공식성 연구
127 (125)	2006.12.15	윤성주	미국에서의 최근 동아시아 연구동향
		조춘리	신좌파와 자유파의 세기논쟁
126	2007.06.22	김난주	일본 중세극의 그로테스크성 고찰
		이현우	민요에 나타난 採詩觀 연구
127	2007.12.06	김문식	연민문고 필사본의 가치
		Eugene Y. Park	한국 근현대 족보담론과 전문직 중인층의 동향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28	2008.06.20	Li Feng	Managing the World through Writing
		김정렬	빈공수 명문과 그 역사적 의의
129	2008.12.09	표광종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과 전망
		김재훈	디지털 문명과 융합의 경쟁력
130	2009.02.16	장두식	홍사용의「저승길」연구
		유용태	한국 근대 문학정전의 미적 범주 연구
131	2009.06.23	E.Shaughnessy	중국 고대 점복과 시의 상관성 (Arousing Images: The Poetry of Divination and the Divination of Poetry)
132	2009.09.21	魏存成	중국 소재 고구려・발해 유적의 이해
133	2010.05.28	부유섭	燕行錄을 통해 본 康雍年間 中國書籍 유입에 대하여
134	2010.06.28	김재관	이광수의 근대교육의식 연구－문명・문화담론을 중심으로
		서종원	「願堂重修記」를 통해 본 위도띠뱃굿의 위상과 역할
135	2010.08.26	함영대	조선 후기 韓日양국의 학술교류와『童子問』
		박영미	韓日지식인의 日光에 대한 시선과 그 양면성
		엄태웅	영웅소설 속의 중국, 그리고 조선
		안창수	韓日 초기 소설사 서술양상 고찰
		서한석	〈泛槎圖〉와 김석준－그림에 깃든 문화교류의 단면
136	2010.10.23	권동순	17세기 일본인의 조선인식－杉村妥女의〈上京之時每日記〉에 대하여
		맹영일	조선 중기 화론의 전개양상－간이 최립의 미학사상을 중심으로
		이종필	'행복한 결말'을 통해 본 17세기 소설사의 변환 양상
137	2010.11.18	강인규	중국최초의 미국유학생 용굉의 일생
138	2010.11.26	김정숙	조선시대 문헌 속 琉球 체험과 문학적 형상화
		손유경	17세기 초 明使 接伴 양상에 관한 고찰
		배종석	梅泉 黃玹의「李忠武公龜船歌」고찰
139	2010.12.15	김홍겸	『老殘遊記』와 중국소설의 Storytelling
		이호석	宗密의『原人論』의 시각에서 본 僧肇의「涅槃無名論」
140	2011.01.27	김영옥	조선조 한자 자형의 전승 양상
		부유섭	연행록을 통해 본 건륭 연간 중국 서적 유입에 대한 연구
141	2011.05.31	김홍겸	韓中日의 여우 이미지 비교연구
		김난주	女狂言考－중세 사회와 여성
		이호석	明鏡과 破鏡을 통한 頓漸論爭의 재해석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42	2011.07.20	함영대	여유량의 사서강의 수용과 조선후기 학술의 성격
		박영미	『韓客唱酬錄』의 해제
		김호연	한국 대중공연예술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시고 - 일제강점기 소녀가극을 중심으로 -
143	2011.08.17	이종필	내재적 발전론을 통해 본 고소설 연구의 흐름과 향방
		엄태웅	조선후기 설인귀 수용의 맥락
144	2011.09.27	김재관	李光洙 初期 論說에 나타난 文明化論 硏究 - 敎育論을 중심으로 -
		김홍겸	『西遊記』 속 손오공의 사회화 과정
		이호석	『中論』「觀涅槃品第二十五」에서 涅槃의 의미 - 靑目(Pingala)과 月稱(Candrakīrti)의 註釋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
145	2011.10.07	劉釗	찬란한 유년기 - 고고학 발견과 중국 고대문명의 새로운 평가 -
146	2011.12.20	서한석	김석준의 범사도첩 연구
		김정숙	조선인이 본 일본의 기생과 性文化
		권동순	일본인의 조선기행문 2
		이영수	『장화홍련전』 설화의 구비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김홍겸	중국창세신화 연구 - 혼돈과 개벽을 중심으로
		이호석	僧肇의 緣起觀 - 『肇論』을 중심으로 -
147	2012.01.16	김철웅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 대한 재검토
		이권희	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148	2012.05.18	이호석	『肇論』에 나타난 佛의 속성 - 佛敎는 汎神論인가 理神論인가? -
		조동영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소장 고문서 정리의 학술적 가치 - 敎旨를 중심으로 -
		이권희	메이지 唱歌 교육에 관한 小考
		김홍겸	한중 고대신화 속 닭과 알의 이미지
149	2012.06.18	김재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五道踏破旅行」의 상관성 연구
		서종원	일제강점기 완구에 대한 고찰
		유용태	한국 근대문학 정전의 구조 연구
150	2012.10.04	Lothar von Falkenhausen	공자시대 중국 청동기 - 西周 後期 儀禮 改革
151	2014.02.05	김태국	중국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문화정체성
152	2016.03.28	양지선	'국내외 독립군가 수집 및 음악극 제작'을 위한 제안
		오대양 · 이호석	'근 · 현대 한반도 정착 이주민 관련자료 수집과 DB 구축'을 위한 제안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53	2016.05.30	이건식	『한국한자어사전』 未收錄 『조선왕조실록』 한국한자어에 대하여
		박찬규	『한한대사전』 한자 字音의 갈래와 유형분류
154	2016.07.25	윤채근	동양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惡의 기원과 윤리적 주체 -『剪燈新話』와 『金鰲新話』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장유승	민족 고전의 허상과 실상 -『동국세시기』의 편찬 배경과 의의 -
155	2016.09.30	정성권	태조 왕건 친제 운주 흥법사지 진공대사 탑비의 조성 배경
		이재령	일제식민지시기 재중 한인유학생의 근대학문 수용 - 북경을 중심으로 -
156	2016.12.15	심재훈	동아시아의 요람, 고대 중국문명: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 환상 깨기
157	2017.02.10	손성욱	淸朝의 盛衰와 朝鮮 使臣의 儀禮활동
		이호석	東洋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提言
158	2017.05.10	양지선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항일음악 DB 구축 방안
		이호석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慶州지역 고문서 자료 DB 구축 방안
159	2017.07.06	김철웅	인문학 융성을 위한 고문서의 활용방안 - 단국대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
		이충구	조선시대 고문서 자료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60	2017.11.27	임재완	조선후기 고문서 연구 - 민간 간찰을 중심으로 -
		김명환	구한말 고문서 연구 - 초서 편지글을 중심으로 -
161	2017.12.26	권기갑	고문서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방안
		이충구	구한말 고문서를 통한 민간생활사 재구
162	2018.01.31	김수현	항일음악 연구 성과 검토
		양지선	한유한의 생애와 항일음악
163	2018.04.06	박성진	여러면석기의 정의, 분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이호석	동양학연구원 인문학 발전과 연구과제 수주 향상을 위한 중 · 장기 계획
164	2018.07.18	반혜성	창가의 음악성
		염원희	항일가사의 존재양상과 의미 - 의병가사와 만주망명가사를 중심으로 -
165	2018.09.27	오영삼	조선회화의 이상경 - 몽유도원도
		강소연	무명과 반야의 도상학: 조선시대 〈감로탱〉을 중심으로
166	2018.12.10	김철웅	이색의 '현화낙백우'설에 대한 재검토
		차광호	삼국유사 탑상편 '오대산문수사석탑기'조의 검토
167	2019.01.24	한정한	한국어=베트남어 웹사전 개발 제안
168	2019.03.04	오대양	중국 산동지역 신석기시대문화의 변동과 연속성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검토 -
		박선미	산동지역의 선사문화와 주민

회차	날짜	발표자	주제
168	2019.03.04	오대양	중국 산동지역 신석기시대문화의 변동과 연속성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검토 –
		박선미	산동지역의 선사문화와 주민
169	2019.09.11	김효정	태호(太湖) 이원진(李元鎭)(1594~1675)의 시세계 고찰
		이황진	쌍백당(雙柏堂) 이세화(李世華)(1630~1701)의 삶과 시세계
170	2019.12.03	조숙자	해외 동양학 연구동향과 전망 – 미국 내 중국학과 한국학을 중심으로
171	2020.01.30	류정민	한자 문화권과 양층언어(diglossia)의 문제
		허철	한자 어휘 교육의 방법 모색과 실행 방안
		정승혜	物名類 연구 현황과 DB구축
172	2020.02.05	김명섭	한국 광복군과 조선 의용군의 항일음악 비교
		김보희	재소고려인의 음악활동 – 항일음악의 보존과 전승 –

현재 172회까지 진행된 연구발표회는 2016년부터 연 4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신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연구 과정을 점검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원 상호간의 학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3) 해외 교류 사업

동양학연구원은 해외 유수의 학술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연구원의 해외 파견 및 해외학자 초빙,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공동 학술회의 개최 및 협력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원 유덕상(불교)은 뉴욕주립대 한국학과에 1993년 6월부터 1994년 8월 16일까지 약 1년간 파견되었고, 정용욱(한국사)은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에 1991년 7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약 반 년간 파견되어 연구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주 지역 동양학 관련 연구소와의 학술 교류를 증진하였다.

중점연구소 선정 이후 동양학연구소는 해외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1999년 7월 16일에 연구진이 해외지역을 방문하여 세필드대학교 동아시아대학 한국학연구소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1999년 8월 7일에는 네델란드 라이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동년 9월 2일에는 프랑스 사회과학연구원 한국학연구소, 동년 11월 2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롬대학 한국학연구소 등과 결연을 맺었다.

2000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유럽의 스웨덴·네델란드·프랑스·영국 등의 지역에,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자료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어 동년 3월 24일에는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왈라벤 교수가 동양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한편 제임스 그레이슨(영국 셰필드대학교 동아시아대학 학장 겸 한국학연구소장), 길레모(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한국학연구소장), 세르게이 쿠르바노프(러시아 페쩨르부르그대학교 동양학부 교수) 등을 2001년 특별연구원으로 임용하여, 유럽에 소재한 동양학 관련 학술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교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2015년 이후 다시 국제교류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은 한국의 해방 70주년과 중국의 승전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중국과 공동행사를 추진하였다. 2015년 6월 吉林의 北華大學 東亞文獻硏究所와 연구협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원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하는 등 상호협력 하에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기로 하였다. 8월 30일에는 上海 復旦大學의 韓國硏究中心과 교류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한국의 해방과 중국의 승전 70주년기념' 한중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한 · 중이 공동으로 항전한 역사연구를 공동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瀋陽의 9 · 18 歷史博物館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양 연구기관의 학문적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데 합의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천진 남개대학 역사문화학원을, 2018년 1월에 섬서 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등을 방문하여 일제강점기 한중의 공동항전에 대한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개최하였고, 향후 공동연구사업 및 교직원, 학생간 교류협약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 4월 상해 복단대학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상하이'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근래에 국외교류사업으로 진행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다.

〈표 4〉 국외교류사업 학술회의

	개최일	주제	장 소
1	2015.08.29	한국의 해방과 중국의 승전 70주년기념 한 · 중국제학술회의: 일제의 침략과 한 · 중의 공동항전	復旦大學
2	2016.09.02	9.18사변 85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9.18사변(만주사변)과 동북지역 한중공동항일투쟁	瀋陽 9 · 18歷史博物館
3	2017.03.19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황 연구	天津 南開大學
4	2018.01.29	서안과 한국의 독립운동	西安 陝西師範大
5	2019.05.2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한중공동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상하이	復旦大學

4) 산하 연구소 심포지엄

동양학연구소는 2011년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동양학연구원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산하에 연구소를 두게 되었다. 2013년에 역사문화연구소를, 2015년에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와 한중관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소는 2016년 5월에 대학 부설연구소로 독립하고 2017년 9월에 동아시아교류연구소를 산하 연구소로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의 산하 연구소는 역사

문화연구소,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동아시아교류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 산하 연구소에서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산하 연구소 심포지엄 현황

	개최일	주제	발표자	주최
1회	2017.02.07	근현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4명	한중관계연구소
2회	2018.02.06	미술사로 통해 본 한중관계	3명	동아시아교류연구소
3회	2019.02.12	수레바퀴 아래서: 윤회와 명부	4명	동아시아교류연구소
4회	2019.03.29	한국과 헝가리 독립운동의 기억과 교차	4명	역사문화연구소
5회	2020.01.14	동아시아 논어의 연구사 개관과 전망 및 현대적 변용	4명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5) 외부 연구 과제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외부 과제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연구실 업무의 하나이다.

1999년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동양학연구소도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동양학연구소는 두 차례에 걸쳐 중점연구소 과제에 선정되었다. 1999년 한국연구재단에서 '개화기 구미인들과의 민간문화교류 자료초 및 개화기 일본인들과의 민간문화교류 자료초' 과제를 수주하여 2005년까지 6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에 걸쳐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전통의 지속과 변용'이란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과제를 수행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동아시아 관계사 자료색인 및 분류목록"이라는 주제가 인문학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01년 6월에는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라는 주제가 역시 인문학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2002년 11월에는 기초학문 육성지원 사업에 "교역과 약탈"이라는 주제가 선정되었다.

2009년부터 토대기초연구사업에 연구과제 '동아시아 역대문화교류 인물집성'이 선정되어 3년간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는 '해외 동아시아학 연구성과(문헌) DB구축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주하여 3년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연구실은 토대연구 두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2017년에 두 개의 토대사업이 선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항일음악의 보급과 연구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해제 및 DB구축'의 토대과제가 선정되어 2022년 8월 말까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원 산하의 한중관계연구소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부터 '書簡文에 기초한 조선후기부터 구한말까지 민간인 생활사 자료 DB 구축-경주지역 李中久家 五代 書簡文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대과제에 선정되었다. 이 과제 역시 2022년 8월 말까지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4. 간행물

연구실에서는 학술지인 『동양학』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희귀 자료를 자료집으로, 각종 연구 성과를 모아 총서로 간행하고 있다. 자료집은 "동양학총서"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고, 이외에 "동양학연구총서", "동양학문화총서", "동아시아문명교류사 시리즈" 등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외부 연구 과제의 성과물을 모아 총서를 간행하였다.

1) 학술지 『東洋學』

『동양학』은 동양학연구소의 정기 학술지로서 연구소가 개원하고 1년이 지난 1971년 10월 25일에 제1집을 발간하였다. 이후 『동양학』(4·6배판)을 매년 1회 발간하였다. 한국 학계에 동양학 전반을 다루는 인문학 학술지가 드물던 시기에 『동양학』은 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양학』은 학술지 외에 동양학연구소의 기관지 역할도 겸하고 있다. 1975년 제5집(1975년 6월)을 당시 동양학연구소장이었던 一石 李熙昇 선생 팔순 기념집으로 발간하였고, 1990년 당시 동양학연구소장이었던 羅孫 金東旭 박사가 별세하자 제20집(1990년 10월)을 그를 위한 기념집으로 간행하였다.

『동양학』은 첫 간행 이래 연 1회 발간되다가 2003년부터는 연 2회로 발간하였다. 2003년 33집(2003년 2월)부터 54집(2013년 8월)까지 연 2회 발간하다가 2014년부터는 연 3회로 발간 횟수를 늘리게 되었다. 제55집(2014년 2월)부터 3회 발간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연 4회로 증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양학』은 현재 79집(2020년 4월)까지 연 4회를 발간하고 있다. 『東洋學』에는 1971년 제1집부터 2020년 4월 제79집까지 간행하는 동안 총 84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동양학』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의 역사와 문화연구에 종사하는 유수한 학자들의 논문을 게재하여 그동안 학계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1년 12월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원고 접수방식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기준에 따라 논문 청탁 형식에서 일반논문을 투고 받아 심사를 거쳐 수록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동양학』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東洋學』 편집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다. 편집위원장에 김상홍 교수, 부위원장에 강재철 교수, 편집위원에 한시준, 편무진, 이성규 교수를 위촉하였다. 2003년에는 『東洋學』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급하기 위해 전임 편집간사를 두게 되었다. 이때 중점연구소 과제팀의 연구원이었던 김호연이 임명되었다.

『동양학』은 2004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KCI)에 선정되었다. 2005년에 편집위원의 교체가이루어져 편집위원장에 강재철 교수, 부위원장에 편무진 교수, 편집위원에 김상홍, 최희재, 이성규 교수가 위촉되었고, 편집간사는 박상진이 연임되었다. 2006년 7월에는 김철웅이 연구실 연구전임강사로 부임하여 편집간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황현국 교수가 편집위원에 추가로 위촉되었다. 2009년 2월에는 김철웅의 후임

으로 이호석이 편집간사에 임명되었다.

2009년 12월,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동양학』은 등재학술지를 유지하였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강재철 편집위원장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김영수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부위원장에 편무진 교수, 편집위원에 김문식 교수, 안희진 교수가 위촉되었다. 교내 편집위원 외에 강릉원주대 김무림 교수, 군산대 류보선 교수, 한국교통대 백종오 교수, 서강대 정요일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교외 소속의 편집위원이 위촉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등재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동양학』 관련 규정을 더 세밀하게 정비하였다. 2010년 5월에 투고간행규정, 편집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동양학』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구실장과 편찬실장, 그리고 이후에는 번역실장이 당연직 편집위원이 되었다. 규정 전면 개정 등의 결과 201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에서 훨씬 향상된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13년 3월에는 김영수 편집위원장 이하 편집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 2년의 새 편집위원회 진용이 꾸려졌다. 편집위원장에 한시준 교수, 교내 편집위원으로 김문식, 윤재환, 편무진, 황현국 교수를 위촉하고, 강릉원주대 김무림 교수, 군산대 류보선 교수, 한국교통대 백종오 교수는 연임되었으며, 대구가톨릭대 박상영 교수가 새로 위촉되었다. 2013년 7월, 김문식 연구실장이 사직하고, 8월 전덕재 교수가 연구실장으로 부임하여 편집위원직을 승계하였다. 아울러 9월 이건식 교수가 편찬실장에 부임함으로써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추가 위촉되어 『동양학』 편집위원 수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4년 7월 1일에 편집위원장이던 한시준 교수가 서영수 원장의 후임으로 동양학연구원장에 부임하면서 편집위원장이 공석이 되었다. 후임 편집위원장에는 정재철 교수가 위촉되었다.

2015년 1월 『동양학』 관련 규정이 부분 개정되고, 『동양학』 발간 횟수가 연4회(1월, 4월, 7월, 10월)로 늘어났다. 59집(2015년 4월)부터 연4회 간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3월에는 2013년 위촉되어 한차례 연임되었던 『동양학』 편집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정재철 편집위원장의 후임에 김영제 교수, 김무림, 편무진, 황현국 편집위원의 후임에 본교 배은한 교수, 전남대 김용의 교수, 한림대 이찬 교수가 위촉되었고, 본교 전덕재 교수가 추가로 위촉되었다. 류보선, 박상영, 백종오, 윤채근, 이건식, 이재령 편집위원은 연임되었다. 이로써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수는 1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9년 3월에는 김영제 편집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사임하고 후임으로 이건식 편집위원이 위촉되었다. 2020년 1월에 『동양학』 편집위원회가 투고되는 논문들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편집위원 증원을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옥성 교수와 윤재환 교수를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1971년 10월 25일에 『동양학』 제1집을 간행하였을 때는 편집간사를 따로 두지 않고 연구소 간사였던 황패강 교수가 『동양학』의 편집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패강이 제1~3집, 남풍현이 제3~4집, 이장우가 제5집, 송병기와 장석권이 제6~9집, 박천규와 장동희가 제10~14집, 강재철과 장동희가 제15~17집, 강재철과 권영대가 제18집, 김영수와 권영대가 제19집~26집의 편집을 맡았다. 이들은 전담 편집간사가 아니라 연구소 간사로서 편집간사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표 6〉『동양학』 편집위원회 현황

	임기	편집 위원	비고
1기	2001.12~ 2005.03	김상홍(한문교육과 · 편집위원장), 강재철(국어국문학과 · 부위원장), 한시준(역사학과), 편무진(일본어과), 이성규(몽골학과)	
2기	2005.04~ 2010.03	강재철(국어국문학과 · 편집위원장), 편무진(일본어과 · 부위원장), 김상홍(한문교육과), 최희재(사학과), 이성규(몽골학과)	
3기	2010.03~ 2013.03	김영수(국어국문학과 · 편집위원장), 편무진(일본어과 · 부위원장), 김문식(사학과), 안희진(중국어과), 김무림(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백종오(한국교통대 교양학부), 정요일(서강대 국어국문학과) → 변종현(경남대 국어국문학과), 정재철(한문교육과) → 황현국(중어중문학과)	변종현(2011.8~) 정재철(2011.1~2013.1) 황현국(2013.1~)
4기 & 5기	2013.03~ 2017.03	한시준(역사학과 · 편집위원장) → 정재철(한문교육과), 김문식(사학과) → 전덕재(사학과) → 이재령(문과대학), 윤재환(국어국문학과) → 윤채근 (한문교육과), 이건식(국어국문학과), 편무진(일본어과), 황현국(중어중문 학과), 김무림(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상영(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백종오(한국교통대 교양학부)	정재철(2014.7~) 전덕재(2013.8~) 이재령(2015.7~) 윤채근(2013.8~) 이건식(2013.9~)
6기	017.03~ 2019.03	김영제(역사학과 · 편집위원장), 배은한(중어중문학과), 윤채근(한문교육과) → 김우정(한문교육과), 이건식(국어국문학과), 이재령(문과대학), 전덕재(사학과), 김용의(전남대 일어일문학과),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상영(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백종오(한국교통대 교양학부), 이찬(한림대 인문학부)	김우정(2017.7~)
7기	2019.04~ 2021.03	이건식(국어국문학과 · 편집위원장), 김옥성(국어국문학과), 김우정(한문교육과), 김철웅(자유교양대학) → 박성순(자유교양대학), 배은한(중국어과), 심재훈(사학과), 윤재환(국어국문학과), 전덕재(사학과), 김용의(전남대 일어일문학과),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상영(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서정석(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이찬(한림대 인문학부)	김옥성(2020.1~) 윤재환(2020.1~) 박성순(2020.7~)

1997년 이후 유급연구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실의 기능이 축소되어 『동양학』은 1997년 제27집(1997년 10월)부터 2002년 제32집(2002년 6월)까지 편집간사를 따로 두지 않고 간행되었다. 그러다가 33집부터 전담 편집간사를 두게 되었다. 33집(2003년 2월)~36집(2004년 8월)은 연구원 김호연이, 36집부터 39집(2006년 2월)은 연구원 박상진이, 40집(2006년 8월)부터 45집(2009년 2월)까지 연구전임강사 김철웅이, 45집부터 77집(2019년 10월)까지 이호석 연구교수가 편집간사를 맡았다. 그리고 77집부터 연구전담조교수 오대양이 편집간사를 맡게 되었으며 현재 80집(2020년 7월)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2) 동양학총서

동양학연구원은 1971년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희귀한 자료를 발굴 정리하고, 여기에 해제와 색

인을 붙여 동양학총서를 간행해 왔다. 동양학 관련 자료집으로 2020년 6월 현재까지 46종 88책이 간행되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동양학총서

번호	서명	출판사	책	간행일	舊연번
1	訓蒙字會	단국대 출판부	1	1971.08.01	
2	新增類合	단국대 출판부	1	1972.11.15	
3	千字文	단국대 출판부	1	1975.08.30	
4	朴殷植全書	단국대 출판부	3	1975.08.15	
5	呂氏鄕約諺解	단국대 출판부	1	1976.09.21	
6	二倫行實圖	단국대 출판부	1	1978.09.25	
7	經國大典註解	단국대 출판부	1	1979.11.15	
8	張志淵全書	단국대 출판부	10	1979.12.20	
9	救急簡易方諺解	단국대 출판부	1	1982.02.28	
10	國樂文獻資料集成	단국대 출판부	1	1990.08.20	
11	李世輔時調集	단국대 출판부	1	1985.07.18	
12	韓國世界文學 文獻書誌目錄總覽	단국대 출판부	1	1992.11.30	
13	二十五史抄	단국대 출판부	3	1977.10.15	
14	朝鮮王朝實錄抄	단국대 출판부	1	1986.04.30	
15	開化期 日本民間人의 調査報告資料集	단국대 출판부	4	2001.11.30 2002.08.31	
16	개화기 한국관련 구미 신문자료집	단국대 출판부	1	2001.11.30	
17	東아시아關係史 資料索引 및 分類目錄	국학자료원	1	2003.05.20	
18	開化期 在韓日本人 雜誌資料集 : 조선지실업	국학자료원	4	2003.08.31	15-1
19	개화기 한국 관련 구미 잡지 자료집 : morning calm	국학자료원	8	2003.08.20	15-2
20	개화기 한국 관련 구미 소책자 및 논문 자료집	국학자료원	1	2003.08.20	15-3
21	開化期 在韓日本人 雜誌資料集 : 朝鮮	동양학연구소	9	2004.08.31	15-4
22	開化期 在韓日本人 雜誌資料集 : 한반도	제이앤씨	2	2005.12.20	15-5
23	開化期 在韓日本人 雜誌資料集 : 한국교통회지	제이앤씨	1	2005.12.20	15-6
24	讀賣新聞 한국관련 기사색인	제이앤씨	1	2005.12.20	15-7
25	개화기 한국관련 구미인들의 기행자료집	제이앤씨	2	2006.05.30	16-1
26	개화기 한국관련 구미 무역보고서 자료집	제이앤씨	1	2006.05.30	16-2

번호	서명	출판사	책	간행일	舊연번
27	구비문학관련 자료집(잡지편)	민속원	3	2007.10.30	17-1
28	민간신앙관련 자료집(잡지편)	민속원	2	2007.10.30	17-2
29	일상생활과 근대 영상매체	민속원	2	2007.10.30	17-3
30	일상생활과 근대 음성매체	민속원	1	2007.10.30	17-4
31	구비문학 관련 자료집(신문편)	민속원	1	2009.04.30	17-5
32	민간신앙 관련 자료집(신문편)	민속원	1	2009.04.30	17-6
33	일상생활과 근대 인쇄매체	민속원	3	2009.04.30	17-7
34	한국 문화 자료 총서(복식 문화 관련 자료집)	민속원	1	2010.08.30	
35	한국 문화 자료 총서(음식 문화 관련 자료집)	민속원	1	2010.08.30	
36	한국 문화 자료 총서(주거 문화 관련 자료집)	민속원	1	2010.08.30	
37	한국 문화 자료 총서(일상생활과 근대 결혼제도, 잡지편)	민속원	1	2010.08.30	
38	한국 문화 자료 총서(일상생활과 근대 결혼제도, 신문편)	민속원	1	2010.09.30	
39	한국 문화 자료 총서(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	민속원	1	2011.08.20	
40	한국 문화 자료 총서(민속놀이 관련 자료집, 잡지편)	민속원	1	2011.08.20	
41	한국 문화 자료 총서(민속놀이 관련 자료집, 신문편)	민속원	1	2011.08.20	
42	한국문화자료총서(근대 출판문화 자료 해제)	민속원	1	2012.04.30	
43	한국문화자료총서(일생의례관련 자료집, 신문 · 잡지편)	채륜	1	2012.07.30	
44	한국문화자료총서(일생의례관련 자료집, 일본어 잡지편)	채륜	1	2012.07.30	
45	한국문화자료총서 (한일아동성장관련 이미지 자료집, 의례적 특성을 중심으로)	채륜	1	2013.03.30	
46	한국문화자료총서(세시풍속 관련 자료집: 신문편)	채륜	1	2014.08.30	

동양학총서는 성격별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학 내지 동양학의 고전 자료들을 발굴하여 영인본으로 발간한 것들이다. 1971년 8월 1일『訓蒙字會』를 발간한 이래 '동양학총서' 목록 1번에서 14번(『朝鮮王朝實錄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과제인 중점연구소과제팀 간행 자료집이다. '개화기 대외민간문화교류 자료초'를 연구과제로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수행한 중점연구소 과제팀에서 자료집을 간행하였다. 개화기 구미인들과의 민간문화교류 자료와 개화기 일본인들과의 민간문화교류 자료를 추려 해제와 함께 영인본 자료집을 간행한 것이다. 동양학총서 목록 15번(『開化期 日本民間人의 調査報告資料集』)에서 26번(『개화기 한국관련 구미 무역보고서 자료집』)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은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전통의 지속과 변용'을 연구주제로 하여 2005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행한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과제팀에서 간행한 자료집들이 있다. 개화기에서 일

제강점기까지의 한국문화전통과 관련된 자료들을 신문, 잡지 등에서 발췌하여 영인본 자료집을 간행한 것이다. 동양학총서 목록 27번(『구비문학관련 자료집(잡지편)』)에서 46번(『세시풍속 관련 자료집: 신문편)』)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동양학총서의 연번과 관련하여 설명이 좀 필요하다. 중점연구소 과제팀에서 자료집을 간행할 당시 과제 단계별로 하나의 연번을 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15-1'과 같은 번호(舊연번)를 달고 도서가 출간되었다. 2010년에 김문식 연구실장의 주도로 동양학연구소 간행 도서를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연번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속번호만을 다는 체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34번 이후로는 연속번호를 매겨 출간하였다.

현재 동양학총서는 2014년에 46권을 끝으로 간행이 중단되었다. 앞으로 동양에 관한 자료집으로서 동양학총서의 간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3) 동양학연구총서

이 총서는 교내 동양학 관련 연구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권부터 제5권까지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서들이 출간되었다. 2008년 제6권부터는 성격을 달리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의 글을 모아 간행하게 되어 제9권까지 출간하였다. 2019년 제10권부터는 다시 처음의 간행 목적으로 돌아가 개인의 연구결과물을 총서로 간행하고 있다.

〈표 8〉 동양학연구총서

번호	서명	책	저자	출판사	간행일
1	조선시대 군사관계 연구	1	차문섭	단국대 출판부	1997.01.10
2	한국고전문학의 이론과 실제	1	황패강	단국대 출판부	1997.09.20
3	울릉도와 독도	1	송병기	단국대 출판부	1999.02.25
4	몽학삼서의 몽고어 연구	1	이성규	단국대 출판부	2002.08.15
5	개화기 한미 교섭 관계사	1	김원모	단국대 출판부	2003.06.15
6	근현대 전환기 중화의식의 지속과 변용	1	박명희 외	단국대 출판부	2008.08.30
7	동아시아의 교통로와 대외관계	1	전덕재 외	단국대 출판부	2014.02.28
8	근대 일본의 전쟁과 전쟁영웅	1	정 형 외	단국대 출판부	2014.02.28
9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성격 -한·중 공동항전과 연합국의 역할-	1	한시준 외	단국대 출판부	2017.02.25
10	일제침략에 대한 한·중의 공동항전	1	한시준	단국대 출판부	2019.02.28
11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 연구	1	오대양	단국대 출판부	2020.02.29

4) 동아시아문명교류사 시리즈

2010년 제40회부터 2014년 제44회까지 '동아시아의 문명교류'를 대주제로 기획되었던 다섯 차례의 동양학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네 권의 시리즈로 간행한 것이다. 네 책은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학연문화사, 2011),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학연문화사, 2012), 『동아시아의 철기문화와 고조선』(학연문화사, 2013),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학연문화사, 2015) 등이다.

5) 동양학문화총서

2014년 동양학연구원장이던 서영수 교수의 주도로 동양학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특정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단행본으로 기획되었다. 2015년 3월 7일 러시아의 보꼬벤코 교수와 프랑스의 레그란드 박사의 공동저작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정석배 교수가 번역한 『동부 유라시아 미누신스크 분지의 고대문화들』과 영남대학교 이청규 교수의 『다뉴경과 고조선』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후속 간행물은 없는 상태이다.

6) 외부 과제 총서

(1) 동양학학술총서

이 총서는 중점연구소 과제인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한국문화전통의 지속과 변용' 과제팀이 2005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행한 연구성과를 묶은 논문집으로 모두 7권이 출간되었다. 따라서 과제가 종료된 2014년 이후에는 계속 간행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동양학연구총서가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물 출간으로 결정된 후에 공동연구의 결과를 동양학학술총서로 속간하게 되었다. 이에 동양학학술총서 8책으로 『학서 류이좌와 석호 류도성의 생애와 학문』이 간행되었다.

〈표 9〉 동양학학술총서

번호	서명	출판사	간행일
1	한국문화전통의 자료와 해석	단국대 출판부	2007.03.15
2	한국 구비문학과 민간신앙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 출판부	2007.10.25
3	한국 근대 일상생활과 매체	단국대 출판부	2009.04.30
4	한국 근대 의식주와 일상의 제도	단국대 출판부	2010.05.25
5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 출판부	2011.08.10
6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제도의 도입과 일상생활의 재편	단국대 출판부	2012.01.30
7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일생의례의 문학적 표상과 그 변용	단국대 출판부	2013.09.25
8	학서 류이좌와 석호 류도성의 생애와 학문	단국대 출판부	2019.09.10

(2) 연민문고소장 연암 박지원 필사본 총서

2009년 4월에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를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선정되어 2012년 2월까지 수행한 국학기초자료사업팀이 간행한 결과물이다.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해제집(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사업단,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문예원, 2012.8.20.)이 있다.

〈표 10〉 연민문고 연암 박지원 필사본 총서

번호	해제자	제목	출판사	간행일
1	김명호	杏溪雜錄(卷一, 卷二, 卷三)	문예원	2012.09.20
2	김명호	杏溪雜錄(卷五, 卷六)	문예원	2012.09.20
3	김명호	杏溪集 · 雜錄(上 · 下)	문예원	2012.09.20
4	김명호	熱河日記(元 · 亨 · 利 · 貞) · 燕行陰晴	문예원	2012.09.20
5	김명호 · 서현경	熱河日記 : 黃圖紀略 · 熱河避暑錄 · 孔雀館集 : 楊梅詩話 · 熱河日記(一 · 二)	문예원	2012.09.20
6	서현경	熱河日記(一 · 二 · 三 · 四)	문예원	2012.09.20
7	서현경	熱河日記(五 · 六 · 七 · 八)	문예원	2012.09.20
8	김명호	丁卯重訂燕巖集 · 燕巖集(十五) · 燕巖集(十三 · 十五 · 十八)	문예원	2012.09.20
9	정 민 · 김윤조	課軒漫筆(乾 · 坤) · 罨畫溪集(乾 · 坤) · 映帶亭集(乾 · 坤)	문예원	2012.09.20
10	김혈조 · 김윤조	流觴曲水亭集(乾 · 坤) · 荷風竹露堂集	문예원	2012.09.20
11	김윤조 · 김명호	百尺梧桐閣集(乾 · 坤) · 叢桂雜錄	문예원	2012.09.20
12	김문식	沔陽雜錄(二 · 三 · 四 · 六 · 七 · 八)	문예원	2012.09.20
13	김윤조	燕巖集(가제) · 燕巖草稿(三 · 四 · 六)	문예원	2012.09.20
14	김윤조	燕巖草稿(八) · 燕巖草稿(補遺 九) · 燕巖散稿(二 · 三 · 四 · 五)	문예원	2012.09.20
15	김명호 · 정길수	熱河日記(孔雀館集 書) · 燕巖集(一 · 二 · 三)	문예원	2012.09.20
16	정길수	燕巖集(五 · 六 · 七 · 八)	문예원	2012.09.20
17	정길수	燕巖集(九 · 十 · 十一 · 十二)	문예원	2012.09.20
18	정길수	燕巖集(十三 · 十四 · 十五 · 十六 · 十七)	문예원	2012.09.20
19	정길수	燕巖集(十八 · 十九 · 二十 · 二十一)	문예원	2012.09.20
20	김윤조 · 김혈조	燕巖集 附錄 · 過程錄(一 · 二 · 三 · 四)	문예원	2012.09.20

⑶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 집성' 과제팀 도서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 집성'을 주제로 2009년 6월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토대기초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과제팀에서는 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모두 10권의 도서를 간행하였다. 인물집성과제팀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인식과 그 전환의 단초』(문예원, 2010.6), 『동아시아 삼국의 상호교류와 소통의 양면성』(문예원, 2011.8), 『동아시아 삼국,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문예원, 2012.3) 등 세 권의 논문집을 출간하였다. 최종 결과물로는 『동아시아 역대 문화교류 인물자료사전』 Ⅰ(문예원, 2011.3)·Ⅱ(上·下: 문예원, 2013.8)·Ⅲ(上·中·下: 문예원, 2013.11)·Ⅳ(문예원, 2014.5) 등을 간행하였다.

Ⅱ. 편찬실의 역사(1976~2020)*

박 찬 규**

ㅣ목 차ㅣ

1. 연혁
2. 편찬인원
3. 사전편찬 사업
4. 편찬역량 제고 활동

1. 연혁

1) 편찬실 설치(1978)

단국대학교의 거교적 인문학 사업인 『한한대사전』 편찬을 담당한 편찬실의 모기관은 동양학연구소(현 동양학연구원)[1]였다. 이 기관은 당시 장충식 총장의 발의로 1970년 9월 28일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초대소장은 이승욱 교수였다.

이 연구소의 하부조직인 편찬실은 장충식 총장이 요청한 '한한사전 편찬'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1977년 6월에 장 총장은 '한한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본의 『대한화사전』과 중국[대만]의 『중문대사전』보다 질·량 면에서 능가할 수 있는 한한사전 편찬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2] 이에 따라 8월 30일에는 '한한대사전편찬 계획안(편찬인원 : 20명, 편찬기간 : 15년, 예산 : 14억 원)'이 작성되어 총장에게 보고되었고, 그 결과 한한대사전 편찬에 대한 제반 지원을 확약받았다. 9월 7일에는 동양학연구소 제32차 평의원회의에서 '한한대사전편찬실'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11월 3일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3] 당시 논의되었던 사전편찬 관련 안건은 다음과 같다.[4]

---

* 이 글은 2018년 정년퇴임한 김세봉 편찬원이 '한한대사전 편찬 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수집하였던 자료들과 작성 중이었던 백서의 기초원고가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로 '한한대사전 편찬 백서'는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았다.

** 전 동양학연구원 편찬실 팀장

1) 동양학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현 동양학연구원은 2011년 9월 1일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명칭도 동양학연구원으로 바뀌었다.

2)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편찬실 약사, 1978, 26쪽.

3)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16쪽. 한편 「동양학연구소 약사」(『동양학』 20, 1990, 509쪽)에는 1977년 9월 27일 동양학연구소 제32차 평의원회의에서 '한한대사전편찬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1. 한한사전(漢韓辭典) 편찬을 위하여 동양학연구소 산하에 한한대사전 편찬기구를 설치하고 그 준비단계로 편찬원 약간 명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인선은 소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
2. 한한대사전 편찬기구 설치를 위한 규정안 및 연구소규약 개정안을 간사가 작성하여 다음 평의원회의(評議員會議)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 해 10월 8일에는 한학자 권오돈 교수를 상임편찬위원, 국어학자 이강로 교수를 편찬실장으로 초빙하여 한한대사전 편찬 준비작업을 착수하는 한편 본 연구소 강재철 연구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좌하게 함으로써 사전편찬 실제 업무에 돌입하였다.[5] 12월 1일에 드디어 동양학연구소 제33차 평의원회의에서 다음 '한한대사전편찬실규정'이 심의 확정되었다.

한한대사전 편찬실 규정[6]

〈동양학연구소 규약 제3조 3항에 의거〉

제1조 본 연구소 내에 한한대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한한대사전 편찬실(이하 편찬실이라 칭한다)과 한한대사전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 편찬실에는 실장 1인, 편찬원 및 편찬원보를 두고 이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1. 실장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편찬원 및 편찬원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사계(斯界)의 권위자로 구성하고 위원 중 약간명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상근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전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한다.

1. 부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편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5조 실장은 실원을 통괄하며 사전편찬의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지휘·감독한다.

제6조 위원회는 전체회의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집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편찬실의 경비는 단국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 편찬실의 경비는 연구소의 경비와 구분 관리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동양학』 8, 휘보, 1978, 242쪽.
5)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편찬실 약사, 1978, 26쪽.
6)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1978, 22~23쪽;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14쪽.

1978년 2월 23일에는 동양학연구소 제34차 평의원회의에서 한한대사전 편찬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 16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편찬요원 5~6명을 공개 채용하는 안건이 결정되었다.[7] 이에 따라 3월 25・26일 한한대사전 편찬 요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조선일보(25일), 한국일보(26일)에 사전편찬요원 모집공고를 냈다.[8] 그리고 4월 9일 73명이 응시하여 국어・국사・한문・면접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6월 5일 김영만・서지원・우찬규・최웅・허호구 등 5명을 편찬원 및 편찬원보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연구소 건물 902호・903호・905호에서 권오돈 상임편찬위원과 이강로 편찬실장을 위시한 7명이 한한대사전 편찬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편찬실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졌다.[9]

2) 조직의 변천(1978~2008)

이렇게 출범한 편찬실은 우선 한한대사전 편찬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한자 및 한국한자어의 채록을 위하여 열람할 문헌목록을 작성하고 채록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5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978년 10월 23일 제1회 한한대사전 편찬자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초작업에 매진하였다.[10]

당시 1978년도 편찬인력의 편성을 보면 상임편찬위원 1명, 실장 1명, 편찬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78년부터 1990년까지 12년 동안 『한국한자어사전』(전 4책)을 편찬 간행하기로 하였고,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동안 『한한대사전』(전 17책)을 편찬 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한대사전 편찬실은 편찬실장 아래 '한국한자어사전부'와 '한한대사전부' 두 팀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11] 다음은 당시 기구편성표이다.[12]

---

7)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편찬실 약사, 1978, 27쪽. 이때 위촉하기로 한 16명의 자문위원은 김동욱(국문학, 연세대)・김석하(국문학, 단국대)・김춘동(한문학, 전고려대)・남광우(국문학, 인하대)・신석호(국사, 학술원)・이병도(국사, 학술원)・이숭녕(국어학, 한양대)・이학수(불교, 동국대)・임창순(한학, 태동고전연구소)・정재각(동양사, 동국대)・조국원(한학, 민족문화추진회)・조규철(한학, 민족문화추진회)・차문섭(국사, 단국대)・최영희(국사, 국사편찬위원회)・홍찬유(한학, 민족문화추진회)・황패강(국문학, 단국대)이었다[『동양학』 8, 휘보, 1978, 243~244쪽]. 그러나 이후 이학수(불교, 동국대)가 빠지고 김동화(불교학, 동국대)・이가원(한문학, 연세대)・이선근(한국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희승(국어학, 단국대)이 추가되어 19명이 위촉되었고, 그 뒤 1980년 8월에는 박노춘(국문학, 경희대)・김종오・이훈종(국문학, 건국대)・신원우(덕성여대)・이관일(국문학, 총신대)・정재도(소년조선주간)・김창무(소년조선주간)・최신호(국문학, 성심여대)・조용일(철학, 단국대)・이경선(중국문학, 한양대) 등 10명이 추가로 위촉되었다[「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5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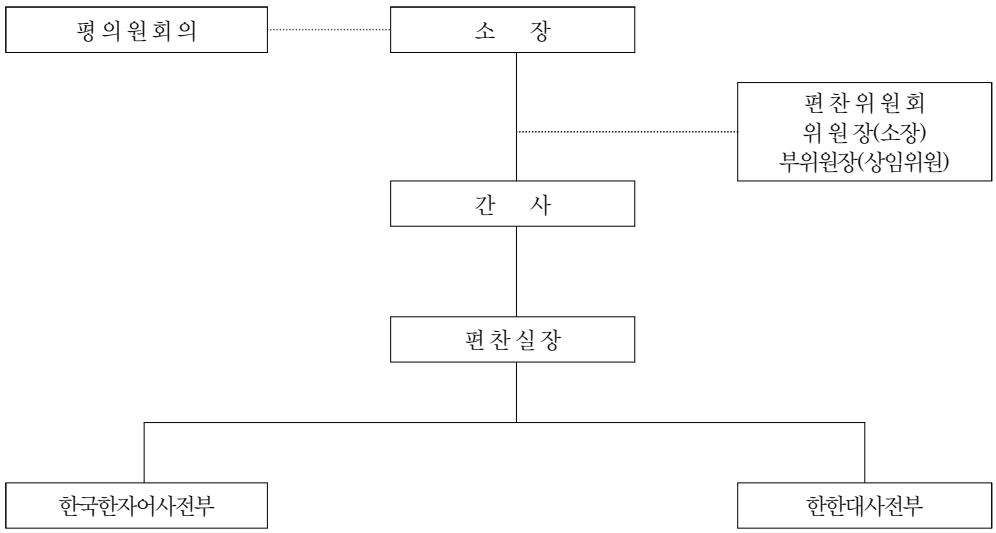
8)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편찬실 약사, 1978, 27쪽.

9) 위의 글, 27쪽 및 『동양학』 8, 휘보, 1978, 244쪽 참조.

10) 『단국대학교 40년사』 1987, 622쪽 참조.

11)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3・13쪽.

12) 위의 글, 13쪽.



그 뒤 1986년 2월 27일 제57차 평의원회의에서 사전편찬실 상임위원 초빙, 편찬원 증원, 편찬실 기구 개편, 편찬실 잡무처리원 고용 등이 논의되었고, 이에 3월 1일 차주환 상임위원이 한한대사전 편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다.[13] 그리고 그해 9월부터 한한대사전부(부장 : 김동길)와 한국한자어사전부(부장 : 노영수)를 두어 운영하였다.[14]

한편 1979년 한한대사전 편찬실에서 세운 기본계획에 의하면 1990년에 한국한자어사전을 완간하고, 1995년에 한한대사전을 완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5] 이에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한국한자어사전 간행을 우선 진행하기 위해 편찬원의 업무를 한국한자어사전 주석과 편집·교정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라 1987년 자료에 의하면 당시 편집 작업에는 3명의 편찬원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편찬원은 모두 주석에 참여하도록 하여 문자, 일반어, 제도어, 전문어, 인명, 지명, 서명, 이두·차자 등 부문별로 담당 집필하였고 주석을 마친 편찬원은 교정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였다.[16] 그리고 편찬조직에 변화도 주어 1987년 7월 1일에는 이강로 편찬실장이 편찬부위원장으로, 김동길 한한대사전 편찬부장이 편찬실장으로, 노영수 한국한자어사전 편찬부장이 편찬부실장으로, 이상돈 편찬원이 한한대사전 부장으로, 허호구 편찬원이 한국한자어사전 부장으로 임명되었다.[17]

---

13) 『동양학』 16, 휘보, 1986, 354~355쪽.
14) 「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510쪽.
15)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4쪽.
16) 「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동양학간보』 6, 1987, 46쪽, 한국한자어사전 편찬계획표 참조.
이때의 부문별 담당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문자(김동길), 일반어(김형호·김신호·김능하·김재열·이두희·서지원·이현식·이상돈·조명근), 專門雜方(김윤우·이은정), 제도어(노영수·허호구·최명화), 인명-마무리(박용규), 서명(홍순석), 이두차자(박성훈), 편집(김동길·박성훈·홍순석).
17) 『동양학』 17, 휘보, 1987, 432쪽.

그러나 편찬원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의 과중, 새로운 중국 자료의 출현[18]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한대사전 편찬계획은 다시 수정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한자어사전의 경우 1993년까지 완간하기로 하고, 한한대사전은 2004년까지 완간하기로 하였다.[19] 1990년에는 인쇄 조판을 위하여 연구소에 컴퓨터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서울시스템의 오퍼레이터들이 상주하여 사전 편찬의 일익을 담당하였다.[20] 그리고 1991년 8월 1일자로 컴퓨터실 오퍼레이터 3인이 추가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21] 1991년 9월 24일에는 정년퇴임한 김동길 편찬실장 후임으로 노영수 부실장이 편찬실장에 임명되었으며, 10월 1일에는 이상돈(한한대사전 담당)·허호구(교정 담당)·서지원(전산 담당)이 각 담당 수석편찬원으로 발령받아 약간의 조직 개편이 있었다.[22]

1996년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되면서 편찬실은 새로운 진용으로 개편되었다. 우선 그동안 편찬실장으로 일해 왔던 노영수가 상임편찬위원으로 보임되고, 11월 8일에는 동양학연구소 행정간사인 권영대가 편찬실장 발령을 받았다. 1997년 2월 4일에는 그때까지 한한대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집필 원고에 대한 교열을 전담해 오던 차주환 박사가 제7대 동양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하였다.[23] 이와 아울러 4월 15일에 편찬원 임용규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임용규정은 다음과 같다.

〈편찬원 임용규정〉

(일부는 1999년 10월 15일 개정됨)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설연구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양학연구소의 편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찬원의 정의) : 편찬원이라 함은 편찬사업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임용절차) : ① 편찬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 직의 담당업무를 명시한 연구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무처장은 채용예정 직의 업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을 의뢰한다.

제4조(임용권자) : 편찬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용기간) : ① 편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연임할 경우 재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99.10.15 개정)

---

18) 『한어대자전』(1990년 완간)과 『한어대사전』(1994년 완간)이 대표적이다.

19) 「사전 조판 인쇄 계획(안)」, 동양학연구소, 1990. 12. 10.

20) 한한대사전 조판 인쇄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 도입문제는 1985년경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단국대학교 40년사』 1987, 624쪽), 1988년 9월부터 서지원 편찬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1990년 10월 18일에는 입력기 3대, 출력기 1대를 서울시스템으로부터 임대하여 우선 동양학자료실에 설치하고 10월 22일부터 컴퓨터 입력작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다음 해에 동양학연구소 건물 102호로 이전 설치하였다(『단국대학교 50년사』 상, 1997, 603쪽).

21) 『동양학』 21, 휘보, 1991, 359쪽.

22) 『동양학』 22, 휘보, 1992, 222쪽.

23) 『단국대학교 50년사』 상, 1997, 598쪽;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54쪽.

②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임용기간에 관계없이 자동 해임된다.

제6조(자격기준) : 편찬원의 자격은 편찬업무에 적합한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친 자로 한다.

제7조(대우) : ① 편찬원은 본교 행정직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대우한다.

② 편찬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해당 호봉에 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차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수 있다.

1. 서기 대우 : 17호봉 이하
2. 부주사 대우 : 18호봉에서 20호봉
3. 주사 대우 : 21호봉에서 25호봉
4. 부참사 대우 : 26호봉에서 29호봉
5. 참사 대우 : 30호봉 이상

제8조(직원인사규정의 준용) :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과 신분 보장 등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7. 4. 15]

이 규정은 연구원 및 편찬원 임용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며 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15]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되자 한한대사전 편찬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여 2010년까지 한국한자어사전을 내용에 포함시켜 전 20책으로 완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편찬실 업무 분장도 달라져 1998년에는 제1권 OK팀, 제2권팀, 교정, 교열, 주석(어휘·문자), 삽도 및 고문자, 편집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아울러 사전의 비대화를 막기 위하여 감량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 같은 흐름에서 1999년 6월에 새 업무계획을 짜고 조직을 소폭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을 교열팀·윤문팀·교정팀으로 편제하고 교정팀장에 허호구, 윤문팀장에 서지원, 교정팀장에 조명근을 임명하였다.

2000년 8월 30일에는 권영대 편찬실장이 정년퇴임하고 10월 9일 김영수 교수가 편찬실장으로 부임하였다.[24] 2001년 8월에는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일석기념관 5층과 1층의 6개 연구실에 분산되어 있던 편찬실을 자료실이었던 301호실로 통합 이전하고,[25] 교열·윤문팀, 교정팀, 편집·주석팀 등 3개 팀제로 재편하였다.[26] 한한대사전 4권의 교정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수석팀장 및 3명의 편찬

24) 『동양학』 31, 휘보, 2001, 274~275쪽.
25) 『동양학간보』 12, 휘보, 2001, 78쪽.
26) 이때의 3팀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이 한국한자어사전 수정 보완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003년 7월 1일에는 교열팀장과 교정팀장에 김재열과 정석용이 임명되었다. 2004년 9월 14일에는 김재열이 편찬실 수석팀장 겸 편집주석팀 팀장으로, 정석용이 교열윤문팀 팀장으로, 김세봉이 교정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27]

그런데 이 체제는 2005년 5월 19일 세 팀장이 면보되면서 개편되게 된다. 편찬실 촉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세 팀장이 사퇴함에 따른 결과였다.[28] 이에 6월 3일 촉탁 신분인 허호구[29]가 수석팀장 겸 편집주석팀 팀장 및 교열윤문팀 팀장으로, 김윤우가 교정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의 편찬실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한한대사전의 완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2005년 9월 1일에 '한한대사전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한한대사전 9권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년에 3권씩 출간하여 2008년까지 전 15책을 완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1권씩 책임지는 3개 팀 체제로 개편하여[30] 1차 연도에 10권 · 11권 · 12권, 2차 연도에 13권 · 14권 · 15권을 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7월에는 캠퍼스 이전에 따라 편찬실을 포함한 동양학연구소도 죽전캠퍼스 도서관 6층으로 이전하여 편찬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어 2008년 9월 30일 색인 작업까지 모두 마침으로써 마침내 30여 년에 걸친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이 마무리되었다.

3) 편찬실 해체와 재구성(2009~2019)

2008년 9월 30일 『한한대사전』이 완간된 뒤 그 해 12월 편찬실 해체가 통보되었고, 2009년 2월 28일 해체되었다. 당초 『한한대사전』 편찬은 목적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완료와 더불어 담당 부서가 해체된 것이다. 이에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의 마지막까지 참여하였던 편찬원들은 일단 면본직 처리되었다가, 바로 이어서 학교의 타부서로 분산 발령되었다.

이후 학교 당국에서는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통합 · 수정 · 증보하고 디지털화하여 웹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 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획안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편찬실의 재구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었던 편찬원 가운데 6명을 2009년 10월 1일 편찬실로 다시 발령하고, 11월 1일에는 한문교육과 정재철 교수가 편찬실장 발령을 받아 편찬실이 재가동되었다. 2011년 8월 31일에는 정재철 편찬실장이 사임하고 9월 1일자로 윤승준 교수가 새 편찬실장에 보임되었다.

교열 · 윤문팀(수석팀장/허호구) : 서지원, 김동현, 정동화, 김형호, 김재열, 정석용, 윤현희
교정팀(팀장/조명근) : 김윤우, 김세봉, 정도상, 박찬규, 이재령, 조문주, 유희재
편집 · 주석팀(팀장/박성훈) : 김신호, 김능하, 지명원(보조원 : 허정현, 박건우)

27) 이때 실제 업무는 교열 · 윤문팀장과 교정팀장의 역할이 바뀌어 진행되었다.
28) 이를 계기로 학교 측의 편찬실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전반적 감사가 이루어졌다.
29) 당시 허호구는 2004년 8월 31일에 정년 퇴임하였다가 그해 9월 1일 촉탁으로 재임용되었다.
30) 이때 세 팀에는 제1팀장 박찬규(10권 담당), 제2팀장 정동화(11권 담당), 제3팀장 겸 수석팀장 허호구(12권 담당)가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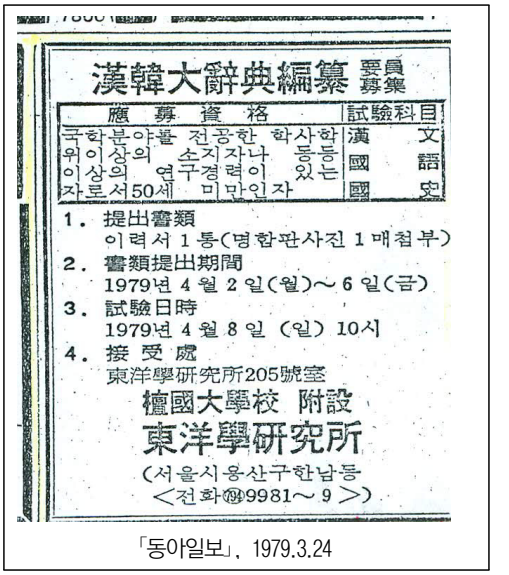
한편 2010년 6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에 지원 신청한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편찬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세 명의 연구원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원들도 면직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연구책임자이자 편찬실장이었던 윤승준 교수도 사임함에 따라 그 해 9월 1일 이건식 교수가 차기 편찬실장 발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편찬실에서는 2017년까지 4년간 6명의 편찬 인원으로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018년 2월 28일 이건식 편찬실장이 사임하고, 뒤를 이어 번역실장을 맡고 있던 김우정 교수가 편찬실장을 겸하게 되었다. 아울러 편찬실에서는 2018년 5월부터 '한국고유한자자전 편찬'이라는 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31]

2. 편찬인원

1) 편찬인원의 변동

(1) 한한대사전 편찬시기(1979~2008)

1978년 권오돈 상임편찬위원과 이강로 편찬실장 및 공개 채용한 5명[32]의 편찬원으로 출범한 편찬실은 1979년 본격적인 편찬작업을 위하여 편찬인원을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년에 이어 1979년 3월 24일과 25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한한대사전 편찬요원 모집 광고를 냈다.


漢韓大辭典編纂 要員募集

應募資格	試驗科目
국학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50세 미만인 자	漢文 國語 國史

1. 提出書類
   이력서 1통(명함판사진 1매첨부)
2. 書類提出期間
   1979년 4월 2일(월)~6일(금)
3. 試驗日時
   1979년 4월 8일 (일) 10시
4. 接受處
   東洋學研究所205號室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서울시용산구한남동
   <전화㉙9981~9>)

「동아일보」, 1979.3.24

그리고 4월 8일 63명이 응시하여 국어·국사·한문·면접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6월 1일 편찬원 을(乙)에 이상돈·정요일을, 편찬원 보에 김형호·유재성·이충구를 채용하였다. 6월 10일에는 편찬실 사환을 채용하기도 하였다.[33]

또한 1980년 2월 23일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위원 노영수를 편찬원으로 맞아들였고, 그 해 6월에는 편찬원을 추가 모집하기 위하여 25일과 26일

31) 2009년 편찬실이 해체되고 재구성된 뒤의 편찬실에 관한 사항은 2010년 이후의『동양학』휘보를 참고하였다.
32) 김영만·서지원·우찬규·최웅·허호구 등이다.
33)『동양학』9, 휘보, 1979, 309쪽.

에 모집 광고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냈다.[34] 이에 6월 29일 64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7월 14일 김능하 · 김신호 · 김윤우 · 김재열 · 박용규 · 성백효 · 이두희 · 이현식 등을 편찬원(보)으로 채용하였다. 1981년 4월 1일에는 위촉 객원편찬원 김동길을 편찬실에 출근하게 하면서 어휘주석을 집필하도록 하였다.[35] 1982년 9월 1일에는 결원된 편찬원 충원을 위해 박성훈과 홍순석을 편찬원보로 채용하였고, 12월 1일에는 이재수가 부임하였다. 그 뒤 1984년 3월 15일에는 객원편찬원이었던 김동길을 편찬원으로 발령하고, 그 업무를 연구원 최명화가 맡게 하였다.[36] 1987년 4월 27일에는 조명근이, 6월 1일에는 이성규가, 12월 10일에는 변종현, 1989년 3월 15일에는 주승택이 편찬원으로 채용되었다. 1995년 6월에는 김동현이 편찬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객원편찬원을 선발하여 원고를 작성하게 하였는데,[37] 1995년 5월에 김동석 · 문순요 · 송종화 · 윤승준 · 윤재환 · 정동화 · 제명숙 등 7명이, 8월에 권경상 · 권경열 · 김일균 · 변혜원 · 손수정 · 신용남 · 이민식 · 임승표 · 한영규 · 홍기은 등 10명이 선발되었다. 1996년에는 학교 당국의 연구소 정비 방침에 의하여 5월 1일자로 정석용 · 김세봉 · 이재령 연구원이 편찬원으로 발령받아 편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 해 11월 8일에는 동양학연구소 행정간사 겸 한적과장인 권영대가 편찬실장으로 보임되어 편찬실의 일원이 되었다.

1999년 그동안 생긴 편찬 인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인원을 선발하였는바, 10월 27일 김우정 · 정동화 · 조문주가 촉탁직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정규직의 대체인력 수단으로 촉탁직이 채용 투입되는 시작이었다.[38] 그 뒤 2000년 4월 24일자로 박찬규 · 윤현희 · 정도상 · 지명원이, 2001년 9월 1일자로 유희재가, 2003년 6월 1일자로 권기원 · 김지영 · 정태윤 · 조동영 · 허정현이 편찬실 촉탁으로 발령받았다. 2004년 9월 1일에는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한 허호구를 촉탁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인 촉탁 신분의 편찬원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 12일, 2004년도 제1차 평의원회의에서 편찬실 촉탁직의 정규직 발령건이 논의되었으나[39]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오히려 편찬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2006년에 촉탁직 편찬원으로 박상수 · 임향섭이 3월 1일에, 노상철 · 정형도가 11월 15일에 추가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그동안 편찬실에는 없던 연구원과 일반조교도 편찬사업의 가속을 위해 채용되었는데 2006년 7월 1일 이경진이, 2007년 7월 1일 우장이 조교 발령을 받았고, 2007년 2월에 서근식이 박사급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

34) 『동양학』 10, 휘보, 1980, 359쪽.

35) 『단국대학교 40년사』 1987, 623쪽 참조.

36) 『단국대학교 40년사』(1987, 623~624쪽)에서는 1984년에 최명화를 김동길의 후임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였고, 「동양학연구소 약사」(『동양학』 20, 1990, 510쪽)에서는 1986년 4월 15일에 연구원 최명화를 편찬사업에 보강하였다고 하였다.

37)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한한대사전의 원고를 외부 촉탁 인력으로 작성하였던바, 편찬실에 근무하다 사직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충구 · 이두희 · 박용규 등에게 위촉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다 송병기 동양학연구소 소장 재임 시 원고를 시급히 작성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5천만 원의 예산과 교육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아 객원편찬원을 선발하여 원고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38) 1999년 이후 채용된 편찬원의 촉탁직 채용은 재단 부도사태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던 학교의 재정형편상 계약직 신분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52쪽, 주14 참조).

39) 『동양학』 37, 휘보, 2005, 104쪽.

한편 편찬실이 설치되어 확대되는 기간 동안 이직하거나 퇴임 또는 별세한 편찬원 및 편찬위원들도 있었다. 1979년 3월 15일에 편찬원 우찬규가 사임하였고, 9월 17일에는 최웅 편찬원이 사임하였다. 1980년 2월 28일에는 정요일 편찬원이 사임하였고, 1982년 8월 19일에는 성백효 · 유재성 편찬원이 사임하였다. 1984년 2월 10일에는 권오돈 편찬위원이 별세하였고, 2월 29일에는 김영만 편찬원이 사임하였다. 1987년 3월에는 이재수 편찬원이 별세하였다. 1989년 3월 1일에는 홍순석 편찬원이 사임하였고, 1990년 3월 15일에는 주승택 편찬원이 사임하였으며, 그해 8월 26일에는 이성규 편찬원이 몽골국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1991년 6월 30일에 이강로 전편찬실장이, 그해 8월 31일에는 김동길 편찬실장이 정년퇴임하였다. 1992년 9월 1일에는 이성규 편찬원이 몽골로부터 귀국하여 복직하였다가 1993년 3월 1일에 인문과학대학 몽골학과 전임강사로 전보 발령되었다. 1994년 2월 28일에는 이두희 편찬원이, 1999년 8월 31일에는 노영수 전 편찬실장이, 2000년 2월 28일에는 이상돈 · 이현식 편찬원이, 그해 8월 30일에는 권영대 편찬실장이 정년퇴임하였다. 2001년 3월 1일에는 김우정 편찬원이 사직하였고, 2002년 3월 1일에는 이재령 편찬원이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전보 발령되었다. 2003년 2월 25일에는 유희재 편찬원이 사임하였으며, 그해 8월 31일에는 조명근 편찬원이 정년퇴임하였다. 2004년 8월 31일에는 허호구 편찬원이 정년퇴임하였다가 9월 1일 촉탁으로 재임용되었다. 이는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사업 초창기 참여자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2005년 12월 7일에는 김능하 편찬원이 사임하였고, 그달 12일에는 김동현 편찬원이 총무처 총무과로 대기발령 되었다. 2006년 8월 31일에는 서지원 편찬원이 정년퇴임하였고, 그해 10월 31일에는 허정현 편찬원이 사임하였다. 2008년 2월 29일에는 박성훈 편찬원이 정년퇴임하고 박상수 · 임향섭 편찬원이 계약만료 면본직되었다. 그 해 12월 9일에는 허호구 편찬원이 의원 면본직되었다.[40]

(2) 한한대사전 완간 이후(2009~2019)

2008년『한한대사전』이 완간된 뒤 2009년 2월 28일 편찬실이 해체됨에 따라 별정직 김윤우 · 김재열 · 정석용 · 김세봉 · 김동현과 촉탁직 권기원 · 김지영 · 박찬규 · 윤현희 · 정도상 · 정동화 · 정태윤 · 조동영 · 조문주 등 총 14명은 일단 면본직 처리되었다가, 바로 이어서 2009년 3월 1일자로 학교의 타부서로 분산 배치되었다. 다만 별정직 김재열 편찬원은 편찬실 해체에 맞춰 의원면직하였다.

이후『한국한자어사전』과『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통합하는 후속사업 추진에 따라 이를 위한 편찬실의 재구성이 있게 되었다. 이에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었던 편찬원 가운데 김지영 · 박찬규 · 윤현희 · 정도상 · 정동화 · 정태윤 등 6명이 2009년 10월 1일 편찬실로 다시 발령받고, 11월 1일에는 정재철 교수가 편찬실장 발령을 받았다. 그 뒤 2010년 1월 22일 총무과에 근무하던 전 편찬원 정석용도 복귀하였다.

한편 2010년 6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지원한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7월부터 업무를

40) 이상 1979년 편찬실이 설치된 뒤『한한대사전』이 완간된 2008년까지 편찬실에 재직했던 인원의 채용과 퇴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동양학』9~42, 휘보, 1979~2007;『단국대학교 40년사』1987;『단국대학교 50년사』상, 1997;『단국대학교 60년사』중, 2007;『단국대학교 70년사』Ⅰ, 2017;「동양학연구소 약사」,『동양학』20, 1990;『동양학간보』12, 휘보, 2001; 윤승준,「『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동양학』52, 2012.

시작한 김새미오 · 김정민 · 정형도가 8월 1일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이 중 김새미오 연구원이 9월 7일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11월 15일 김인홍이 임용되었다. 12월 1일에는 황연정이 편찬실 계약직으로 발령받았다. 12월 31일에는 정동화 편찬원이 사직하였다. 2012년 3월 31일에는 편찬실 계약직 황연정이 사직하였다. 그 해 7월 1일에는 이정홍이 편찬실 계약직으로 발령받았고, 8월 1일에는 김현정 · 박승범 · 임연지가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10월 24일에는 김정민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 연구원이 사임하였고, 12월 1일에는 이송희가 편찬실 계약직으로 발령받았으며, 12월 25일에는 강경희가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 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

2013년 2월 28일에는 정석용 편찬원이 정년퇴직하였고, 그 해 3월 1일 타부서에 배치되었던 김세봉 전 편찬원이 편찬실로 발령받아 복귀하였다. 3월 25일에는 강경희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 연구원이 사직하였고, 6월 24일에는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의 종료에 따라 김인홍 · 김현정 · 박승범 · 임연지 · 정형도 연구원이 면직되었다. 2014년 6월 30일에는 편찬실 계약직 이정홍이, 11월 30일에는 편찬실 계약직 이송희가 계약만료로 면직되었다. 2018년 8월 30일에는 김세봉 편찬원이 정년퇴임하였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윤현희 편찬원이 동양학연구원 행정지원팀 겸무 발령을 받았다.[41] 그 뒤 2020년 2월 29일에는 박찬규 편찬원이 정년퇴임하였고, 3월 1일자로 윤현희 편찬원의 동양학연구원 행정지원팀 겸무가 면해졌다.

2) 역대 인원

편찬실이 설치된 뒤 2019년 현재까지 편찬실에 재직했던 직원과 보직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편찬실 직원 명단(1977~2019) : 임용순

이름	재직기간	신분
권오돈	1977. 10~1984. 02	교수
이강로	1977. 10~1991. 06	교수
김영만	1978. 06~1984. 02	별정직
서지원	1978. 06~2006. 08	별정직
우찬규	1978. 06~1979. 03	별정직
최웅	1978. 06~1979. 09	별정직
허호구	1978. 06~2008. 12	별정직, 2004. 9 촉탁 발령
이상돈	1979. 06~2000. 02	별정직
정요일	1979. 06~1980. 02	별정직

41) 2009년 편찬실이 해체되고 재구성된 뒤 2018년까지 편찬실에 재직했던 인원의 임용과 퇴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동양학』 47 · 48 · 49 · 52 · 53 · 54 · 57 · 58 · 73, 휘보,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8.

이름	재직기간	신분
김형호	1979. 06~2002. 02	별정직
유재성	1979. 06~1982. 08	별정직
이충구	1979. 06~1982. 09	별정직
노영수	1980. 02~1999. 08	별정직
김능하	1980. 07~2005. 12	별정직
김신호	1980. 07~2005. 02	별정직
김윤우	1980. 07~2009. 02	별정직, 2009. 3 정규직 발령
김재열	1980. 07~2009. 02	별정직
박용규	1980. 07~1996. 02	별정직
성백효	1980. 07~1982. 08	별정직
이두희	1980. 07~1994. 02	별정직
이현식	1980. 07~2000. 02	별정직
김동길	1981. 04~1991. 08	별정직
박성훈	1982. 09~2008. 02	별정직
홍순석	1982. 09~1989. 03	별정직
이재수	1982. 12~1987. 03	별정직
최명화	1986. 04~1987. 10	연구원
조명근	1987. 04~2003. 08	별정직
이성규	1987. 06~1990. 08 1992. 09~1993. 02	별정직
변종현	1987. 12~1994. 02	별정직
주승택	1989. 03~1990. 03	별정직
김동현	1995. 06~2005. 12 2008. 12~2009. 02	별정직, 2009. 3 정규직 발령
정석용	1996. 05~2009. 02 2010. 01~2013. 02	별정직, 2009. 3 정규직 발령
김세봉	1996. 05~2009. 02 2013. 03~2018. 08	별정직, 2009. 3 정규직 발령
이재령	1996. 05~2002. 02	별정직
권영대	1996. 11~2000. 08	정규직
김우정	1999. 10~2001. 02	촉탁
정동화	1999. 10~2009. 02 2009. 10~2010. 12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이름	재직기간	신분
조문주	1999. 10~2009. 02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박찬규	2000. 04~2009. 02 2009. 10~2020. 02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윤현희	2000. 04~2009. 02 2009. 10~현재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정도상	2000. 04~2009. 02 2009. 10~현재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지명원	2000. 04~2002. 08	촉탁
유희재	2001. 09~2003. 02	촉탁
권기원	2003. 06~2009. 02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김지영	2003. 06~2009. 02 2009. 10~현재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정태윤	2003. 06~2009. 02 2009. 10~현재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조동영	2003. 06~2009. 02	촉탁, 2009. 3 정규직 발령
허정현	2003. 06~2006. 10	촉탁
박상수	2006. 03~2008. 02	촉탁
임향섭	2006. 03~2008. 02	촉탁
노상철	2006. 11~2009. 02	촉탁
정형도	2006. 11~2009. 02	촉탁
황연정	2010. 12~2012. 03	계약직
이정홍	2012. 07~2014. 06	계약직
이송희	2012. 12~2014. 11	계약직

(2) 역대 편찬실장

이름	재임기간	비고
이강로	1977. 10~1987. 06	교수/국어학자
김동길	1987. 07~1991. 08	편찬원
노영수	1991. 09~1996. 10	편찬원
권영대	1996. 11~2000. 08	직원
김영수	2000. 10~2004	교수/국어국문학과
정재철	2009. 11~2011. 08	교수/한문교육과

이름	재임기간	비고
윤승준	2011. 09~2013. 08	교수/교육대학원
이건식	2013. 09~2018. 02	교수/국어국문학과
김우정	2018. 03~현재	교수/한문교육과

(3) 역대 부장 · 팀장 · 수석편찬원

이름	재임기간	직책
김동길	1986. 09~1987. 06	한한대사전부장
노영수	1986. 09~1987. 06	한국한자어사전부장
이상돈	1987. 07~	한한대사전부장
	1991. 10~	한한대사전 담당 수석편찬원
허호구	1987. 07~	한국한자어사전부장
	1991. 10~	교정 담당 수석편찬원
	1999. 06~	교열팀장
	2001. 08~2004. 08	교열 · 윤문팀장(수석)
	2005. 06~2006. 01	교열 · 윤문팀장 및 편집 · 주석팀장(수석)
	2006. 02~2008. 12	제3팀장(수석)
서지원	1991. 10~	전산 담당 수석편찬원
	1999. 06~	윤문팀장
조명근	1999. 06~	교정팀장
	2001. 08~2003. 06	교정팀장
박성훈	2001. 08~2003. 06	편집 · 주석팀장
김재열	2003. 07~2004. 08	교열팀장
	2004. 09~2005. 05	편집 · 주석팀장(수석)
정석용	2003. 07~2004. 08	교정팀장
	2004. 09~2005. 05	교정팀장
김세봉	2004. 09~2005. 05	교열팀장
김윤우	2005. 06~2006. 01	교정팀장
박찬규	2006. 02~2009. 02	제1팀장
정동화	2006. 02~2009. 02	제2팀장

(4) 한한대사전 편찬 연구원 및 보조원

고경훈, 김병하, 김삼현, 김세나, 김영희, 김윤희, 김진섭, 김태규, 김현주, 남문옥, 문진, 박건우, 박인석, 박태문, 박희진, 방소연, 변혜림, 서근식, 송민석, 송아영, 송은혜, 신혜원, 오경환, 우장, 이경진, 이계순, 이미우, 이용의, 이은영, 이제연, 장용훈, 정승욱, 정희숙, 조재희, 조준상, 주혜미, 천정희, 최윤석, 황연정

(5) 한한대사전 편찬 대조교정원

권경순, 김문희, 박혜경, 이선화, 이현우, 장을연, 홍대정

(6) 전산 · 조판원(오퍼레이터)

김미진, 김미화, 김혜원, 남궁원, 이혜원, 손민희, 신연숙, 이경숙, 이성숙, 이양춘, 정경희, 정곡지

(7) 삽화 작성

박민선, 지은희

3. 사전편찬 사업

1) 한국한자어사전 편찬

『한국한자어사전』은 한국 고유의 한자 및 한자어를 수집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구서이다. 1978년『한한대사전』편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작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사전에 수록할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쓰이는 한자 · 한자어로 규정하였다. 규모는 4 · 6배판 4단 종조(縱組) 4책(약 4,000면)으로 하고, 편찬기간은 1978년 3월 1일에서 1990년 2월 28일까지 12년간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1978년부터 8년 동안『조선왕조실록』등 120여 종 문헌에서 문자 및 어휘를 채집하고, 1986년부터 2년 동안 주석과 편집을 하여 1988년부터 2년에 걸쳐 출판한다는 계획이었다.[42]

그런데 이 계획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43] 이에 따라 시일이 지연되었다. 사전의 편찬이란 각 전문 분야별로 그 방면의 석학들이 연구해 놓은 업적을 사전적인 체계로 집대성하는 일

42) 동양학연구소,「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3~4쪽.

43) 사전편찬에서 중요한 과정이 채록과 주석 작업인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당시 교열 작업에 참여하였던 차주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의 작업으로 어휘 채록은 대략 10만을 헤아릴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취사선택이 가해져야 하고 추가채록할 어휘도 적지아니 남아 있다……이렇게 채록된 어휘 카드에 어음과 어의와 설명을 붙여나가는 원고작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처음으로 어음과 어의와 설명을 써내야 하는 어휘가 의외로 많아서 적이 시간과 정력을 쏟게 된다. 또 그러한 경우 시간과 정력을 기울여 조사 연구하여도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는 않다고 하였다."(차주환,「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과 교열」,『동양학간보』4, 1986, 23쪽)

이 본분이다. 그런데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 여건은 그렇지 못하였다. 편찬요원이 해야 할 본 주석업무에 전문가가 맡아야 할 한문 독해와 연구 분야까지 겸행해야 할 지경이었다.[44] 이러한 여건 속에서 1987년 한 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때까지 진행된 편찬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한자어사전 편찬계획표[45]

(1987년 3월말 현재)

		총어휘수	처리수	미처리수	1인1일처리	담당인원	1일처리	소요일수	소요월수
주석	합계	100,000	43,500	56,000	88	17	194	1,678	76
	문자	15,000	2,500	12,500	30	1	30	417	19
	일반어	41,000	15,000	26,000	10	9	90	289	13
	전문잡방(雜方)	7,000	·	7,000	10	2	20	350	16
	제도어	9,000	4,500	4,000	8	3	24	188	9
	서명	8,000	3,500	4,500	15	1	15	300	14
	이두차자	5,000	3,000	2,000	15	1	15	134	6
	인명	8,000	8,000	·	50	1	50	167	7
	지명	7,000	7,000	·	·	·	·	·	·
편집교정	교열	100,000	27,000	73,000	46	2	92	792	36
	편집	100,000	·	100,000	80	2	160	625	29
	교정	1,000,000	·	1,000,000	70	15	1,057	946	43
	활자준비	60,000자	·	·	·	·	·	·	13
	조판	100,000	·	100,000	·	·	·	·	·
	인쇄								

※ 1개월 : 22일, 교정 : 10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부 편찬 계획이 수정되게 되었는데 1989년 7월까지 제1권, 1990년 5월까지 제2권, 1991년 4월까지 제3권, 1992년 1월까지 제4권을 완간하기로 하였다.[46] 그런데 이 계획은 중간에 또 수정되어 1990년 자료상으로 1992년에 제1권을 간행하고 1995년에 완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47]

그리고 1992년 9월 20일 드디어 『한국한자어사전』 제1권이 출간되었다. 이어 9월 23일에 출간기념식이 올림픽파크텔에서 거행되었다. 1993년 12월 30일에는 제2권이, 1995년 3월 31일에는 제3권이 간행되었고, 1996년 11월 3일 제4권이 간행됨으로써 『한국한자어사전』의 완간을 보게 되었다. 이는 애초 계획에 비하여 6년 정도 지연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요 인원의 계획수 미달과 편찬 외적인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이

44) 김동욱 외, 「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동양학간보』 6, 1987, 45쪽.
45) 위의 책, 46쪽.
46) 위의 책, 47쪽.
47) 「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511쪽.

정도의 지연된 사실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48]는 전임 동양학연구소장의 소회는 편찬작업의 어려웠던 사정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말이라 하겠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간행된 『한국한자어사전』의 권별 발행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국한자어사전』의 권별 발행 정보

권수	발행일	부수	면수
제1권	1992년 09월 20일	일(一)부~자(子)부	1,174면
제2권	1993년 12월 30일	면(宀)부~목(木)부	1,144면
제3권	1995년 03월 31일	흠(欠)부~초(艸)부	1,045면
제4권	1996년 11월 03일	호(虍)부~약(龠)부	1,056면 (색인별도 62면)

또한 이 사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 4,550여 면, 표제자 5,174자, 한자어 89,702단어가 수록되었고, 용례는 표제자에 1,347개, 표제단어에 99,889개로 총 101,236개가 수록되었다.[49]

『한국한자어사전』의 전체 형식 정보

권수	면수	표제자	표제단어	용례	
4권	4,550면	5,174자	89,702개	101,236개	표제자 1347개
					표제단어 99,889개

한편 『한국한자어사전』 편찬을 진행하면서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운서·자전·역사 자료·경전·문학 등 각종 서적과 문서 120여종 3,500책을 섭렵하여 문자와 어휘를 채록하고 주석을 달아 15만 단어를 원고화하였다. 그리고 사전 조판을 위하여 전산조판 시스템 장비를 교비로 도입하여 서지원 수석편찬원 등 9명의 요원이 입출력 작업을 하였고, 수많은 한자 벽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자 서체 폰트를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50] 그리고 원고에 대한 교열과 교정 및 편집을 거치면서 취사 선택이 가해지는 등 정제화되어 총 4권으로 완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간된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한자어의 시기별 분포를 용례의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김동욱 외, 「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동양학간보』 6, 1987, 47쪽.
49) 통계수치는 『한국한자어사전』 초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50) 노영수, 「한국한자어사전 제1권 출판기념식 식사」, 『동양학』 22, 1992, 227~228쪽.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한자어의 시기별 분포

시기	문헌 종수	용례수	비율
5~14세기	35	6,089	6.0
15세기	53	23,889	23.6
16세기	56	8,240	8.1
17세기	137	14,028	13.9
18세기	214	19,964	19.7
19세기	286	18,142	17.9
20세기 전반	170	9,264	9.2
기타	801	1,620	1.6
계	1,031	101,236	100

이러한 『한국한자어사전』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내용적 특징은 우선 우리 문헌에서 채록한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한자 및 고유 한자와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 자전과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어들을 수록한 점이다. 그리고 우리 고문헌을 독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반어 · 제도어 · 전문어 · 인명 · 지명 · 서명 · 자호(字號) · 이두 · 차자어 · 동식물명 · 성구(成句) · 속담 등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문자의 배열은 강희자전의 예에 따라 214부의 부수순으로 분류하였다.[51]

이 사전이 다른 한자사전과 다른 점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150여 종, 총 1,360여 책[52]의 고문헌에서 우리 고유의 한자 및 한자어 자료만을 채록하여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한자어사전』이 이전 사전과 차별되는 중요한 점 하나가 각 한자어의 이용 예를 볼 수 있는 전거 출전과 예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거를 제시해 놓았다. 또한 표제자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순 한국식 한자인 '乭(돌)'이나 '垈(놀)' 등 201개의 국자와 380여 개의 국의자를 수록하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여러 난관을 뚫고 완간된 『한국한자어사전』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53] 1997년 2월 5일, 한국일보사 주최 제37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출판상(事典, 辭典 부분)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51) 이상의 내용적 특징은 『한국한자어사전』 1권, 일러두기 참조.

52) 총 1,360여 책은 앞서 1992년 한국한자어사전 출판기념식 식사(노영수, 윗글, 228쪽)의 수치와 차이가 난다. 이는 원고의 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책을 세는 방법상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53)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된 직후 「한국일보」에 실린 다음 기사(1996. 11. 11)는 당시 이 사전의 출간이 갖는 학문적 · 사회적 의미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한자어와 어휘, 고사에서 나오는 용어와 용례 등을 집대성한 『한국한자어사전』이 완간됐다.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소장 송병기 역사학과 교수)가 50억원을 투입해 착수한지 18년만에 마무리한 이 사전은 『한한대사전』(전17권, 2004년 완간예정) 발간을 위한 기초작업이자, 국학분야에서 쓰이는 다양한 용어의 의미와 개념을 재정리한 국학연구의 길잡이로 평가받고 있다."

2) 한한대사전 편찬

(1) 편찬과정

『한한대사전』 편찬은 사실상 동양학연구원(소) 편찬실의 존재 이유였다. 동양학연구소에 편찬실이 생긴 계기가 『한한대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1976년 11월 5일, 동양학연구소 제30차 평의원회의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54] 그리고 이듬해인 1977년 8월 30일에 '한한대사전편찬 계획안'이 장충식 당시 총장에게 보고되었고 제반 지원을 확약받았다. 이어 그해 11월 3일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55]

이 사업은 시작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한국한자어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한대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주 내용은 『한국한자어사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 및 사서류에 실린 한자·한자어를 재정리 수록하는 것이었다. 규모는 4·6배판 4단 종조(縱組) 17책(약 19,000면)으로 하고, 편찬기간은 1980년 3월 1일에서 1995년 2월 28일까지 15년간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1980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10년 동안 강희자전·대한화사전·중문대사전·형음의종합대자전을 기본사료로 하고 『동국정운』·『규장전운』·『자전석요』·『신자전』·『육서심원』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처지에서 정리·주석하는 원고작성을 하고, 교열·수정·정리 작업을 한다. 그 뒤 1990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5년간 완성된 원고와 『한국한자어사전』을 종합하여 부수·획수·음순으로 배열하고 편집·출판한다는 계획이었다.[56]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편찬 요원 확보상의 애로와 재정 부담의 과중, 그리고 새로운 중국 자료의 출현으로 원고의 수정·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1994년 계획서[57]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완간하기로 했던 『한한대사전』 편찬 계획은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완간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규모는 6만 자, 55만 어휘, 4·6배판 2단 횡조, 17책, 2만 면으로 바뀌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판형의 변화이다. 사업 시작시 4단 종조인 세로 판형에서 2단 횡조인 가로 판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당시 출판계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계획서에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해야 할 자의 원고, 어휘 원고, 교열, 교정, 출간에 이르는 수치가 연도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54) 『동양학』 7, 휘보, 1977, 224쪽.
55) 본고 1장 연혁조 참조.
56)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3~4쪽.
57)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 편찬 현황과 향후(1995~2004) 계획」, 1994. 10, 1~14쪽.

『한한대사전』 편찬 계획

구분 / 년도	자의 원고		어휘 원고		교 열		교 정		출간	비고
	인력	자	인력	단어	인력	자, 단어	인력	면수		
1995	3	6,120	(8)	51,840						
1996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1	한한대사전 출간
1997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2	
1998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3,4	
1999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5,6	
2000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7,8	
2001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9,10	
2002	3	6,120	(8)	51,840	(2)3	56,000	11	16,800	11,12	
2003					(2)3	56,000	14	24,000	13,14	
2004							17	31,200	15,16,17	
계	24	48,960	(64)	408,000	(16)24	448,000	100	172,800		

※ 『漢韓大辭典』의 규모는 4*6배판, 권당 1,200면, 전 17책으로 설정하였음
※ 편찬 인원의 자연 감소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음
※ 교정 인원의 산출은 현 인원 18명 중 자의 3명, 교열 3명, 컴퓨터실 1명을 제외한 전원임
※ 어휘원고란의 인력과 교열란의 인력 중 ( )은 외부 촉탁 인력을 표시한 것임
※ 교정은 책당 7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아울러 이 1994년 계획서에는 그때까지의 『한한대사전』 원고작성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참고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원고 총량		작성 원고량		작성할 원고량		비고
	자의	어휘	자의	어휘	자의	어휘	
현황	60,000여자	550,000여단어	12,000 20%	150,000 27%	48,000 80%	400,000 73%	

이러한 계획하에 진행되던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은 학교의 재정난 등으로 인한 편찬인원의 미충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간이 지연되었다.[58] 1996년에 1권을 발간하기로 하였던 계획이 1999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1999년 3월 25일『한한대사전』제1권이 발간되고 4월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출간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그해 12월 1일에는 제2권이 발간되었다.

그 뒤 2004년까지 제7권이 발간되었으나 이는 2004년까지 전17권을 완간하기로 한 수정 계획에서 많이 벗어난 결과였다. 이에 새로 부임한 김상홍 동양학연구소 소장 지휘하에 새로운 출간 계획이 9월 13일 마련되었다.[59] 이때의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권차	부 수	중문사전면수	간행예정	소요기간
8권	수(水) ~ 화(火)	1086면	2005.4	8개월
9권	조(爪) ~ 모(矛) (인명 : 王 · 田 · 盧氏)	1153면	2005.12	8개월
10권	시(矢) ~ 사(糸) (石氏)	1328면	2006.8	8개월
11권	부(缶) ~ 초(艸) 8(胡氏)	999면	2007.4	8개월
12권	초(艸) 9 ~ 아(襾) (范 · 蔣 · 蔡 · 薛 · 蘇氏)	918면	2007.12	8개월
13권	견(見) ~ 신(辰) (許 · 謝 · 趙氏)	1027면	2008.8	8개월
14권	주(走) ~ 부(阜) (郭 · 鄭 · 金 · 陳 · 陸氏)	1295면	2009.4	8개월
15권	이(隶) ~ 귀(鬼) (馬 · 高氏)	1050면	2009.12	8개월
16권	어(魚) ~ 약(龠) (부록) (黃氏)	603면	2010.8	8개월

※ 각 권에 기록된 성씨는 대량 인명이 있는 경우임.

그런데 이 계획은 2005년 2월 김상홍 소장이 전격적으로 사임[60]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다. 이에

58) 이에 대한 요인으로 편찬실장을 역임했던 윤승준 교수는 다음 몇 가지를 꼽았다. "첫째, 보다 많은 문자와 어휘를 수록하려는 사전 작업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의 양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당초 계획했던 상근 편찬원에 비하여 실제 인원은 항상 모자랐다. 셋째, 전산 조판 시스템의 설치가 늦어졌고, 넷째 교열과 교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한국한자어사전』발간 후 중국에서 새롭게 나온『한어대자전』과『한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일일이 대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대한화사전』과『중문대사전』을 저본으로 출발하였던『한한대사전』은『한어대자전』과『한어대사전』에 새롭게 수록된 문자와 어휘를 포괄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한한대사전』의 체제도 새롭게 바로잡아야 했다"(윤승준,「『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동양학』52, 2012, 154~155쪽).

59) 당시 김상홍 신임 소장은 편찬원들에게 8개월에 1책(2년 3책)을 발간하는 로드맵의 작성을 요청하면서, 대신 정규직 전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촉탁직 편찬원들의 입교 서열에 따른 5명의 정규직 전환을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학교 당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한대사전 편찬 특별대책위원회'[61]가 2005년 9월 1일 구성되어 편찬사업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학교 당국과 편찬실은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을 2008년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62] 이에 맞추기 위하여 전체 17책으로 간행하기로 했던 것을 16책(부록 포함)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업무계획을 작성하였다. 다음은 제10권 이후의 업무 내용과 월별 계획표이다.

제10·11·12권 전체 업무 내용

▣ 범 위 : 目部 ~ 豸部

▣ 총분량 : 198원고묶음(약 3,900p : 1,300p×3권)

▣ 총일수 : 245일

항 목	묶음	페이지	1인 1일 작업량	비고
교 열	198묶음		카드70매	입력업무
초 교		3,900page	4page	대조교정자 운용
재 교		3,900page	7page	삽도·고문자 안치
삼 교		3,900page	100page	
OK교정 및 벽자·하시라 작업		3,900page	15page	총page 확정
필름교정				필름교정 및 전산작업은 1팀장 지휘하에 선발 인원이 수행. 나머지 인력은 2차년도 교열.
전산작업				
인 쇄				

60) 당시 김상홍 소장은 촉탁직 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 본부에 수차례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소장직을 사임하였다.

61) 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책	성명	직위
위원장	오명환	부총장
위원	안순철	기획실장
위원	신현기	교무처장
위원	이병선	총무처장
실무간사	이행렬	동양학연구소 과장

62) 『단국대학교 60년사』 중, 2007, 209쪽.

10 · 11 · 12권 진행 계획표

<table>
<tr><td>기간(13개월)</td><td>06/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07/1월</td><td>2월</td><td>비고</td></tr>
<tr><td>업무일수(245일)</td><td>15일</td><td>22일</td><td>20일</td><td>22일</td><td>21일</td><td>20일</td><td>22일</td><td>21일</td><td>19일</td><td>22일</td><td>20일</td><td>22일</td><td>19일</td><td></td></tr>
<tr><td>주간누계(55주)</td><td>2주</td><td>7주</td><td>11주</td><td>16주</td><td>20주</td><td>24주</td><td>29주</td><td>33주</td><td>37주</td><td>42주</td><td>46주</td><td>51주</td><td>55주</td><td></td></tr>
<tr><td>작업일수</td><td colspan="6">120일</td><td colspan="7">125일</td><td>245일</td></tr>
<tr><td>투여인력</td><td colspan="6">14인</td><td colspan="7">17인</td><td></td></tr>
<tr><td>10권(目~糸)
47,256(79묶음)</td><td colspan="6" rowspan="2">1인 교열카드 70매 기준 (5.6인)</td><td colspan="3" rowspan="4">초교
17인(1인4p)
57.3일(3,900p)</td><td rowspan="4">재교
17인(1인7p)
32.7일
(3,900p)</td><td rowspan="4">3교
17인
(1인10p)
22.9일
(3,900p)</td><td rowspan="4">4교
(OK) 및 벽자 · 하시라작업
17인(1인15p)
15.2일(3,900p)</td><td rowspan="4">120일(교열)
+128.1일
(교정)=
248.1</td></tr>
<tr><td>11권(缶~艸)
35,675(60묶음)</td><td colspan="6" rowspan="2">1인 교열카드 70매 기준 (4.2인)</td></tr>
<tr><td>12권(虍~豸)
35,517(59묶음)</td><td colspan="6" rowspan="2">1인 교열카드 70매 기준 (4.2인)</td></tr>
<tr><td colspan="3"></td></tr>
<tr><td>교열총량</td><td colspan="13">118,448매(198묶음)</td><td></td></tr>
<tr><td>교정총량</td><td colspan="13">3,900page</td><td></td></tr>
<tr><td>진행방법</td><td colspan="13">10,11,12권 동시 진행(특수업무 수행자를 제외한 전원 교열 후 전원 교정 순차진행)</td><td></td></tr>
<tr><td>비 고</td><td colspan="13">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인력(17인 이상)과 절대기간(1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교열 단계에서 권당 1,300p (총 3,900p) 이내로 조절해야 가능함.</td><td></td></tr>
</table>

제13 · 14 · 15권 전체 업무 내용

▣ 범 위 : 貝部 ~ 龠部

▣ 총분량 : 119,749매 (220원고묶음, 약 3900쪽, 1300쪽×3권)

▣ 총일수 : 247일

항 목	묶음(매)	쪽수	1인 1일 작업량	비고
교 열	220묶음 (119,749매)		원고카드 80매	입력업무
초 교 (2차교열)		3,900쪽	3쪽	교열 편집, 주석원고카드 보충
재 교		3,900쪽	7쪽	문자개발, 대조교정자 운용
삼 교		3,900쪽	20쪽	삽도 · 고문자 안치
OK교정 및 벽자 · 하시라 작업		3,900쪽	20쪽	총 쪽수 확정
쪽편집 및 화면교정		3,900쪽		쪽편집, 화면교정 및 필름교정은 1팀장 지휘 하에 선발 인원이 수행. 나머지 인력은 색인 등 후속작업 수행.
필름교정		3,900쪽		
인 쇄		3,900쪽		

13 · 14 · 15권 월별 진행계획표

<table>
<tr><td>기간
(13개월)</td><td>07/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08/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비고</td></tr>
<tr><td>업무일수</td><td>21일</td><td>22일</td><td>20일</td><td>11일</td><td>22일</td><td>16일</td><td>22일</td><td>22일</td><td>19일</td><td>12일</td><td>17일</td><td>21일</td><td>22일</td><td>총247일
(57주)</td></tr>
<tr><td>총인원
(작업인원)</td><td colspan="2">20인
(17인)</td><td colspan="7">19인
(17인)</td><td colspan="4">18인
(16인)</td><td>※안식월:
6월 1인,
12월 1인</td></tr>
<tr><td>13권
(貝~酉)
40,080
(79묶음)</td><td>교열
(17인)
28,560</td><td>교열
(7인)
12,320
초교
(7인)
462</td><td>초교
(7인)
420</td><td>초교
(7인)
231</td><td>초교
(3인)
198</td><td></td><td></td><td>재교
(5인)
770</td><td>재교
(4인)
532</td><td></td><td>삼교
(2인)
680</td><td rowspan="3">*삼교
(8인)
3,360
*OK
교정
(7인)
2,940
*삼도
고문자
(1인)</td><td rowspan="3">*OK교정
(16인3일)
960
*쪽편집
화면교정
필름교정
(19일)</td><td rowspan="3">*교열:
1인1일
80매
*초교:
1인1일
3쪽
*재교:
1인1일
7쪽
*삼교:
1인1일
20쪽
*OK교정:
1인1일
20쪽</td></tr>
<tr><td>14권
(釆~音)
37,995
(61묶음)</td><td></td><td>교열
(3인)
5,280</td><td>교열
(10인)
16,000</td><td>교열
(10인)
8,800</td><td>교열
(4인)
7,040
초교
(7인)
462</td><td>초교
(11인)
528</td><td>초교
(5인)
330</td><td></td><td>재교
(1인)
133</td><td>재교
(11인)
924</td><td>재교
(3인)
357</td></tr>
<tr><td>15권
(頁~龠)
41,674
(80묶음)</td><td></td><td></td><td></td><td></td><td>교열
(3인)
5,280</td><td>교열
(6인)
7,680</td><td>교열
(6인)
10,560
초교
(6인)
396</td><td>교열
(6인)
10,560
초교
(6인)
396</td><td>교열
(5인)
7,600
초교
(6인)
342</td><td>초교
(5인)
180</td><td>재교
(11인)
1,309</td></tr>
<tr><td>교열총량</td><td colspan="13">118,749매 (220묶음)</td><td></td></tr>
<tr><td>교정총량</td><td colspan="13">3,900쪽</td><td></td></tr>
<tr><td>진행방법</td><td colspan="13">단계별 순차진행 후 최종 삼교부터 통합 진행</td><td></td></tr>
<tr><td>비 고</td><td colspan="13">* 계획대로 업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인력(교정 16~17인)과 절대기간(13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교열 및 초교 단계에서 권당 1300(총 3,900)쪽 정도로 조절해야 가능함.
* 위 인원 및 기간은 중간에 경조사 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td><td></td></tr>
</table>

그리고 위 계획 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색인 작업을 하여 2008년 9월에 『한한대사전』 전16권을 완간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편찬원들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특근까지 진행하면서[63] 10권부터는 1년에 3권

63) 당시 사전 완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업무량을 상향 조정하였는바 당시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 11 · 12권의 경우 9권에서 수행한 업무와 비교할 때, 1일 기준 교열은 50카드에서 70카드로, 초교는 3p에서 4p로, 재교는 5p에서 7p로, 3교는 7p에서 10p로 조정하고, 4교는 벽자 · 하시라 작업과 OK교정을 통합하여 한 차수로 하였으며, 1일 기준 업무량은 10p에서 15p로 조정하였다. 13 · 14 · 15권의 경우 10 · 11 · 12권과 비교할 때, 1일 기준 교열은 70카드에서 80카드로 3교는 10p에서 20p로 상향 조정하였다.

씩 출간하여 2008년 9월 30일 색인 포함 『한한대사전』 16책이 드디어 완간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한대사전 편찬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한한대사전』 간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사전의 내용 면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련 전공 교수들로 한시적인 비상설기구인 '한한대사전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의 내용을 심의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교열을 마친 초교지에 대하여 6개 평가항목(자해풀이, 어휘 교열, 편찬체제, 어휘 및 예문 선정, 약물 기호, 입력 조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제10·11·12권은 2006년 9월에,[64] 제13·14·15권은 2007년 11월에[65] 각각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업무 내용이 기간 단축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질적인 면에서 수준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66] 이러한 과정에서 완간된 『한한대사전』 각 권의 발행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한한대사전』의 권별 발행 정보

권 수	발 행 일	부 수	면 수
제1권	1999년 3월 25일	일(一)부 ~ 인(人)부	1,440면
제2권	1999년 12월 1일	인(儿)부 ~ 구(口)부(~4)	1,360면
제3권	2000년 8월 1일	구(口)부(5~) ~ 여(女)부	1,308면
제4권	2001년 8월 31일	자(子)부 ~ 인(廴)부	1,330면
제5권	2002년 7월 1일	공(廾)부 ~ 수(手)부(~9)	1,391면
제6권	2003년 7월 21일	수(手)부(10~) ~ 목(木)부(~3)	1,307면
제7권	2004년 7월 21일	목(木)부(4~) ~ 기(气)부	1,058면
제8권	2005년 7월 10일	수(水)부 ~ 화(火)부	1,351면
제9권	2006년 1월 31일	조(爪)부 ~ 명(皿)부	1,323면
제10권	2007년 2월 28일	목(目)부 ~ 사(糸)부	1,536면
제11권	2007년 2월 28일	부(缶)부 ~ 초(艸)부	1,311면
제12권	2007년 2월 28일	호(虍)부 ~ 치(豸)부	1,261면
제13권	2008년 9월 30일	패(貝)부 ~ 읍(邑)부	1,502면
제14권	2008년 9월 30일	유(酉)부 ~ 음(音)부	1,499면
제15권	2008년 9월 30일	혈(頁)부 ~ 약(龠)부	1,487면
색인	2008년 9월 30일		785면

64) 이때의 평가위원은 김상홍(한문교육과), 정형(일문학과), 김영수(국문학과), 황현국(중문학과) 교수였다.
65) 이때의 평가위원은 김상홍(한문교육과), 강재철(국문학과), 황현국(중문학과) 교수였다.
66) 「『한한대사전』 중간평가 보고서 - 제13·14·15권 -」, 2007. 11. 28, 총평 참조.

또한 이 사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4 · 6배판 총 20,786면, 표제한자 54,964자, 한자어휘 420,269개가 수록되었다.[67] 연 인원 22만명, 예산 35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30여년 만인 2008년에 완간된 『한한대사전』은 그해 10월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완간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그해 12월 17일 완간기념 사전학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한대사전』 편찬의의를 국제적으로 짚어보았다.

『한한대사전』은 완간되면서 그 가치를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교수신문사는 창간 2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한 특별 기획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에 『한한대사전』을 선정하였다.[68] 30여 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한한대사전』(16책) 완간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2010년 12월 말부터 진행된 기획을 통해 교수신문사는 우리나라 대학이 보유한 유형 · 무형의 자산 가운데 한국 사회의 '문화 국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유산으로 13편을 선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한대사전』을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것이다.[69]

(2) 전산조판 시스템의 도입과 한자 폰트 개발

『한국한자어사전』 및 『한한대사전』 편찬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양의 한자를 텍스트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초기부터 컴퓨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이강로 실장에 의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다. 이후 1985년 일본 · 대만 등에 자료수집차 방문하고 온 김동길 편찬부장에 의해 우리 사전의 컴퓨터 조판 가능성이 역설되었고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다.[70] 그리하여 1985년 11월 15일자로 「사전편찬 전산화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한한대사전 편찬 · 인쇄의 컴퓨터활용 방안 검토」라는 제목으로 서지원에 의해 그해 『동양학간보』 3집에 게재되었다.

이후 전산조판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어 1990년 10월에 서울시스템으로부터 입력기 3대, 출력기 1대를 임대하여 동양학연구소에 설치하고 입력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실무 책임은 서지원 편찬원이 맡고 입력 오퍼레이터는 서울시스템에서 파견하였다. 이후 1991년 4월 22일에 단국대학교와 서울시스템 사이에 한한대사전 편찬을 위한 컴퓨터 도입 및 서체개발에 관한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71] 1992년 1월 20일에는 한자 서체 폰트 1만 자를 서울시스템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72] 교정의 진척도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1993년 1월 15일에는 동양학연구소 컴퓨터실에 필름인화지 출력현상기(Autologic) 1세트 및 교정 출력기 1세트를 설치하였다. 이전에는 비록 조판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는 하나 입력과 교정을 위한 출력기 이외는 아무 장비도 갖추지 못한 셈이었었다. 이 때문에 최종 원고 출력을 위해 서울시스템에 가야 했지만, 이제 연

67) 『단국대학교 70년사』 Ⅰ, 2017, 288쪽.
68) 「〈교수신문〉 특별기획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시상식」, 『교수신문』 2012년 5월 4일자.
69)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48쪽
70) 「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동양학간보』 6, 1987, 46쪽.
71) 『동양학』 21, 휘보, 1991, 358쪽.
72) 『동양학』 22, 휘보, 1992, 222쪽.

구소 컴퓨터실에서 조판 입력부터 최종 작업에 이르는 일관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는 교육부로부터 한자 폰트 개발 지원금조로 연간 6천만 원씩 5개년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통보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93년 12월 27일에 한자 폰트 45,000자(연간 9천 자씩 5년간)에 대한 개발 계약이 학교 당국과 서울시스템 사이에 체결되었다.[73] 이에 따라 1997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신출 서체를 개발하여 약 62,400여 자의 한자 폰트를 구축하고 사전편찬에 활용하게 되었다. 당시 한자 폰트 개발의 연차별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자 폰트 개발 연차별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개발 수량	교비부담금	국고지원금	시행기간	비고
'91~'92	(5,000) 10,000자	200,000		91.06~92.12	(기초한자) 개발완료
'93	9,000자	102,000	60,000	93.05~94.04	개발완료
'94	9,000자	102,000	60,000	94.03~95.02	개발완료
'95	9,000자	102,000	60,000	95.03~96.02	개발완료
'96	9,000자	102,000	60,000	96.03~97.02	개발완료
'97	9,000자	102,000	60,000	97.03~98.02	개발완료
계	60,000자	510,000	300,000	(국고지원 총 5개년)	

또한 한자의 생성과 발전을 볼 수 있는 고문자를 갑골문 · 금문 · 소전의 순서로 이미지 파일로 제작하고 사전에 수록하여 향후 전산화 과정을 거친 뒤에 전자정보로서도 일목요연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사전의 출간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전달 매체인 전산 정보 구축과 전자 출판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한한대사전』 4권을 발행한 이후 2001년 9월부터는 사전의 전산조판에 대해 학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서울시스템에서 전적으로 맡는 체제로 바뀌었고, 이 체제는 사전 완간 때까지 유지되었다.

(3) 예산 집행 내역

1978년 처음 계획 당시 『한국한자어사전』 포함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은 2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14년에 걸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총예산은 13억 2,044만 6천 원이 책정되었다.[74] 그런데 이 계획은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전면적으로 수정이 가해졌다. 1979년 계획서에는 기간이 17년으로 연장되고 예산은 무려 2배가 넘는 28억 2,817만 7,400원으로 책정되었다.[75] 이렇듯 큰 차이가 발생된 데는 처음 계획은 그 자체가

73) 『단국대학교 50년사』 상, 1997, 604쪽.
74)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1978, 5쪽.

확정안이 아닌 시안적 성격의 계획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1979년 계획서의 28억여 원의 예산안 내용으로는 인건비를 비롯해 원고비, 출판비, 회의비, 비품비, 사무비 및 소모품비, 문헌구입비, 예비비 등의 각종 항목이 갖추어져 있다. 그중 인건비가 16억 5,750만 6천 원으로 총 경비의 58.6%를 차지하여 단연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1989년까지의 인건비는 주로 편찬원의 급여로 지출되었지만 전산조판 시설을 갖추어 출판하게 됨에 따라 1990년도부터는 조판원의 인건비가 추가되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조판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것만 2억 1,538만 8천 원이었다. 전산 조판을 하게 됨에 따라 시설구입 및 글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추가비용의 발생에 따라 실제 지출된 내역을 1994년 11월에 작성된 「『한한대사전』 편찬 현황과 향후(1995~2004) 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의 기간은 1977년부터 1994년까지이다.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연차별 지출 내역[76]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인건비		전산 조판 시설비		편찬 경상비	사전 출간비	합계	비고
	편찬원	조판원	시설구입	글꼴개발				
1977	2,712						2,712	
1978	21,992						21,992	
1979	44,154						44,154	
1980	68,301				50,000		118,301	
1981	90,636				50,000		140,636	
1982	97,592				30,000		127,592	
1983	131,942				30,000		161,942	
1984	152,794				20,000		172,794	
1985	143,118				25,000		168,118	
1986	190,882				30,000		220,882	
1987	217,919				30,000		247,919	
1988	245,445				30,000		275,445	
1989	277,632				30,000		307,632	
1990	314,703	8,647	20,000	180,000	30,000		553,350	
1991	352,701	39,843			30,000		422,544	
1992	376,863	46,874	247,625		30,000	25,207	726,569	

75)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10쪽.
76)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 편찬 현황과 향후(1995~2004) 계획」, 1994. 10, 14쪽.

구분 / 년도	인건비		전산 조판 시설비		편찬 경상비	사전 출간비	합계	비고
	편찬원	조판원	시설구입	글꼴개발				
1993	380,928	55,146		162,000	30,000	56,016	684,090	
1994	337,001	64,878		162,000	30,000	28,008	621,887	
계	3,447,315	215,388	267,625	504,000	475,000	109,231	5,018,559	

* 액수는 당해 연도의 액수를 표시한 것임

위의 지출 내역을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보면 50억 1,855만 9천 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1979년도 계획서의 예산액 28억 2,817만 7,400원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1979년도 계획서에는 1978년도부터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1994년도 지출자료에서 1977년도분 271만 2천 원을 제하면 50억 1,584만 7천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과는 21억 8,766만 9,6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1977년부터 2000년까지의 예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해당 기간의 예산 규모와 국가의 지원 현황까지 알 수 있기에 제시해 본다.

연도별 지출 예산 내역 1977년~2000년[77]

연도	국고부담	자체부담	계	사업내용
1977		2,712,000	2,712,000	인건비, 인쇄(자체) 원고, 도서비(국고)
1978		21,992,000	21,992,000	상 동
1979		44,154,000	44,154,000	상 동
1980	50,000,000	68,301,000	118,301,000	상 동
1981	50,000,000	90,636,000	140,636,000	상 동
1982	30,000,000	97,592,000	127,592,000	상 동
1983	30,000,000	131,942,000	161,942,000	상 동
1984	20,000,000	152,794,000	172,794,000	상 동
1985	25,000,000	143,118,000	168,118,000	상 동
1986	30,000,000	190,882,000	220,882,000	상 동
1987	30,000,000	217,919,000	247,919,000	상 동
1988	30,000,000	245,445,000	275,445,000	상 동

77) 동양학연구소, 「2000년도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결과 보고서」, 2001. 12.

연도	국고부담	자체부담	계	사업내용
1989	30,000,000	277,632,000	307,632,000	상 동
1990	30,000,000	523,350,000	553,350,000	전산, 서체 도입추가
1991	30,000,000	392,544,000	422,544,000	사전 출간비 추가
1992	30,000,000	696,569,000	726,569,000	전산, 서체, 출간비추가
1993	30,000,000	654,090,000	684,090,000	서체, 출간비 추가
1994	30,000,000	591,887,000	621,887,000	상 동
1995	100,000,000	634,217,000	734,217,000	상 동
1996	90,000,000	482,217,000	572,217,000	상 동
1997	132,000,000	643,145,000	775,145,000	상 동
1998	100,000,000	746,350,000	846,350,000	한한대사전 출간비 추가
1999	115,000,000	746,637,000	861,637,000	상 동
2000	110,400,800	938,489,190	1,048,889,990	한한대사전 3, 4권 출간비
계	1,122,400,800	8,734,614,190	9,857,014,990	

위 표에서 1977년부터 2000년의 연도별 지출 예산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총 98억 5,701만 4,990원이다. 이 지출금 중 학교 자체 부담액이 87억 3,461만 4,190원으로 전체의 약 88.6%를 차지하고 나머지 11억 2,240만 800원이 국고부담액으로 약 12%를 차지한다. 이는 사전 편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측의 부담이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점과 맞물리면서 교내에서 사전 편찬사업의 폐지 여부까지 거론할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한편 국가의 지원액은 2001년 이후에도 『한한대사전』이 완간되는 2008년까지 다음과 같이 지원되었다.

연 도	국고 지원금
2001. 12~2002. 11	151,000,000
2002. 12~2003. 11	155,000,000
2004. 1~2004. 12	150,000,000
2005. 1~	150,000,000
2006. 1~	194,000,000
2007. 1~	300,000,000
2008. 1~	300,000,000
계	1,400,000,000

위 표에서 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를 앞의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고지원액 11억 2,240만 800원에 합산하면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총 25억 2,240만 800원에 이른다. 그나마 사전 편찬사업에 국가가 일조를 한 셈이다.

한편 『한한대사전』이 완간되기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비용은 자료의 산일로 현재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78] 다만 2000년까지 국고부담과 자체부담을 합하여 총 98억 5,701만 4,990원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 약 10억 4,888만 9,990원, 2006년도에 11억 9,400만 원,[79] 2007년도에 약 13억 정도가[80] 들어갔다고 하는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2000년 이후 매년 10억을 상회하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렇듯 막대한 경비의 소요는 사립학교 재단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실로 버거운 게 사실이었다. 그러한 점은 사전편찬 작업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한한대사전』이 완성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 데는 이를 계획하여 추진한 학교 당국이나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진행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한한대사전 편찬

(1) DB 구축업체와의 용역사업(2009.12~2012.2)

2008년 『한한대사전』이 완간된 이후 학교 당국에서는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통합·수정·증보하고 디지털화하여 웹상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한 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획안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편찬실의 재구성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81] 이에 각 부서에 분산 배치되었던 편찬원 가운데 6명[82]을 2009년 10월 1일 편찬실로 다시 발령하고, 11월 1일에는 한문교육과 정재철 교수가 편찬실장 발령을 받아 편찬실이 재가동되었다.

이후 DB 구축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후속사업의 첫발을 내디디었다. 2009년 12월 (주)한테크미디어와 계약을 맺고 웹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및 통합DB 구축과 통합사전편집기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83] 이때의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84]

---

78) 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총 300억 원 이상(김상배, 「한한대사전 출판과의 인연」, 『한한대사전 간행기』, 2008, 119쪽), 또는 연 10억씩 약 310억 원(김상홍, 「국격을 높인 학술문화사의 금자탑」, 『한한대사전 간행기』, 2008, 122쪽) 등의 설이 있다.

79) 동양학연구소,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 '06 『한한대사전』 연차 보고서」, 2006. 10.

80) 동양학연구소, 「교육부정책과제 '07 『한한대사전』 결과 보고서」, 2007. 12.

81)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60~161쪽.

82) 이때의 인원은 김지영·박찬규·윤현희·정도상·정동화·정태윤이다.

83) 한한대사전 통합DB 구축의 구조나 기능적인 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지영의 논문(「『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동양학』 54, 2013, 213~24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4) 박찬규,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 경과와 미래」, 『디지털시대 동아시아 한자사전 활용방안 모색』(제8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학술회의 발표집), 2017, 115쪽.

용역내용	수량
① 한한대사전 통합 DB 구축 - 서울시스템코드를 유니코드로 변환 - 아날로그 텍스트를 DB디지털데이터형식으로 변환 - 일부 망실데이터 입력	1식
② 통합사전 DB 구축 처리기 ③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 ④ DB구축 검증용 시범 웹서비스 개발	1식
⑤ DB용 서버 시스템	1식

위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 실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85]

구분	당초계획		실적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의 DB구축	『한국한자어사전』 1~4권 (네오메인프로그램 입력 파일) 변환 및 DB구축		『한국한자어사전』 1~4권 (조판프로그램 파일) 변환 및 DB구축 완료
	『한한대사전』 1권~15권 (네오메인, 페이지스타, 네오유니 프로그램 입력 파일) 변환 및 DB구축		『한한대사전』 1권~15권 (조판프로그램 파일) 변환 및 DB구축 완료
	『한한대사전』 200면 입력 및 DB구축		『한한대사전』 데이터 유실분 246면 입력 및 DB구축 완료
	변환코드, 데이터, 이미지 검수		변환코드, 데이터, 이미지 검수 완료
통합사전편집기 개발	시스템 개발	통합사전 DB구축 처리기 개발	통합사전 DB구축 처리기 개발 완료
		온라인사전편집기 개발	-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 개발 완료 -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 매뉴얼 개발
	S/W구매 및 장비 도입	DBMS - 유니코드 지원	- DBMS-유니코드 지원 완료
		DB서버 1식 도입	- DB서버 1식 도입 완료
시범 웹서비스	- 사이트디자인, 검색조건 및 기능, 입출력 · 편집 · 저장 기능, 검색 통계 기능 등 개발		- 사이트디자인, 검색조건 및 기능, 입출력 · 편집 · 저장 기능, 검색 통계 기능 등 개발 완료

위 사업의 내용 중 중요한 하나가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 개발이었다. 이는 2011년 6월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2월 개발을 완료하였다.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는 웹을 기반으로

85) 위와 같음.

한 편집기로 기 발간된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내용 통합, 수정 및 증보 등의 편집 작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온라인 통합사전편집기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86]

메뉴영역	사용자매뉴얼/작업이력서/부수찾기/권별찾기/특수기호・문자/한한대사전/한국한자어사전/작업내용확인	
표제자영역	표제자정보 : 표제자/고문자/자원/음	
	뜻갈래	작업내용확인
		뜻갈래작업
어휘영역	어휘목록	어휘정보 : 표제어휘/음정보/뜻갈래
		작업내용확인
		뜻갈래작업

또한 중요한 사업 내용의 하나가 시범 웹서비스 개발이었다. 개발된 시범 웹서비스는 완료한 통합DB의 기본적인 설계에 따라 향후 정식 웹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범 웹서비스는 통합작업 기간 동안 통합사전편집기를 보좌하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시범 웹서비스의 기본적인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87]

웹 표준 준수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 ○ 향후 증보판 편찬 및 전문사전편찬 등 지속적인 사전편찬 및 수정을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 유지보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 국제표준문자코드(유니코드)기반으로 개발(BMP영역, EXT-A영역, EXT-B영역까지 지원)
입/출력 방안 마련	○ 『한한대사전』에서 사용된 모든 문자(일부 약물 제외)를 검색에 사용할 경우 입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한한대사전』에서 사용된 모든 문자(일부 약물 제외)가 웹상에 표현 되어야 함
웹 서비스 기능	○ 부수 색인 검자, 총획 색인 검자, 자음 색인 검자 등을 지원하는 검자(檢字) 서비스 ○ 풀텍스트 검색, 분류별 검색을 지원하는 검색 서비스 ○ 이체자・동의어・참고어 링크 지원 ○ 고문자 및 삽도 등 이미지 활용 서비스

(2)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2010.6~2013.6)

한편 위의 '한한대사전 통합DB 구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년 6월부터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초사전편찬 분야에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과제가 선정되어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 결과 2009년 말에 세워진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을 통합하는 후속사업 계획은 수정되어 기

86) 김지영,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동양학』 54, 2013, 226쪽.
87) 윤승준 외,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DB구축과 웹서비스」, 『한국학 사전 편찬 방법론의 모색』, 지식과교양, 2013, 427쪽.

계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정비와 웹폰트 개발을 2013년 6월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학연구원은 2012년 4월 12일 '(주)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업체가 보유한 함초롬 글꼴을 대상으로 290개의 구건(構件)[88]을 확정하고, 19,780개의 수정자를 추출하여 자형정비를 진행하였다.[89] 이를 통하여 『한한대사전』을 웹서비스할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함초롬체'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한자 자형의 오류 및 일본이나 중국식 자형으로 잘못 등록된 한자 자형의 정비, 음훈 정보가 없는 2만여 한자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일반 이용자는 물론, 연구자와 학계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폰트개발업체인 '서울시스템주식회사'와도 제휴하여 'Neo-Ext 폰트(가칭)에 기반한 웹폰트'의 온라인상에서의 사용권과 배포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고 『한한대사전』 조판용 서체에 기반한 온라인용 웹폰트인 '서울단국대체'를 확보하였다.[90] 이는 기존 종이 『한한대사전』에 조판용으로 사용된 폰트인 Neo-Ext 폰트를 온라인용으로 전환한 독자적인 웹폰트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91]

구분	내 용
구입 제품	'한한대사전 조판용 서체'에 기반한 웹폰트
제품 내역	① 웹폰트 총 글자 수 : 63,446개 ② 제품 형태 : TTF(True Type Fonts) ③ 폰트 코드 : 유니코드

또한 한국학기초사전편찬 과제의 계획에 따라 『한한대사전』 1~9권 범위의 용례 증보가 진행되어 14,505개의 용례가 증보되었다. 이는 기존에 채록된 표제자와 표제어휘를 기본으로 정확한 주석과 이를 방증하기 위한 적절한 용례를 증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은 용례를 확인하여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한국한자어사전』이 『한한대사전』에 통합됨으로써 한국자료가 많이 반영되었지만, 『한한대사전』은 한자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자료 위주로 편찬되었고, 『한국한자어사전』은 우리나라 고유의 표제자나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한대사전』에 있는 표제자나 어휘에는 한국 문헌 자료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었다.

증보작업의 진행은 『한한대사전』 수록 어휘의 용례 증보를 우선순위로 하였다. 먼저 증보할 어휘를 선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선정된 어휘에 대한 용례 증보를 진행하였다. 이때 한국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사·자·집(經史子集) 가운데 주로 '史'와 '集'에 중점을 두었다.[92]

88) '구건(構件)'이란 현대 한자학의 한 분야인 구형학(構形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정형도, 「『한한대사전』의 구건과 자형 정비」, 『동양학』 52, 2012, 168쪽).

89) 함초롬체 자형 정비 작업은 2012년 12월 완료되었다. 이로써 유니코드 전체 영역 7만여 자의 한자가 일관된 논리를 기준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되었고, 정비된 함초롬체 한자 폰트는 2013년 10월에 출시된 ㈜한글과컴퓨터의 '한글오피스2014' 제품에 반영되었다.

90) 김지영,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동양학』 54, 2013, 237~238쪽.

91) 위의 책, 238쪽.

이상 2010년 6월부터 진행된 한국학기초사전편찬 과제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당초계획	실적
웹폰트 정비 및 개발	폰트 구축대상 분석 / 개발방법론 정립	폰트 구축대상 분석 / 개발방법론 정립 완료
	필요 폰트 개발 착수 / 개발 폰트의 점검	- 필요 폰트 개발 착수 / 개발 폰트의 점검 완료 - ㈜한글과컴퓨터의 '함초롬체' 자형 정비 및 유니코드 기반의 '함초롬체' 웹폰트 확보 - '『한한대사전』조판용 서체'에 기반한 독자적인 웹폰트 ('서울단국대체') 확보
	개발된 폰트 영역확보(국제표준) 및 폰트간의 관계 설정 목록화	개발된 폰트 영역확보(국제표준) 및 폰트간의 관계 설정 목록화 완료
통합사전 편찬	『한국한자어사전』 1권 一部~3권 皿部, 『한한대사전』 1~9권 용례 증보	- 『한국한자어사전』 1권 一部~3권 皿部, 『한한대사전』 1~9권 용례 증보 - 통합 매뉴얼 개발 - 증보 매뉴얼 및 증보자료채록 매뉴얼 개발
	증보된 용례의 데이터 편집 및 변환 점검	증보된 용례의 데이터 편집 및 변환 점검 완료
	증보된 용례의 구성과 정확성 점검	증보된 용례의 구성과 정확성 점검 완료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연구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름	참여 구분	참여 기간	비고
서영수	연구책임자	2010. 06~2011. 08	동양학연구원장
	공동연구원	2011. 10~2013. 06	
윤승준	연구책임자	2011. 09~2013. 06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장
정재철	공동연구원	2010. 06~2013. 06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장
김문식	공동연구원	2010. 06~2011. 09	동양학연구원 연구실장
김새미오	전임연구원	2010. 06~2010. 08	
김정민	전임연구원	2010. 06~2012. 10	
정형도	연구보조원	2010. 06~2010. 09	
	전임연구원	2010. 09~2013. 06	
박승범	전임연구원	2012. 06~2013. 06	
강경희	전임연구원	2012. 12~2013. 03	
김인홍	연구보조원	2010. 09~2013. 06	

92) 윤승준 외,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DB구축과 웹서비스」, 『한국학 사전 편찬 방법론의 모색』, 지식과교양, 2013, 425쪽.

이름	참여 구분	참여 기간	비고
홍현정	연구보조원	2010. 11~	단기 충원
이선화	연구보조원	2010. 11~	단기 충원
김현정	연구보조원	2012. 06~2013. 06	
임연지	연구보조원	2012. 06~2013. 06	

한편 이 사업은 기존 편찬원들과 과제연구팀이 조화를 이루어 진행하였다. 당시 참여하였던 편찬원은 김지영 · 박찬규 · 윤현희 · 정도상 · 정동화 · 정석용 · 정태윤 등이었는데, 이 중 정동화가 2010년 12월에 사직하였고 2013년 2월에 정석용이 퇴직하였다. 아울러 이 사업 기간 중간에 황연정 · 이정홍 · 이송희가 계약직으로 참여하였다.

(3)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2014.1~2017.12)

위에서 살펴본 2009년 12월부터 진행된 DB 구축업체와의 용역사업과 2010년 6월부터 진행된 한국학기초사전 편찬사업은 웹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및 통합DB 구축과 통합편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데이터를 기계적으로만 통합하는 것이 주목표였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화학적인 통합이 남겨진 과제였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기 구축된 통합사전편집기(통합편집프로그램)를 활용하여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 두 사전의 본격적인 내용통합을 진행하게 되었다.[93] 따라서 그 작업 범위는 『한한대사전』 전15권과 『한국한자어사전』 전4권의 전체 내용이 해당하였다. 이 통합작업 범위를 표제자와 표제어휘 및 용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	구분		수량(개수)	
내용통합	표제자	한한대사전 단독	49,423	54,596
		공통	4,997	
		한국한자어사전 단독	176	
	표제어휘	한한대사전 단독	404,185	493,890
		공통	15,945	
		한국한자어사전 단독	73,760	
	용례	한한대사전 단독	955,620	1,056,736
		한국한자어사전 단독	101,116	

93) 이 사업계획은 2013년 하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3월 3일 학교당국으로부터 원안결재를 받았다. 한편 이 사업에는 이건식 편찬실장 책임하에 김세봉 · 김지영 · 박찬규 · 윤현희 · 정도상 · 정태윤 등 편찬원과 계약직 이정홍 · 이송희가 참여하였다. 이 중 이정홍과 이송희는 사업 시작 1년 내에 계약만료로 면직되었다.

이 같은 범위의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의 진행은 기초 준비과정인 선행작업, 본격적 내용통합을 하는 본작업, 전체적 정비를 하는 후행작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물론 내용의 특성상 작업 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94]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사전의 공통표제자와 공통표제어휘의 통합이었다. 이를 위하여 일반 통합매뉴얼 외에 특별히 '공통표제자·공통표제어휘 통합업무 처리방법'이라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통합 작업의 전체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구 분	기 간	내 용
선행작업	2014. 01~2014. 06	- 통합작업 매뉴얼 정비(2개월) - 공통표제자·공통표제어휘 내용통합 등 선행작업(4개월)
본작업	2014. 07~2015. 06	- 1~5권 통합작업 진행 (12개월, 『한한대사전』을 기준으로 『한국한자어사전』의 내용 통합)
	2015. 07~2015. 08	- 통합작업 1단계 검수(외부, 내부) 및 수정 보완(2개월) : 1~5권 분량
	2015. 09~2017. 07	- 6~15권 통합작업 진행 (23개월, 『한한대사전』을 기준으로 『한국한자어사전』의 내용 통합)
	2016. 11	- 통합작업 2단계 중간 내부검수 및 수정 보완 : 6~10권 분량
	2017. 09~2017. 10	- 통합작업 2단계 검수(외부, 내부) 및 수정 보완(2개월) : 외부 6~15권, 내부 11~15권 분량
후행작업	2017. 08~2017. 12	- 동의어 및 참고어 관계번호 확인 등 후행작업(5개월)

※ '공통 표제자' 및 '공통 표제어휘'는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두 사전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표제자 및 어휘를 말함.

위의 작업을 통하여 사업 시작 때에 비해 표제자는 762개가 감소했고, 표제어휘는 190개가 감소하였으며 용례는 29,120개가 증가하였다.[95]

업무	구분	계획 당시 수량	내용통합후 수량	증감
내용통합	표제자	54,596	53,834	-762
	표제어휘	493,890	493,700	-190
	용례	1,056,736	1,085,856	+29,120

94) 예를 들면 표제어휘의 본음과 관용음 처리는 선행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기존 종이사전에서 작업기준이 되는 표지가 누락된 경우가 간혹 발견되어 본작업 중에도 처리해야 하는 일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95) 이 변화된 수치는 2010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초사전편찬' 사업 때의 결과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표제자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종이사전의 표제자 중복, 근거 부족 등의 사유가 발견되어 삭제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기존 종이『한한대사전』과『한국한자어사전』에는 방대한 양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기에 현재 웹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유니코드 BMP(기본영역)나 B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가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비표준문자에 대하여 DB의 검색과 갱신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들 문자의 수록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극히 희소하게 쓰여 전문 자전용에 쓰일 한자들은 삭제 처리하였다. 또한 조판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파일을 1차 변환한 뒤 깨진 문자에 대한 정보를 DB에 반입한 후 재변환(2차 변환)한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유니코드 값의 표제자가 중복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표제자들을 모두 추출하여 검토한 뒤 재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표제자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표제어휘에 대한 감소는 주로 내용통합을 하는 본작업 과정과 참고어나 동의어 등의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우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어휘로서 내용이 부적절하다든지 어휘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어휘끼리의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어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어휘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용례의 경우는 작업과정에서 각종 인터넷 정보의 활용으로 새로운 용례들을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증가된 29,120개의 용례는 2010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초사전편찬 사업 때 증보된 14,505개가 포함된 수치이다. 따라서 2014년부터 진행된 내용통합 본작업 기간에는 14,615개의 용례가 증보된 셈이다. 이는 기존 용례 대비 2.75%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수와 자문을 시행하였다. 검수는 2차에 걸쳐 외부전문가 검수를 실시하였고 3차에 걸쳐 내부교차 검수를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가 검수는 통합된 내용에 대한 편집기상 구현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검수와 통합현황을 DBMS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기계검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가 검수

차수	기간	범위	분야	위원
1차	2015.03.17 ~ 2015.04.30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통합작업 결과물 중『한한대사전』 기준 1~5권 분량	내용 검수	정재철(단국대 사범대학 학장) 윤승준(단국대 교양기초교육원 부원장) 정형도(한국고전번역원 전문역자)
			기계 검수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실장) 이재옥(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 전임연구원)
2차	2017.09.22 ~ 2017.10.31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통합작업 결과물 중『한한대사전』 기준 6~15권 분량	내용 검수	정재철(단국대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수) 윤승준(단국대 미래교육혁신원 원장) 정형도(한국고전번역원 전문역자)
			기계 검수	양창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실장) 이재옥(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전임연구원)

내부교차 검수

차수	기간	범위	분야	위원
1차	2015.06.24~ 2015.06.29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통합작업 결과물 중 『한한대사전』 기준 1~5권 분량	내용검수	편찬원(6명)
2차	2016.11.07~ 2016.11.10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통합작업 결과물 중 『한한대사전』 기준 6~10권 분량	내용검수	편찬원(6명)
3차	2017.10.16~ 2017.10.27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통합작업 결과물 중 『한한대사전』 기준 11~15권 분량	내용검수	편찬원(6명)

아울러 이 사업의 작업방향과 원활한 문자구현을 위하여 두 차례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편찬 자문

차수	기간	내용	위원
1차	2014.03.24~ 2014.04.04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과정에서 일본 고유한자 보완에 대한 자문	편무진(단국대 일본어과 교수)
2차	2016.11.07~ 2016.11.10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의 비표준문자 90개의 웹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한 자문	표승주 (㈜베커소프트 솔루션사업부 부장)

(4) 통합한한대사전 편찬의 의의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을 통합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은 이상과 같이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년여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되었다.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은 일반 어휘는 물론 제도어와 종교어 등의 전문어, 인명・지명・동식물명・광물명 등의 고유명사도 수록하여 백과사전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어휘와 함께 정확하고 풍부한 용례를 수록하고 있어 이용의 범위가 매우 넓다.[96]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 데다가 두 종의 사전으로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였고, DB구축 또한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에 한계가 따랐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전의 통합 DB구축은 향후 웹서비스를 통한 접근성 및 활용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즉 표제자 총 5만 3천여 자, 어휘 총 49만여 개를 수록한 방대한 규모의 한자사전을 웹 기반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웹서비스를 위한 자형표준화는 서체 난립 현상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한자 학습과 검자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표준한자 제정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97]

96) 정재철, 「『한한대사전』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의」, 『동양학』 46, 2009, 330쪽.
97) 정형도, 「『한한대사전』의 구건과 자형 정비」, 『동양학』 52, 2012, 168~169쪽.

4) 이두사전 편찬

편찬실에서는 2016년 6월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한국한자어사전』 웹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한국한자어사전』의 5년간 자료 사용로로 우리 학교에 1억 5천만원을 지불하였다.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에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연구비를 이두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두사전 편찬 작업은 2016년 11월에 시작하여 1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8년 2월에 출간하기로 예정되었으며, 이두사전 편찬의 당초 계획은 『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이두 자료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전기)의 이두 자료를 추가하여 사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으로 책임은 당시 편찬실장인 이건식 교수가 맡고 자문위원은 남풍현(전 단국대)·황선엽(서울대)·김성주(동국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실제 집필은 이용(서울시립대)·박용식(경상대)·오창명(제주관광대) 교수가 담당하였다. 편찬실에서는 『한국한자어사전』 이두 자료를 출력 제공하고 새로 수집된 이두 용례의 원문 대조작업을 하였다. 2017년 12월에 마무리된 이두사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98]

구분	당초 수량	달성 수량	증감
표제어	1,461	2,427	966
용례	4,167	6,867	2,700
표제어해설	0	2,427	2,427

『한국한자어사전』의 이두 자료에 비교해서 표제어와 용례의 측면에서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된 이두사전이 편찬되었으며 표제어해설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두사전이 제시하지 못했던 이두 토의 형태소 구성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새로이 편찬된 이두사전에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이두가 충실히 채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이두사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편찬된 이두사전에 채록된 조선시대의 이두는 매우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반성에 따라 연구 책임자 이건식은 2018년 1월부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이두를 보다 정밀하게 채록하는 한편, 조선시대 이두를 대규모적으로 채록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학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정보시스템에는 다량의 이두 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연구 책임자 이건식은 컴퓨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이두를 대규모적으로 채록하였다. 2020년 5월 31일에 마무리된 이두사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98) 이 수치는 2018년 1월 25일에 제출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이두사전과제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그 뒤 2020년 발간되기까지 많은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구분	한국한자어사전 이두 자료	2017년 12월 이두사전	2020년 5월 이두사전
표제어	1,461	2,427	4,387
용례	4,167	6,867	12,828
표제어해설	0	2,427	4,387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교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교정 작업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용례의 빈도가 1인 경우를 빈도가 2이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약간의 표제어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600여 개의 용례가 새로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편찬된 이두사전은 2020년 9월 20일 출간될 예정에 있다.

그간 이두사전은 한두 종이 나왔으나 기초자료의 한계로 수록된 내용이 부족하였고 이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이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두 자료가 새로 발굴되고 전자화가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연구업적이 축적되었고,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가 새로이 발굴되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이두의 문법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구결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에 의해 그 길이 개척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원의 이두사전이 편찬된 것이므로 우리 연구원의 이두사전은 독자들에게 이두에 대한 방대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학 연구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5) 한국고유한자자전 편찬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이후 국학 전문기관 등을 주축으로 원전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시켜 한국학 관련 자료들이 웹상에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는 한국 원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원전자료들과 연구 결과물들이 데이터화되어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원전자료를 이용하다 보면 알 수 없는 한자들이 출현하여 내용파악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이들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했던 한국 고유한자들이다. 이때 이들 한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한 사전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고유한자에 관한 전문사전은 『한국한자어사전』이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한자어사전』이 출간된 지도 20년을 훌쩍 넘겼다. 이 때문에 새로 발굴된 많은 고유한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한자어사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고문헌 자료에서 새로 발굴한 한국 고유한자를 증보하여 새로운 사전을 편찬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편찬실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기간으로하는 '한국고유한자자전 편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당국의 원안결재를 얻고 사업을 시작하였다.[99] 이 자전은 약 3,000자의 한국 고유한자를

수록하고 자형, 자음, 자의, 용례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편찬작업의 대상은『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한 국자·국음자·국의자 그리고 기존 연구논저에서 한국 고유한자로 지목한 한자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여 수록한다. 다음은 유니코드에 등록된 단독 KC코드, 단독 KS코드, 단독 KP코드를 검토하여 선별 수록한다. 이들은 남북한에서 단독으로 국제유니코드위원회에 상정한 한자로 한국 고유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대상으로 한다. 이외에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시 수집된 유니코드 미등록 한자 중에도 한국 고유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료도 작업대상에 포함시킨다. 본 사업은 이상 네 가지 종류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자)
『한국한자어사전』	국자, 국음자, 국의자	534
연구논저	한국 고유한자	약 600
유니코드 등록 남북한 단독코드 한자	KC코드	1,700
	KS코드	916
	KP코드	105
	{KS+KP}코드	20
유니코드 미등록 한국코드 한자	KC코드	8,718
총계		약 12,593

※ KC코드, KS코드 : 한국의 독자적인 코드가 부여된 한자
※ KP코드 : 북한의 독자적인 코드가 부여된 한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3,000자의 한국 고유한자가 수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물은 웹사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수요가 있을 경우 종이사전으로 동시 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 자전은 상업성보다는 기초 연구서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학 분야에서 단국대학교와 동양학연구원의 독보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사전편찬의 외연 확장

(1)『한국한자어사전』과『한한대사전』CD-ROM 제작

『한국한자어사전』과『한한대사전』의 CD-ROM 제작문제는 이들 사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2000년대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이 전통문화의 현

99) 2018년 4월 18일 총장결재된 이 사업은 김우정 편찬실장 책임하에 김지영·박찬규·윤현희·정도상·정태윤 등 5명의 실무 편찬인원으로 시작하였다.

대화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고전문헌 해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구서의 편찬과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문자코드(유니코드)에 기반한 사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즉 한자사전의 정보화는 21세기 국가역량의 기본이 되는 지식기반 문화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초로 한중일 3국의 현행 통용 한자를 대부분 수록하고 있는 『한한대사전』은 적합한 대상이었다. 이에 편찬실에서는 당시 진행 중인 『한한대사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CD-ROM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100] 그러나 여건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미루어지고, 'CD-ROM 제작 및 간이DB검색 S/W개발'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이 단국대학교와 서울시스템주식회사 간에 2001년 8월 27일 맺어졌다. 계약 기간은 5.5년으로 되어 2007년 2월 28일 이내로 조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업 결과물은 이 기간 내에 납품되어야 했다. 그러나 『한한대사전』 편찬이 지연됨에 따라 그 날짜는 미뤄져야 했다. 이 외에도 용역 업체와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계약문제가 맞물리면서 CD-ROM 제작은 차일피일 연기되었다.

그 뒤 2008년 9월 『한한대사전』이 완간되면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아울러 구축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서비스할 경우에 대비한 웹폰트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에 2012년 ㈜한글과컴퓨터와의 '함초롬체' 사용권 확보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편으로는 서울시스템주식회사와 '『한한대사전』 조판용 서체를 대상으로 제작한 웹폰트'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때 이 계약을 맺으면서 지지부진하던 CD-ROM 제작까지도 해결하게 되었다. 즉 기존 『한한대사전』 외에 『한국한자어사전』의 검색 가능한 CD-ROM까지 서울시스템주식회사에서 추가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2013년 11월 8일자로 제작되어 납품되었다. 납품 내역은 『한한대사전』 16개(색인 포함), 『한국한자어사전』 4개의 검색 가능한 CD-ROM이다.

(2) 한국한자어사전 네이버 웹서비스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은 완간이후 학계와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2015년 즈음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웹서비스되고 있는 한자사전은 전문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의 요구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의 웹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이었지만, 당시 두 사전을 통합 중이어서 우선 『한국한자어사전』 만이라도 웹서비스하여 한자사전 분야에 공헌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후반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2016년 6월 1일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한국한자어사전』 웹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년여간 ㈜네이버와 편찬실은 상호 협력하에 본격적인 『한국한자어사전』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년 9월부터 정식 웹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 네이버 웹서비스를 위한 『한국한자어사전』 데이터 정비 및 기타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101]

---

100) '한한대사전 CD-ROM 개발 사업계획서'(2000.4),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01) 동양학연구원 편찬실,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완료보고서」, 2018. 2, 참조.

구분	작업 내역	비고
문건 작성	네이버 웹서비스 계약서 작성	
	네이버 웹서비스 현황 발표 자료 작성	제8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학술회의 발표용/ 근역한문학회 2017년 추계 기획학술대회 발표용
	네이버 웹서비스 업무 관련 회의 자료 준비 및 협의	
기본 데이터 출력	〈한국한자어사전〉 네이버 제공 파일 작업(표제자 기본 정보, 표제자의 주석과 용례, 표제어휘의 주석과 용례)	
저작권 검토	네이버웹서비스 사업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국자, 이두, 구결, 불교, 지명, 역사 등의 항목에 한하여 수행)	'이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저작권 침해 없음으로 판단되었음
	이두 용례 증보	
	국자 용례 증보	저작권 침해 없음으로 판단되었으나, 용례 보강 및 기존 연구 저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작업함
표제자 정비	표제자 독음, 국음, 국자, 부수, 획수, 부수획수, 총획, 유니코드 수정	
	표제자 자해, 국의, 국자원 정비	
표제어휘 정비	표제어휘 중 인명 삭제	인명 관련 이의제기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함
	표제어휘 뜻갈래 번호 정비	
	표제어휘 동의어, 참고어 관계 어휘 정비	
	표제어휘 주석 검토 및 수정(오타, 띄어쓰기 등)	
이미지 정비	삽도와 테이블 유무 확인, 매칭, 스캔 작업	
폰트 정비	웹서비스 미구현 한자(비표준문자, 비노출문자) 처리	
검수	네이버 최종 웹서비스 화면 구성, 웹디자인 및 내용 검수	

네이버를 통한『한국한자어사전』웹서비스는 2017년 9월부터 5년간 실시되는데『한국한자어사전』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인명을 제외하고 8만 599개의 표제어휘, 6만 8,559개의 용례가 그 대상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고의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본교의『한국한자어사전』을 웹서비스 함으로써 대학의 막대한 홍보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전의 대국민 웹서비스를 통하여 국학 및 관련 분야에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편찬역량 제고 활동

1) 동양학연구소 월례연구토의회 참여

동양학연구소에서는 1972년부터 연구원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연구토의회(현재의 정기연구발표회)를 가져

왔다. 연구원들의 개인적 연구나 『이십오사』 발췌 정리 작업중에 보이는 문제들을 주제로 발표 토의하였으며, 연구소를 방문하는 저명한 외국학자와 좌담을 하거나 강연을 듣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102] 편찬실에서는 동양학연구소의 이 월례 연구토의회를 활용하여 『한한대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요 문제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한한대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다.[103] 이 연구토의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사전편찬과 관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104]

이강로, 「문법적 모호성과 그 사전처리의 문제점」(1981.11.24 제63회)
이충구, 「한국한자에 대한 문자학적 고찰」(1982.3.23 제66회)
이강로, 「차자어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1982.4.26 제67회)
김영만, 「한한사전에서의 한자음」(1982.11.29 제68회)
이강로, 「어휘의 고증과정에 대하여-상방정례의 진상의류를 대상으로-」(1983.5.23 제71회)
이강로, 「동형어휘의 처리요령」(1984.9.14 제76회)
홍순석, 「한자어 주석상의 관련어 처리에 대하여」(1984.11.16 제77회)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1)」(1984.12.11 제78회)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2)」(1985.2.19 제80회)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3)」(1985.4.12 제82회)
김윤우, 「한국 고지명에 대한 소고」(1985.4.18 제83회)
김동길, 「사전주석에 대한 제문제」(1985.5.17 제84회)
서지원, 「한한대사전의 컴퓨터편찬조판에 대하여」(1986.5.9 제86회)
김동길, 「한한대사전 편찬지침(시안)에 관한 연구(1)」(1986.6.17 제87회)
김동길, 「한한대사전 편찬지침(시안)에 관한 연구(2)」(1986.7.8 제88회)
서지원, 「한한대사전의 편찬과 컴퓨터인쇄」(1986.9.9 제89회)
서지원, 「사전편찬과 컴퓨터인쇄(2)」(1987.3.19 제90회)
서지원, 「사전출판에 있어 컴퓨터 이용의 국내외 동향」(1988.5.20 제96회)
이강로, 「사전적 처리에서 본 중국음과 한국음」(1990.3.26 제107회)
이건식, 「『한국한자어사전』 미수록 『조선왕조실록』 한국한자어에 대하여」(2016.5.30 제153회)
박찬규, 「『한한대사전』 한자 자음의 갈래와 유형분류」(2016.5.30 제153회)

2) 동양학간보 발간

『동양학간보』는 민족문화와 동양문화 전승을 위한 대화·교양지로서의 모토를 내걸고 1984년 창간되었다. 이후 1990년 4월 10호가 발간된 뒤 중단되었다가 2001년 1월 11호가 속간되었고 2004년 12월 15호까

102) 「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490~491쪽.
103)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55쪽.
104) 이 목록은 윤승준의 윗글(155~156쪽)의 것을 골간으로 삼고, 『동양학』 휘보와 「동양학연구소 약사」(『동양학』 20, 1990, 493~494쪽)를 참고하여 보충하였다.

지 발간한 뒤 다시 중단된 상태이다.

『동양학간보』는 간행되는 동안 동양학연구소의 학술지『동양학』의 자매지로서 한동안 학계와의 대화창구 역할을 하였다. 특히『한한대사전』편찬작업을 사계에 알리고 토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련 소식을 학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 주었다. 이에 편찬실에서는『한한대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을 그때그때『동양학간보』에 게재하여 사계의 지혜를 모으려는 시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일개 사학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벅찬 국가적 대사업을 내외에 알려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 국민 모두가 이 사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실『동양학간보』는『한한대사전』편찬을 위한 편찬실의 기관지로서 소임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찬실 및 외부에서『동양학간보』에 게재한 글들 가운데『한한대사전』및『한국한자어사전』편찬과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찬실,「우리식 한자어 풀이(Ⅰ)」(1984.12.30 제1호)
이강로,「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Ⅰ)」(1984.12.30 제1호)
편찬실,「우리식 한자어 풀이(Ⅱ)」(1985.9.30 제2호)
김동길,「'歪'字音考」(1985.9.30 제2호)
이강로,「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Ⅱ)」(1985.9.30 제2호)
편찬실,「우리식 한자어 풀이(Ⅲ)」(1985.12.30 제3호)
편찬실,「한한대사전 시안본」(1985.12.30 제3호)
이강로,「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Ⅲ)」(1985.12.30 제3호)
김능하,「기간 사전에 나타난 오류고(Ⅰ)－대한화사전·중문대사전을 중심으로－」(1985.12.30 제3호)
서지원,「한한대사전 편찬·인쇄의 컴퓨터활용 방안 검토」(1985.12.30 제3호)
김선기,「한한대사전 편찬을 기리며」(1985.12.30 제3호)
김동길,「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Ⅰ)」(1986.6.30 제4호)
편찬실,「우리식 한자어 풀이(Ⅳ)」(1986.6.30 제4호)
김능하,「기간 사전에 나타난 오류고(Ⅱ)－대한화사전·중문대사전을 중심으로－」(1986.6.30 제4호)
차주환,「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과 교열」(1986.6.30 제4호)
송방송,「한한대사전 시안본에 대한 의견」(1986.6.30 제4호)
특집,「한한대사전 시안본에 대한 각계의 의견」(1986.9.30 제5호)
김동길,「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Ⅱ)」(1986.9.30 제5호)
김동길,「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Ⅲ)」(1987.3.30 제6호)
김동욱 외,「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1987.3.30 제6호)
김동길,「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Ⅳ)」(1987.10.15 제7호)
이강로,「사전편찬에 있어서의 한문해석의 중요성－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에서－」(1987.10.15 제7호)
김동길,「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Ⅴ)」(1988.10.15 제8호)
송방송,「한국한자어사전 시안본에 대한 의견」(1988.10.15 제8호)
편찬실,「한한대사전의 집필 및 편찬방향」(1988.10.15 제8호)

김동길,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Ⅵ)」(1989.6.15 제9호)
편찬실, 「한국한자어사전에서의 난해 어휘(Ⅰ)」(1990.4.30 제10호)
편찬실, 「한한대사전 3권 발간과 향후 계획」(2001.1.25 제11호)
황패강, 「열정들의 결정체, 한한대사전」(2001.10.20 제12호)
김영수, 「편찬실 중장기 발전계획」(2001.10.20 제12호)
편찬실, 「한한대사전에의 꿈 - 사전이 기획되기까지 -(『동양문화와 한자사전』, 1999 게재글 재수록)」 (2003.12.15 제14호)
김능하, 「漢韓大辭典文字註釋簡介」(2004.12.25 제15호)
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실 小史(1)」(2004.12.25 제15호)

위의 글들은 『한한대사전』이나 『한국한자어사전』 편찬과정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내외에 공개함으로써 사전 발간에 앞서 일어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한한대사전 시안본'에 대한 각계의 의견[105] 제시는 『한한대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횡서'와 '종서'의 문제, 약물 표시 방법, 한자음의 표기 방법, 조선왕조실록의 권수와 연월일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 『이십오사』의 원전 표기 시 권수 표기 문제, 누락된 어휘 보충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제공, 주석의 문제, 사전의 체재, 나아가 판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줌으로써, 편찬실로서는 이용자들에게 환영받는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한다.[106]

3) 동양학자료실 운영

동양학자료실은 동양학연구소의 연구활동과 편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0년 9월 발족한 연구소와 함께 설립되었다. 본 자료실은 당초 '동양학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는데 사찰 불교전적 300여 책과 장충식 당시 총장이 대만에서 구입한 『사부비요』 등 다수의 중국 전적 1,000여 책을 기반으로 업무가 시작되었다.[107] 이후 동양학 연구에 필요한 기본 사전류 및 문·사·철 학문분야에 걸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늘어나는 장서의 보관과 관리문제로 2001년 퇴계기념중앙도서관으로 자료를 이관하여 통합관리되어 오다가, 2010년 9월 퇴계기념중앙도서관 6층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동양학자료실로 재개관하였다. 현재 고도서 1,968종 7,932책, 일반도서 21,175책 등 총 29,107책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자료에는 『문연각사고전서』·『사부비요』·『사부총간』·『예문인서관본 이십오사』 등 귀중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한국한자어사전』·『한한대사전』 완간과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및 『이두사전』 편찬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고유한자자전』 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105) 송방송(영남대 교수)·김민수(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김이곤(상일여고 교사)·김지용(전 세종대 교수)·남풍현(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박병채(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최범훈(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황패강(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이 의견을 주었다.
106)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58쪽.
107) 「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518쪽.

4) 해외 시찰

일찍이 동양학연구소 제4대 소장으로서 『한한대사전』 간행의 책임을 맡고 있던 김동욱 박사는 편찬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일본이나 중국의 사전편찬 현장견학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108] 이에 따라 1985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강로 편찬실장이 일본·대만 등에 자료수집차 다녀왔고,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김동길 편찬원이 일본·대만 등에 자료수집차 다녀왔다. 이때의 성과로 우리 사전의 컴퓨터 식자조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컴퓨터 조판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시찰하기 위하여 1986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지원과 이현식 편찬원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9월 9일, 동양학연구소 제89회 월례발표회에서 서지원 편찬원이 「한한대사전의 편찬과 컴퓨터 인쇄」를 발표하는 등 사전편찬의 컴퓨터 활용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ISO(국제표준기구) 산하 CJK-JRG(한중일 통합한자연구그룹)나 IRG 위원으로 활동하여 온 서지원 편찬원의 경우에는 해당 그룹이나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 한국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사전편찬과 관련한 국제적 이슈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그에 따라 서지원 편찬원은 1992년 하와이에서 열린 CJK-JRG 제5차 회의(11.30~12.6)에 다녀올 수 있었으며, 1994년 북경에서 열린 IRG 제3차 회의(8.29~9.2)에도 한국대표단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109]

5) 사전학학술회의 개최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은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을 편찬한 업적과 성과를 계승하고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발전과 사전학의 이론적 모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전학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전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기회로 삼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아시아 사전학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자 자형 표준화 및 한자사전의 웹정보화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개최되었던 사전학학술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東亞細亞 사전의 역사와 미래
- 날　　짜 : 2008. 12. 17
  1. 『漢語大詞典』的編纂過程和內容特點
     - 발표 : 金健人(浙江大)
  2. 古今共構, 內外互補
     - 발표 : 沈寶春(國立成功大學)

108) 김동욱, 「동양학연구소장 就任寸感」, 『동양학간보』 1, 1984, 45쪽.
109)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158~159쪽.

3. 日本における漢字辭典の歷史
   • 발표 : 森博達(京都産業大)
4. 『한한대사전』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
   • 발표 : 정재철(단국대)
5. 국어사전의 현황과 미래
   • 발표 : 정희창(국립국어원)
6. 유니코드 한자사전의 편찬과 그 방향
   • 발표 : 정우봉(고려대)

제2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현황과 과제
- 날　　짜 : 2011. 2. 18

1. 중국 역사언어사전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강용중(성균관대)　　• 토론 : 임병권(충주대)
2. 중국 고전텍스트사전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이동철(용인대)　　• 토론 : 원창애(한국학중앙연구원)
3. 일본 한자사전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장원재(계명대)　　• 토론 : 정형(단국대)
4.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
   • 발표 : 정재철(단국대)　　• 토론 : 이건식(한국학중앙연구원)

❑ 종합토론
   • 좌장 : 김문식(단국대)

제3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동아시아 고유한자의 국제표준화와 사전편찬
- 날　　짜 : 2012. 2. 10

* 기조강연 : 한한대사전 보완 방법의 제안
   • 발표 : 홍윤표(전 연세대 교수)

1. 한국 고유한자의 발달 유형에 대하여
   • 발표 : 이건식(단국대)　　• 토론 : 신상현(고려대)
2. 日本の国字の形成方法の主要パターン及びその歷史について
   • 발표 : 笹原宏之(早稲田大)　　• 토론 : 박진호(서울대)
3. 契丹大、小字的类型及研究现状(거란 대・소자의 유형 및 연구 현황)
   • 발표 : 吳英哲(內蒙古大 蒙古學學院)　　• 토론 : 이성규(단국대)
4. 이두문 자료 어휘의 사전 편찬에 대하여 – 신라・고려를 중심으로 –
   • 발표 : 황선엽(서울대)　　• 토론 : 전덕재(단국대)

5.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 · 구결 · 차자 어휘의 출전문헌
   • 발표 : 박찬규(단국대)　　• 토론 : 장윤희(인하대)
6. 한한대사전 한자자형과 웹폰트에 대하여
   • 발표 : 정형도(단국대)　　• 토론 : 김성주(동국대)

❑ 종합토론
   • 좌장 : 윤승준(단국대)

제4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동아시아 한자사전의 웹정보화 현황과 미래
- 날　　짜 : 2013. 2. 1

* 기조발표 : 인터넷 한자사전 리뷰
   • 발표 : 정철(다음커뮤니케이션)

1. 한국 한자사전의 웹정보화 현황과 미래
   • 발표 : 김정민(한국국학진흥원)　　• 토론 : 정도상(단국대)
2. 중국 한자사전의 웹정보화 현황과 미래
   • 발표 : 邵永海(北京大)　　• 토론 : 강용중(성균관대)
3. 일본의 웹 한자자전
   • 발표 : 沖森卓也(立教大)　　• 토론 : 이건식(단국대)
4. 대만 한자사전의 웹정보화와 미래
   • 발표 : 許學仁(東華大)　　• 토론 : 허철(성균관대)
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웹 서비스 정보
   • 발표 : 이승재(국립국어원)　　• 토론 : 도원영(고려대)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온라인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 발표 : 김창겸(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 이동철(용인대)
8.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 발표 : 김지영(단국대)　　• 토론 : 김종환(NHN)

❑ 종합토론
   • 좌장 : 윤승준(단국대)

제5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한국학 사전 편찬의 회고와 전망
- 날　　짜 : 2014. 2. 7

1. 중세 · 근대 · 개화기의 운서 · 자서 편찬의 역사
   • 발표 : 이준환(창원대)　　• 토론 : 김우정(단국대)
2. 18~19세기 백과전서학 고찰
   • 발표 : 정도상(단국대)　　• 토론 : 이향배(충남대)

3. 옛말·이두사전 편찬의 역사와 전망
   • 발표 : 이건식(단국대)　　• 토론 : 황선엽(서울대)
4. 한국사 사전의 편찬과 전망
   • 발표 : 김철웅(단국대)　　• 토론 : 원창애(한국학중앙연구원)
5. 한국 철학사전 편찬의 역사와 전망
   • 발표 : 이동철(용인대)　　• 토론 : 김학재(다산학술문화재단)

❑ 종합토론
   • 좌장 : 윤승준(단국대)

제6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한자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
- 날　　짜 : 2014. 10. 17

* 기조발표 : 한자·한문의 수용과 한자어 사전의 영역에 대하여
   • 발표 : 남풍현(단국대)

1. 『한한대사전』의 국자 처리에 대하여
   • 발표 : 이건식(단국대)　　• 토론 : 신상현(고려대)
2. 한자사전 표제어휘 선정 원칙과 방법에 대한 비교
   • 발표 : 정재철(단국대)　　• 토론 : 이동철(용인대)
3. 한자사전 자음 처리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비교
   • 발표 : 권인한(성균관대)　　• 토론 : 배은한(단국대)
4. 한자사전 뜻풀이 방법론
   • 발표 : 박진호(서울대)　　• 토론 : 황현국(단국대)
5. 한자사전 용례 선정 원칙과 실제
   • 발표 : 윤승준(단국대)　　• 토론 : 최태훈(한양대)

❑ 종합토론
   • 좌장 : 김영수(단국대)

제7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한국한자어사전 증보편찬 방향의 모색
- 날　　짜 : 2015. 10. 23

1. 우리말 불교용어와 『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증보 방향에 대7하여
   • 발표 : 김성주(동국대)　　• 토론 : 박병철(서원대)
2. 석독구결자료와 『한국한자어사전』
   • 발표 : 이병기(한림대)　　• 토론 : 황금연(전남대)
3. 국어사 한글자료에 포함된 한국한자어에 대하여
   • 발표 : 안대현(단국대)　　• 토론 : 이용(서울시립대)

4.『한국한자어사전』의 차자와 차자어, 이두와 이두어
- 발표 : 오창명(제주국제대) • 토론 : 황선엽(서울대)

5. 단어(명사, 동사) 및 단어 상당 구절에 후행하는 음독구결의 양상
- 발표 :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 • 토론 : 권인한(성균관대)

❑ 종합토론
- 좌장 : 전덕재(단국대)

제8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디지털시대 동아시아 한자사전 활용방안 모색
- 날 짜 : 2017. 11. 10

* 기조발표 : 한자사전의 현재적 의미와 개선 방안
- 발표 : 심경호(고려대)

1. 국내 중한사전 작업의 새로운 모색 및 활용 방안
- 발표 : 김현철(연세대) • 토론 : 배은한(단국대)

2. 日本『漢和辭典』의 歷史와 現狀
- 발표 : 阿辻哲次(漢檢 漢字博物館・図書館 漢字文化硏究所) • 토론 : 한원형(단국대)

3. 베트남 漢字사용과 漢字辭書 편찬 현황 및 전망
- 발표 : 阮文康(越南語言硏究院) • 토론 : 윤승준(단국대)

4.『異體字字典』의 應用과 未來
- 발표 : 李添富(輔仁大學 中國文學系) • 토론 : 신상현(고려대)

5.『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 경과와 미래
- 발표 : 박찬규(단국대) • 토론 : 김학재(세명대)

◎ 네이버 韓國漢字語辭典 소개
- 김지영(단국대)

❑ 종합토론
- 좌장 : 정재철(단국대)

제9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한국 고유한자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날 짜 : 2018. 9. 20

1. 한국 고유한자의 양상 - 정의와 분류를 중심으로 -
- 발표 : 허철(단국대 HK플러스사업단)

2.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전파
- 발표 : 권인한(성균관대)

3. 국제문자코드에 등록된 한국 고유한자 연구
- 발표 : 신상현(고려대)

4.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 발표 : 이건식(단국대)
5. 한국문헌 소재 이체자 정형화 방안－口와 目이 포함된 자형을 중심으로－
   • 발표 : 조성덕(성균관대)

❑ 종합토론
   • 좌장 : 김우정(단국대)

제10회 사전학학술회의

- 공동주제 : 한자의 통변과 창신
- 날　　짜 : 2019. 10. 18

1. 글로벌 관점에서 본 漢字 연구
   • 발표 : 李國英(北京師範大學 民俗典籍文字研究中心)
2. 江戶時代 醫學文獻 번역과정에서 나타난 和製漢字 연구
   • 발표 : 町 泉壽郎(二松學舍大學)
3. 한자 자원 연구 방법론과 한국 고유한자
   • 발표 : 양원석(고려대)　　• 토론 : 서한용(고려대)
4. 한국 고대 목간 및 금석문에 보이는 고유한자의 양상과 성격
   • 발표 : 윤선태(동국대)　　• 토론 : 전덕재(단국대)
5. 족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作名觀－名 및 改名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 권기석(서울대)

❑ 종합토론
   • 좌장 : 김우정(단국대)

6) 사전학총서 발간

『한국한자어사전』과 『한한대사전』을 편찬한 경험과 동양학연구원 주최 사전학 학술회의를 통하여 축적된 사전 편찬에 대한 지식과 연구 성과를 계승하기 위하여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에서는 2013년부터 사전학총서를 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동양학간보』와 사전학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거나 『동양학』지에 실렸던 사전편찬 관련 글들이 주제에 맞게 집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사전 편찬에 대한 지식과 성과는 사전학의 기초를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하나로 묶어 출판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 의도도 있다. 이제까지 발간되었던 사전학총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집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한한대사전

- 발행일 : 2013. 1. 31

1부 『한한대사전』 편찬의 기본 방향

『한한대사전』 편찬의 기본 방향과 체재/편찬실
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Ⅰ)－토박이 말을 대상으로－/이강로
표제어의 선정기준에 대하여(Ⅱ)－한자어를 중심으로－/이강로
『한한대사전』에서의 자전적 분야에 대한 소고/김동길
『한한대사전』의 구건과 자형 정비/정형도
『한국한자어사전』에 수용된 이두・구결・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박찬규
『한한대사전』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미/정재철

2부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사전학
『한한대사전』의 편찬 과정과 향후 계획/윤승준
중국 자서 편찬사에 대한 고찰/서원남
『한어대사전』의 편찬과정과 내용상의 특징/金健人
중국 역사언어사전(詞典)의 현황과 과제－근대중국어를 중심으로－/강용중
일본 한자사전의 역사/森博達
고금을 아우르고 나라 간에 상호보충하다－대만 『중문대사전』과 『이체자자전』의 편찬을 예로 하여－/沈寶春

제2집 동아시아 고유한자와 사전편찬

- 발행일 : 2014. 2. 25

1부 동아시아 고유한자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 연구 二題/이건식
일본제 한자의 변천과 형성방법/笹原宏之
거란 대・소자의 유형 및 연구현황/吳英喆
유니코드 한자 정보 및 이체자 사전의 편찬과 그 의미/정우봉

2부 동아시아 한자사전과 사전학
사전편찬에 있어서의 한문해석의 중요성/이강로
한자의 음독과 국어 주석/이충구
‘歪’字音考/김동길
단위어의 쓰임에 대하여/박성훈
단위어 ‘箇’자에 대하여/박성훈

제3집 디지털시대 동아시아 한자사전 편찬과 정보 서비스 방안

- 발행일 : 2015. 2. 25

1부 웹 한자사전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김지영
중국 한자사전의 디지털화와 미래/邵永海
일본에서의 WEB 한자사전/沖森卓也

대만 국어사전의 디지털화 현황과 미래/許學仁
2부 학술자료의 정보 서비스 방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창겸
장서각 디지털 자료관 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이건식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정보화 사례 연구/양창진

제4집 한국학 전문사전 편찬과 한자사전 편찬방법론

- 발행일 : 2016. 2. 25
1부 한국학 전문사전 편찬의 역사
중세 · 근대 · 개화기의 운서 및 자서 편찬의 역사/이준환
한국사사전 편찬의 역사와 과제/김철웅
한국 철학사전 편찬의 역사와 전망/이동철
2부 한자사전 편찬방법론
『디지털한한대사전』의 표제어 구성에 대하여/정재철
통합 『한한대사전』의 국자 처리에 대하여/이건식
한자사전 자음 처리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비교/권인한
『한한대사전』의 뜻풀이에 대하여/박진호
한자사전의 용례 선정 원칙과 실제/윤승준

〈참고문헌〉

A. 도서류

『단국대학교 40년사』, 단대출판부, 1987.

『단국대학교 50년사』 상, 단대출판부, 1997.

『단국대학교 60년사』 중, 단국대 60년사편찬위원회, 2007.

『단국대학교 70년사』 Ⅰ, 단국대 70년사편찬위원회, 2017.

『동양학』 7~77(휘보), 동양학연구소(원), 1977~2019.

『동양학간보』 12, 휘보, 2001.

『한국한자어사전』 1~4, 단대출판부, 1992~1996.

『한한대사전』 1~15, 단대출판부, 1999~2008.

B. 일반 논고류

김동욱 외, 「한한대사전 편찬 중간보고」, 『동양학간보』 6, 1987.

김동욱, 「동양학연구소장 就任寸感」, 『동양학간보』 1, 1984

김상배, 「한한대사전 출판과의 인연」, 『한한대사전 간행기』, 2008.

김상홍, 「국격을 높인 학술문화사의 금자탑」, 『한한대사전 간행기』, 2008.

김지영,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의 DB구축과 온라인 사전편집기」, 『동양학』 5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노영수, 「한국한자어사전 제1권 출판기념식 식사」, 『동양학』 22, 1992.

동양학연구소, 「동양학연구소 약사」, 『동양학』 20, 1990.

박찬규,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 경과와 미래」, 『디지털시대 동아시아 한자사전 활용방안 모색』 (제8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학술회의 발표집), 2017.

윤승준 외, 「통합디지털한한대사전 DB구축과 웹서비스」, 『한국학 사전 편찬 방법론의 모색』, 지식과교양, 2013.

윤승준, 「『한한대사전』의 편찬과정과 향후 계획」, 『동양학』 52, 2012.

정재철, 「『한한대사전』의 편찬 방향과 사전사적 의의」, 『동양학』 46, 2009.

정형도, 「『한한대사전』의 구건과 자형 정비」, 『동양학』 52, 2012.

차주환, 「한국한자어사전의 편찬과 교열」, 『동양학간보』 4, 1986.

C. 보고서류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실, 「한한대사전편찬계획서」, 1978.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 편찬 현황과 향후(1995~2004) 계획」, 1994. 10.

동양학연구소, 「2000년도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결과 보고서」, 2001. 12.
동양학연구소, 「교육부정책과제 '07 『한한대사전』 결과 보고서」, 2007. 12.
동양학연구소, 「사전 조판 인쇄 계획(안)」, 1990. 12.10.
동양학연구소,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 '06 『한한대사전』 연차 보고서」, 2006. 10.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편찬사업개요」, 1979.
동양학연구소, 「『한한대사전』 중간평가 보고서 - 제13 · 14 · 15권 -」, 2007. 11. 28.
동양학연구원 편찬실,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편찬사업 완료보고서」, 2018. 2.

Ⅲ. 번역실의 역사(2011~2020)

장 유 승*

ㅣ목 차ㅣ

1. 연혁
2. 번역인원
3. 번역사업
4. 연구역량 제고 활동

1. 연혁

1) 번역실 설치(2011)

동양학연구원 번역실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선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한국고전번역원이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미번역 고전을 조기 번역하고, 지역 고전번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10년간 22억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참여 자격은 고전번역 관련 기획, 연구, 번역, 편찬 실적 보유 대학이었다. 2010년 4월 중형거점연구소 6개소와 소형거점연구소 4개소가 선정되었다.

거점연구소는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로 나뉘어 선정되었는데, 전국 단위는 연세대 국학연구원(중형),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부산대 점필재연구소 컨소시엄(중형) 2개소, 지역 단위는 수도권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중형),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소형), 중부권의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중형),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소형),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안동대 퇴계학연구소 컨소시엄(중형),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소형), 호남권의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한국고전문화연구원 컨소시엄(중형),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조선대 고전연구원 컨소시엄(소형)이었다. 동양학연구소는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2011년, 한국고전번역원은 사업에 참여할 중형거점연구소 2개소와 소형거점연구소 1개소를 추가 공모했다. 동양학연구소는 고전번역연구실을 설치하고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여 재지원했다. 그 결과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중형),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사)해동경사연구소 컨소시엄(중형),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소

* 동양학연구원 번역실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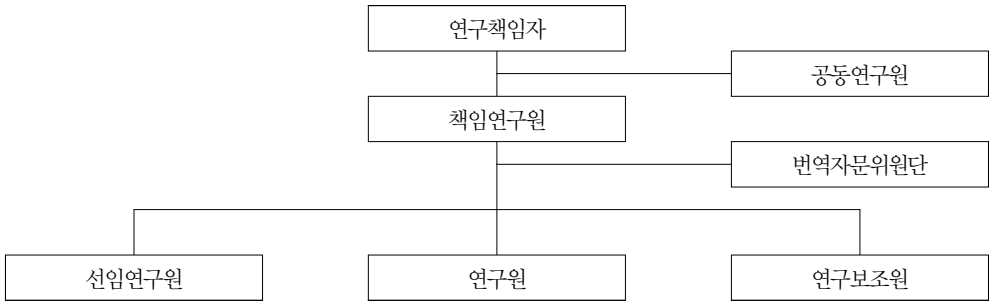
형)이 선정되었다. 이에 단국대 동양학연구소는 1단계 사업(2010~2019) 2년차인 2011년 5월 1일부터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1년 9월 1일 동양학연구소가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양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번역실이 신설되면서 사업팀은 번역실에 속하게 되었다.

2) 조직의 변천(2011~2019)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본디 30년간 한국문집총간 정편에 수록된 문집 전체를 번역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1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3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번역실은 1기 2차년도인 2011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매년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받아 2기(2013~2015년), 3기(2016~2019년) 사업을 완수하고, 현재 2단계 1기 사업(2020~2022년)을 수행 중이다.

번역실의 조직은 설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다만 동양학연구원의 직급 체계와 한국고전번역원 사업 과제의 직급 체계가 상이한 관계로, 번역실 소속 연구원의 직급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직급 체계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사업 과제의 참여자 자격 조건에 따르면,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로서 최근 10년간 단독번역 3편, 또는 공동번역 6편 이상의 실적, 그리고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과 단독번역 1편, 또는 공동번역 3편 이상의 실적이 요구된다. 인건비는 사업의 직급 체계에 따라 지급되므로, 번역실은 부득이 동양학연구원의 직급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을 두었다. 번역실의 최초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실 편성표(2011년)



한편, 번역실은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선정과 함께 고전강독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고전강독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지역 거점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한문고전 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교수 1인 + 학생 4인 수준의 고전강독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권역 거점연구소와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번역실은 '단국서당'을 부설하여 고전강독 클러스터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 교육하였다. 단국서당은 교양반과 전문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당 12시간 4과목을 개설하였다. 교내의 한문고전 관련 학과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일반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고전강독 클러스터 사업이 2년 만에 중단된 뒤에도 단국서당은 계속 운영되었다. 2015년 하반기까지 총 6회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누적 수강인원은 150여 명에 달한다. 단국서당을 통해 한학의 기초를 익힌 학생들 중 일부는 전문 역자가 되기 위해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 및 전문과정에 입학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수강생 감소와 학교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폐지되었다.

단국서당과 고전강독 클러스터 사업을 대신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들이 각각 전공분야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번역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스터디 그룹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참여 학생들은 한국고전번역원 연수과정 입학, 대학원 진학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18년 고전강독 클러스터 사업이 재개되면서 아래의 강독 그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한사반(漢師班)**

- 운영 목적 : 역자, 연구원, 한문교사 양성
- 학습 내용 : 사서 및 한국문집 강독
- 지도 교수 : 한문교육과 김우정
- 참여 현황 : 대학원생 및 학부 3~4학년생, 총20명
- 운영 방법 : 주1회 회당 3시간

❑ **사료강독반**

- 운영 목적 : 역자, 연구원 양성
- 학습 내용 : 한국 역사 사료 강독
- 지도 교수 : 사학과 김문식
- 참여 현황 : 대학원생 및 학부 3~4학년생, 약10명
- 운영 방법 : 주1회 회당 3시간 지도

❑ **시화강독반**

- 운영 목적 : 번역 전문가 및 연구원 양성
- 학습 내용 : 사서 및 한국문집 강독
- 지도 교수 : 국문과 윤재환
- 참여 현황 : 대학원생 및 학부 4학년생, 10명 내외
- 운영 방법 : 주1회 회당 3시간 지도

2. 번역인원

최초 사업 지원 당시 번역실 인력의 기본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 번역 사업에 적합한 한문 해독

능력과 원전 이해 능력을 지닌 인력, 번역 작업과 함께 연구 활동이 가능한 상근 연구 번역 인력, 후속 세대 양성과 지역 번역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참여 인력, 사업 규모 확대에 대응 가능한 인력이었다.

이에 동양학연구소 연구실과 한한대사전 편찬실에서 근무한 교수급 인력과 원로 한학자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김문식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김우정 교수, 윤재환 교수, 윤승준 교수를 공동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책임연구원 허호구, 선임연구원 김영봉, 최예심, 장유승, 이라나, 연구원 김재영 총 10인으로 사업을 신청했다. 이중 허호구 책임연구원은 학교 측에서 초빙교수로 발령하고 사업비와 별도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학교 측의 사업 지원 의사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는 동양학연구원이 본 사업의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은 대부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상임연구원 과정 수료자로서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번역실이 설치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번역실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역대 연구원

이름	재직기간	신분
허호구	2011.5~현재	초빙교수 겸 책임연구원
김영봉	2011.5~2012.4	선임연구원(2011.5~2012.2) 연구교수(2012.3~2012.4)
최예심	2011.5~현재	선임연구원(2011.5~2016.12) 책임연구원(2017.1~현재) 연구교수(2020.3~현재)
이라나	2011.5~2014.2	선임연구원
장유승	2011.5~현재	선임연구원(2011.5~2016.12) 책임연구원(2017.1~2020.2) 연구교수(2020.3~현재)
김재영	2011.5~2013.4	연구원
이은정	2011.5~2014.2	연구보조원
김하라	2012.6~2013.8	연구원
이승용	2013.5~현재	연구원(2013.5~2016.12) 선임연구원(2017.1~현재)
김홍백	2013.5~2015.12	연구원
권진옥	2013.9~현재	연구원(2013.9~2016.12) 선임연구원(2017.1~현재)
유명석	2014.2~2016.3, 2020.7~현재	연구보조원

이름	재직기간	신분
심규태	2016.4~2017.10	연구보조원
신윤수	2017.10~2020.6	연구보조원

2) 역대 번역실장

이름	재임기간	비고
김문식	2011.10.1~2013.6.30	교수/사학과
윤재환	2013.7.1.~2015.6.30	교수/국어국문학과
윤채근	2015.7.1.~2017.6.30	교수/한문교육과
김우정	2017.7.1.~2019.6.30	교수/한문교육과
윤재환	2019.7.1.~현재	교수/국어국문학과

3) 역대 연구책임자

이름	재임기간	비고
김문식	2011.5.1.~2013.4.30	교수/사학과
윤재환	2013.5.1.~2015.12.31	교수/국어국문학과
김우정	2016.1.1.~2019.5.30	교수/한문교육과
김문식	2019.6.1.~현재	교수/사학과

3. 번역사업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은 2011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중형연구소로 선정되어 매년 5책의 번역서 또는 교감표점서를 출간하였다. 번역실은 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조선중기 고문사파 문인들의 문집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문단의 중심에서 문학론을 선도해 나간 인물로서 문학사적 위상이 높고,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지역적으로 유관한 인물의 문집을 번역한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였다. 이에 번역실은 1단계 9년의 사업 기간 동안 윤근수(尹根壽)의 『월정집(月汀集)』, 신익전(申翊全)의 『동강유집(東江遺集)』, 조경(趙絅)의 『용주유고(龍洲遺稿)』, 신익성(申翊聖)의 『낙전당집(樂全

堂集)』,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집(於于集)』, 서종태(徐宗泰)의 『만정당집(晩靜堂集)』을 번역하였다. 이 문집들은 연구자의 번역 요구가 높은 반면, 난해한 탓에 전문 번역자의 번역을 필요로 하였다.

번역실은 고문사파 문인들의 주요 문집을 완역한 뒤, 조선후기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근기지역 인물들의 문집 번역으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명청 교체에 이어 대두한 대명의리론(大明義理論), 환국정치의 이론적 배경이 된 예송(禮訟)과 호락논쟁(湖洛論爭) 등이 조선후기사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집의 번역은 조선후기 지성사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번역실은 조선후기 낙론의 종장이었던 이재(李縡)의 『도암집(陶菴集)』, 그리고 인현왕후의 부친이자 숙종대 대표적인 노론 가문인 여흥 민씨(驪興閔氏) 집안의 일원이었던 민유중(閔維重)의 『문정공유고(文貞公遺稿)』 번역에 착수하였다.

2020년 2단계 사업부터 번역에 착수한 『후재집(厚齋集)』은 김간(金榦)의 문집이다. 김간은 저자가 소론과 노론을 넘나들며 송시열과 박세채를 모두 사사(師事)하였으므로 그의 경설과 예설은 17~18세기 조선사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소에서 기 번역한 『도암집(陶菴集)』의 저자 이재(李縡)와 관련이 깊다. 이재는 노론(老論) 낙론(洛論)의 종주(宗主)이며, 『후재집』의 저자 김간 역시 호론(湖論)을 비판하고 낙론(洛論)에 찬성하였다. 이는 도암 이재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후재집』의 번역은 본 연구소의 기존 사업 성과를 더욱 심도 깊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번역실에서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결과물로 출간한 번역서와 교감표점서, 그리고 그밖의 연구서 및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1) 번역서 : 27책

서명	저자	번역자	발행일	
국역 월정집1	윤근수	김영봉, 장유승	2014.04.30	
국역 월정집2	윤근수	장유승, 최예심, 이라나	2014.04.30	
국역 월정집3	윤근수	장유승, 이라나, 김재영	2014.04.30	
국역 동강유집1	신익전	김영봉, 최예심, 이라나	2014.04.30	
국역 동강유집2	신익전	최예심, 장유승, 김재영	2015.04.30	
국역 용주유고1	조경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2015.04.30	
국역 용주유고2	조경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2015.04.30	
국역 용주유고3	조경	최예심, 이라나, 김하라, 김재영	2015.04.30	
국역 용주유고4	조경	최예심, 이라나, 김하라	2015.12.30	
국역 용주유고5	조경	장유승, 김하라, 김재영	2015.12.30	
국역 낙전당집1	신익성	최예심, 장유승, 이승용	2016.12.30	
국역 낙전당집2	신익성	최예심, 이라나, 권진옥	2016.12.30	

서명	저자	번역자	발행일	
국역 낙전당집3	신익성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6.12.30	
국역 어우집1	유몽인	장유승	2016.12.30	
국역 어우집2	유몽인	김홍백, 권진옥	2016.12.30	
국역 어우집3	유몽인	최예심, 김홍백	2018.12.31	
국역 어우집4	유몽인	최예심, 장유승	2018.12.31	
국역 어우집5	유몽인	김홍백, 권진옥	2018.12.31	
국역 도암집1	이재	최예심, 이승용	2018.12.31	
국역 도암집2	이재	장유승, 권진옥	2018.12.31	
국역 도암집3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4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5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6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7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8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국역 도암집9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2) 교감표점서 : 10책

서명	저자	번역자	발행일	
교감표점 월정집	윤근수	김영봉,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김재영	2015.04.30	
교감표점 동강유집	신익전	김영봉,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김재영	2015.04.30	
교감표점 용주유고1	조경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2015.04.30	
교감표점 용주유고2	조경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김하라, 김재영	2015.04.30	
교감표점 낙전당집	신익성	최예심, 이라나,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6.12.30	
교감표점 어우집1	유몽인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김홍백	2016.12.30	
교감표점 어우집2	유몽인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김홍백	2016.12.30	
교감표점 도암집1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교감표점 도암집2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교감표점 도암집3	이재	최예심, 장유승, 권진옥, 이승용	2019.12.31	

3) 기타 : 5책

서명	저자/번역자	발행일	
월정 윤근수 연구	김우정 외 11인	2015.05.24	
성호선생언행록	허호구	2013.10.25	동양학번역총서1
창선감의록	윤재환, 맹영일	2014.02.25	동양학번역총서2
곡강루기우기 상사동전객기	김정숙	2015.02.25	동양학번역총서3
오천집	권진옥	2017.02.25	동양학번역총서4
완구유집	이승용	2018.08.25	동양학번역총서5

4. 연구역량 제고 활동

1) 번역학 학술회의 개최

동양학연구원 번역실은 권역별거점번역연구소 협동번역사업 수행 이래로 번역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한국 문집의 번역과『월정집』
날짜 : 2012년 2월 11일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해평윤씨 월정공파 종회

1. 기조발표 : 월정 윤근수의 생애와 활동
   발표 : 김문식(단국대)
2. 한국 산문 번역의 특성과 과제
   발표 : 권경열(번역원)
3. 운문 번역의 제문제
   발표 : 이규필(성균관대)
4. 학술번역이란 무엇인가-『월정집』을 중심으로
   발표 : 장유승(단국대)
5.『월정집』한시 번역의 실제 - 난해구(難解句)를 중심으로
   발표 : 김영봉(단국대)

6. 『월정집』의 지성사적 의미 - 윤근수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조망을 겸하여
   발표 : 김우정(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단국대)
   토론 : 윤승준(단국대), 윤재환(단국대), 최병준(고려대), 이상하(번역원), 신영주(성신여대)

제2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용주 조경의 문학과 사상
날짜 : 2013년 2월 2일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양조씨 문간공파 종회

1. 기조발표 : 용주 조경의 생애와 학문
   발표 : 김문식(단국대)
2. 龍洲 趙絅의 詩文學 世界 - 卽興詩의 詩世界를 中心으로
   발표 : 윤재환(단국대)
3. 용주 조경 문학에 나타난 질병의 형상화
   발표 : 김하라(단국대)
4. 1643년 통신사행과 趙絅의 일본 인식에 관하여
   발표 : 신로사(성균관대)
5. 龍洲 趙絅의 대외인식과 斥和論
   발표 : 허태구(서울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단국대)
   토론 : 김언종(고려대), 이현일(명지대), 서한석(성균관대), 김시덕(고려대), 조성산(고려대)

제3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상촌가의 시대인식과 문학세계
날짜 : 2013년 12월 20일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 기조발표 : 동강 신익전의 삶과 문학세계
   발표 : 윤재환(단국대)
2. 상촌가의 ≪평산신씨성보≫ 편찬에 대하여
   발표 : 장유승(단국대)

3. 신익전의 비지문 연구
   발표 : 권진옥(단국대)
4. 신익성의 심양체험
   발표 : 김은정(홍익대)
5. 신흠의 필기류 산문
   발표 : 김광년(고려대)
6. 신익성의 ≪귀전록≫
   발표 : 류준필(인하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단국대)
   토론 : 백승호(시립대), 백진우(고려대), 이라나(단국대), 김홍백(단국대), 오세현(서울대)

제4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한시 번역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
날짜 : 2014년 11월 29일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 한시 번역을 둘러싼 논쟁
   발표 : 장유승(단국대)
2. 한국 한시 연구사의 검토와 과제
   발표 : 이은주(서울대)
3. 한시 연구 방법론의 연구사적 검토와 방향성 탐색
   발표 : 이국진(고려대)
4. 한시 대중화의 현황과 전망
   발표 : 박동욱(한양대)
5. 한시 대중화, 그 독자층에 대한 고민
   발표 : 김영죽(성균관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단국대)
   토론 : 이현일(성균관대), 권진옥(단국대), 이승용(단국대), 김홍백(단국대), 손유경(성신여대)

제5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어우 유몽인과 어우집
날짜 : 2015년 12월 26일

장소 : 용산역 ITX 회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 기간과 유몽인의 산문
   발표 : 김영미(전북대)
2. 어우 유몽인의 산문에 대하여
   발표 : 안세현(강원대)
3. 유몽인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
   발표 : 안득용(고려대)
4. 유몽인의 경세론을 읽는 키워드
   발표 : 김홍백(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허호구

제6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유몽인 문학의 재조명
날짜 : 2016년 11월 4일
장소 :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319호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근역한문학회

1. '奇'의 관점에서 본 유몽인 문학
   발표 : 신익철(한중연)
2. 어우 유몽인 한시 一考
   발표 : 윤재환(단국대)
3. 유몽인의 전후칠자 비판과 고문 계승의 논리
   발표 : 박경남(고려대)
4. 한 선비와 하늘의 다툼 : 유몽인 천관(天觀)의 사상사적 의미
   발표 : 김홍백(성균관대)

❑ 종합토론
   좌장 : 심경호(고려대)
   토론 : 김창호(원광대), 김우정(단국대), 안득용(고려대)

제7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도암집』 번역과 연구의 제문제
날짜 : 2017년 12월 2일
장소 : 단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관 B103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학회

1. 陶菴 李縡의 書社輪誦
   발표 : 장유승(단국대)
2. 陶菴 李縡 碑誌類 산문의 일고찰
   발표 : 권진옥(고려대)
3. 陶菴 李縡의 시인식과 시세계의 상관관계
   발표 : 이승용(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진재교(성균관대)
   토론 : 권경열(번역원), 최식(성균관대), 김형술(전주대)

제8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도암 이재의 생애와 저술
날짜 : 2018년 12월 7일
장소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3층 세미나실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 영조대 탕평정국에서 이재의 학문과 정치
   최성환(한국학호남진흥원)
2. 도암 이재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본 집단지성의 형성
   성봉현(충남대)
3. 도암 이재의 저술
   장유승(단국대)
4. 도암 이재의 영물시 연구
   권진옥(단국대)

❑ 종합토론

제9회 번역학 학술회의

주제 : 도암 이재의 생애와 활동
날짜 : 2019년 11월 8일
장소 : 단국대학교 국제관 502호
주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우봉이씨 대종회

1. 도암 이재와 겸재 박성운의 예설 논의
   발표 : 김윤정(연세대)

2. 도암의 정치사상과 호락논쟁
   발표 : 나종현(서울대)
3. 도암 이재의 의리탕평론
   발표 : 최성환(고려대)
4. 도암 이재 저술의 종합적 검토
   발표 : 장유승(단국대)
5. 도암 이재의 만사에 대하여
   발표 : 이승용(단국대)

❑ 종합토론
   좌장 : 김문식(단국대)
   지정토론 : 장동우(연세대), 우경섭(인하대), 이근호(국민대), 부유섭(번역원), 맹영일(단국대)

2) 기타 활동

번역실은 문집 번역 과정에서 저자의 후손들과 접촉하여 문중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월정집』의 저자 윤근수의 후손으로 구성된 해평윤씨 월정공파 종회와 함께 제1회 번역학 학술회의(한국 문집의 번역과 『월정집』)와 국역 『월정집』 및 『월정 윤근수 연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용주유고』의 저자 조경의 후손으로 구성된 한양조씨 문간공파 종회와 함께 제2회 번역학 학술회의(용주 조경의 문학과 사상)를 개최하였으며, 『도암집』의 저자 이재의 후손이 중심이 된 우봉이씨 대종회와 제9회 번역학 학술회의(도암 이재의 생애와 활동)를 개최하였다. 이밖에 『동강유집』의 저자 신익전과 『낙전당집』의 저자 신익성의 후손으로 구성된 평산신씨대종회 및 『어우집』의 저자 유몽인의 후손 등과 접촉하여 저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를 획득하였다.

동양학연구원 50년의 역사(1970~2020)

2020년 9월 20일 인쇄
2020년 9월 20일 발행

엮은곳 _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펴낸이 _ 김수복
인 쇄 _ 신양사

주소 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화 _ 031-8005-2622
팩스 _ 031-8021-7173